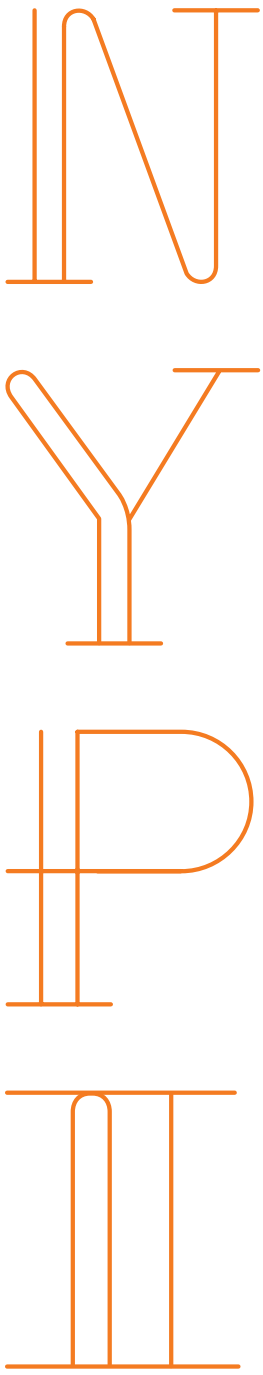
연구보고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임지연

공동연구원
김정주 **김정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학교 · 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정주(모든학교체험활동연구소·소장)
김정숙(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 연구보고원 : 이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정부에서 2013년 5월부터 시범 시행된 자유학기제가 1년이 넘으면서 이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청소년기관 입장에서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나, 학교 입장에서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연계협력에 대한 논의와 사업은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봉사활동, 특별활동, 주5일제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자유학기제로 매 시점과 이슈를 달리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련 연구로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연계협력을 위한 다양한 운영모형과 방안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계·협력을 위하여 학교, 지역사회와 청소년기관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지역 연계에 관한 조사결과, 청소년기관에서는 학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협조부족을 가장 어려운 이유로, 학교는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을 가장 어려운 이유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정책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하여 거시적인 논리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학교와 청소년시설 현장 종사자들이 공감하는 발전방안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학교-지역연계 청소년활동의 실태와 장애가 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학교-지역연계 청소년체험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보고서 작성에 노력해 주신 연구진과 청소년기관, 학교 및 지역사회기관의 전문가들과 면담조사와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현장전문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지역연계 청소년활동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방안의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를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현장방문 및 사례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정책세미나 개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반한 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11개의 우선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정책검토회의를 거쳐 수정·보완함으로써 정책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연구내용은 첫째,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의미파악을 위한 이론적 논의로서 청소년활동과 학교연계의 의미, 청소년활동과 학교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의 의미,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현황 및 사례조사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 간의 정책적 쟁점과 현장 사례를 조사하였다. 셋째, 청소년,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사, 지역현장 체험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시설의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의 실태, 문제점과 인식, 특징을 근거이론(ground theory)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넷째, 교사와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유학기제의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 운영실태, 어려움과 요구사항,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를 조사하여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넷째, 새로운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방안 및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는 질적·양적 실태 조사에 대한 주요 결과와 우선순위 요구결정을 위한 분석결과(중요도와 실천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는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 271명)과 학교(교사 204명)를 대상으로 Borich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지원이 필요한 1순위-11순위까지의 요구사항으로 도출되었다. 11개의 정책과제는 이동수단,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전담인력,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프로그램 개발, 교육멘토 양성,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관 만의 우선지원이 필요한 요구사항은 실무자연수, 실태조사연구, 공동실무협의회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과제는 총 14개로 도출되었다. 정책방안은 문제현상, 문제원인, 대안마련으로 제시하였으며, 단기에서 중장기 단계별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활동,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지역연계, 체험활동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지역연계 청소년활동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방안의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를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자유학기제는 2013년 2학기부터 시범 시행되어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시사점,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 **전문가 자문 :** 연구방향 설정, 면담조사지 개발, 설문조사지 개발, 자료분석 관련 자문, 구체적 정책방안 제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 **면담조사 :** 조사대상은 첫째, 전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학부모/학생, 둘째, 자유학기제 또는 학교연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셋째, 지역사회기관 현장교육담당자(공공기관, 대기업, 개인사업장, 민간단체) 총42명이다. 조사내용은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실태, 인식, 문제점, 요구사항 등이다. 면담조사는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연구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근거이론의 주된 목적은 어떤 현상과 사건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와 현상간의 상호작용 및 주변 환경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실질적 이론(substantive theory)을 개발하는 것이다.

○ **설문조사 :** 조사대상은 전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80개중 74개)의 교사 204명, 청소년활동시설(100개 기관)의 청소년지도사 271명이다. 조사내용은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이다. 조사방법은 (교사용) Web 설문조사,

(청소년지도사용) 집단별 면접조사원의 방문에 의한 응답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이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정책제언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 **정책세미나 개최 :** 본 연구과제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초기에 연구방향과 사례발표 중심 워크숍개최(2014.4.23.), 후반기에 연구결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 개최(2014.8.29), 유관 연구기관 공동세미나 개최(2014.9.25), 질적연구 방법론: 근거이론 콜로키움(2014.8.29)을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련자들과 소통을 통하여 연구방향 및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과정 중에 4번의 연구 자료집을 발간 및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료요청과 문의에 신속하게 소통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tr><th colspan="2">1단계 : 문헌연구 및 정책세미나</th></tr>
<tr><th>문헌연구</th><th>정책세미나</th></tr>
<tr><td>■ 청소년활동과 학교연계의 의미
■ 청소년활동과 학교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의미
■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의 의미</td><td>■ 청소년지도사, 교사, 정책연구기관, 담당공무원, 학계가 참여하여 학교와 청소년기관 간의 정책적 쟁점과 현장 사례발표, 토론 및 논의</td></tr>
</table>

⬇

<table>
<tr><th colspan="2">2단계 : 면담조사 / 설문조사</th></tr>
<tr><td colspan="2">면담조사 (근거이론 적용)</td></tr>
<tr><td>면담조사
(학생,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사/ 지역현장 체험담당자)</td><td>■ 기 간 : 2014년 4월~5월
■ 대 상 : 학교 / 청소년활동시설 / 기타 지역체험기관 총42명
■ 분석방법 : 근거이론 적용
■ 조사도구 : 학생, 교사, 학부모/ 청소년지도사/ 현장체험기관 관련자(약1시간 소요)
(5가지 종류의 면담조사지 개발)</td></tr>
<tr><td colspan="2">설문조사 (정책과제 도출-우선순위기법 적용)</td></tr>
<tr><td>청소년기관용
(청소년지도사)</td><td>■ 기 간 : 2014년 6월25일(수) ~ 7월20일(월)
■ 대 상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중심 100개 기관 271명)
■ 조사방법 : 면접조사원 방문조사</td></tr>
<tr><td>학교용
(교사)</td><td>■ 기 간 : 2014년 6월25일(수) ~ 7월20일(월)
■ 대 상 : 교사(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 204명)
■ 조사도구 : Web 조사</td></tr>
</table>

⬇

<table>
<tr><th colspan="2">3단계 : 정책방안</th></tr>
<tr><th>정책과제</th><th>정책방안</th></tr>
<tr><td>■ 질적·양적 실태 조사에 대한 주요 결과와 우선순위 요구결정을 위한 분석결과(중요도와 실천도)를 중심으로 제시함.
■ 정책과제는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 271명)과 학교(교사 204명)를 통합하여 Borich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지원이 필요한 1순위-11순위까지의 요구사항이 도출됨.</td><td>■ 11개 정책과제는 이동수단,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전담인력,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프로그램 개발, 교육멘토 양성,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 활동시설 설립확대의 순임.
■ 청소년기관 만의 우선지원이 필요한 요구사항은 실무자연수, 실태조사연구, 공동실무협의회로 나타났음.
■ 14개의 정책과제에 따른 정책방안은 문제현상, 문제원인, 대안마련으로 제시하였으며, 단기에서 중장기 단계별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td></tr>
</table>

【그림 I】 연구의 절차

3. 주요결과

1)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의미파악을 위한 이론적 논의

○ 청소년활동과 학교연계의 의미

그동안 청소년기관[1] 입장에서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나, 학교입장에서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연계협력에 대한 논의와 사업은 1990년대부터 봉사활동, 특별활동, 주5일제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자유학기제로 매 시점과 이슈를 달리해서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과의 연계·협력은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이 수립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시도되어 온 과제이다.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기본법(1991)과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을 계기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 논의가 시작되었다. 교육정책에서 5.31 신교육개혁안(1995)을 계기로 체험학습의 강화로 특별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청소년정책 분야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를 연계함으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접점을 발견하였다. 1990년부터 축적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연계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선행연구를 통한 현장의 학교연계 사례의 시사점은 첫째, 학교교육이 가정·학교·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실행이 부족(학교의 이해, 협조부족)하다. 둘째, 학교-지역 연계의 허브로서 청소년시설의 역할의 강조가 요구된다. 셋째, 학교연계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의미설정이 필요하다.

○ 청소년활동과 학교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의 의미

청소년시설에서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정책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해 보고,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체험활동 활성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운영 모델 확산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량 강화와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도 제고로

1)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관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시설 및 단체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활동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청소년수련관)나 읍·면·동(문화의집)에 설립하여 직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민간의 설치와 운영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전국 시범사업에 이르는 3년간의 프로젝트가 운영되었다(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활동 분야에서는 아쉽게도 2014년도 지역사회 운영모델사업의 정책적 지원이 중단되면서 3년간 개발 적용되어 온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사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원이 아직 전국적으로 안정적 정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여 자생적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과는 분명 여러 운영사례를 통해 현장의 변화와 지역 네트워크의 강화 및 학교정책과 협력 증진, 시설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의 연계 사례의 한계점과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중앙 및 16개 시·도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에 그쳤다. 둘째, 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2013년에 13개, 2014년에 서울시 자치구에 25개 설치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셋째, 학교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은 2011- 2013년에 청소년기관(42개)과 학교(191개)에서 운영된 이후 지역사회 운영모델사업의 정책지원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한 한계점은 학교연계 사업의 정책적 지원이 중단되어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 아직 자생적 확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례와 문헌자료를 통한 성과를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로는 학교연계 운영사례를 통한 청소년기관 현장의 변화, 지역 네트워크의 강화, 학교정책과 협력증진, 시설의 역량강화 등이 있다.

○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의 의미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에 교육부를 통해 도입되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데 있어 교과 수업과 더불어 직·간접 체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자율과정을 학생들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 학생들은 체험중심 수업방식 선호, 학생선택프로그램, 예술 및 체육활동을 희망(한국교육개발원, 201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의 실태를 보면, 자유학기제의 실태를 보면 2013년 연구학교 42개교 중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다. 이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인구 대비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청소년기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와 인식 부족, 청소년기관과의 연계방안, 준비 부족 등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청소년기관과 연계가 중요하다. 학교-청소년기관 상호 업무 이해부족, 대화와 소통의 부족 등을 해소하고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현황 및 사례조사

○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현황 및 사례조사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 간의 정책적 쟁점과 현장 사례를 조사하였다.

3)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면담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

○ 면담조사를 통하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시설의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의 실태, 문제점과 인식, 특징을 파악하였다.

4)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설문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

○ 면담조사를 통하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시설의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의 실태, 문제점과 인식, 특징을 파악하였다.

5)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4. 정책현황 및 문제점

1) 질적·양적 실태조사 주요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는 정책과제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질적·양적 실태 조사에 대한 주요 결과와 우선순위 요구결정을 위한 분석결과(중요도와 실천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와 청소년기관 모두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의 중요성 인식은 매우 높지만 실제 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호이해와 소통 시스템은 부족하다.

둘째, 교실에서 지역으로 확장되는 교육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가 다양한 지역체험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예산부족보다도 당장 학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우선순위 요구사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우선순위 요구사항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 271명)과 학교(교사 204명)를 통합하여 Borich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지원이 필요한 1순위 요구는 이동수단으로 나타났다. 1-11순위까지의 요구사항은 이동수단,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전담인력,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프로그램 개발, 교육멘토 양성,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1개 우선순위 고려항목은 현재 시점에서 자유학기제라는 이슈에 맞게 가장 우선 필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것이며, 다른 영역이나 항목들도 각 시기와 이슈에 맞게 중장기적 안목으로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표 1> 우선순위와 차순위 요구사항(Borich의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결과)

구분	최우선순위	차순위	특징 (차별적으로 나타난 항목)
청소년 기관 (청소년 지도사)	28) 예산배정 (1순위) 22) 법령 개정·제정 (2순위) 23) 지원 시스템 (3순위) 25) 이동수단 (4순위) 26) 입장료 (5순위) 16) 실무자 연수 (6순위) 24) 조사연구 (7순위) 33) 교육멘토 양성 (8순위) 2) 전담 인력 (9순위) 30) 프로그램 개발 (10순위) 32) 안전대책 마련 (11순위)	21) 체험기관 세금감면 (12순위) 17) 컨설팅·연수 전담부서 (13순위) 20) 공동실무협의회 (14순위)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15순위)	◇청소년지도사가 요구하는 교사/통합과 차별된 항목 16) 실무자 연수 24) 실태 조사연구 20) 공동실무협의회
학교 (교사)	25) 이동수단 (1순위) 32) 안전대책 (2순위) 26) 입장료 할인 (3순위) 30) 프로그램 개발 (4순위) 28) 예산배정 (5순위) 23) 지원시스템 (6순위)	2) 전담인력 (7순위)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8순위) 22) 법령 개정·제정 (9순위) 33) 교육멘토 양성 (10순위) 8) 재능기부 (11순위) 17) 컨설팅·연수 전담부서 (12순위)	◇교사가 요구하는 청소년지도사/통합과 차별된 항목 8) 재능기부
통합 (지도사와 교사)	25) 이동수단 (1순위) 28) 예산배정 (2순위) 23) 지원 시스템 (3순위) 22) 법령 개정·제정 (4순위) 2) 전담인력 (5순위) 26) 입장료 할인 (6순위) 32) 안전대책 마련 (7순위) 30) 프로그램 개발 (8순위) 33) 교육멘토 양성 (9순위)	21) 체험기관 세금감면 (10순위)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11순위)	◇통합우선순위 11개 항목은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의 현장, 교육청과 지자체와 각 부처가 공통으로 노력해야할 요구사항임.

5. 정책방안

지금까지의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중요도와 실천도가 높은 우선순위 요구사항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 271명)과 학교(교사 204명)를 통합하여 Borich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지원이 필요한 1순위 요구는 이동수단으로 나타났다. 1-11순위까지의 요구사항은 이동수단,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전담인력,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프로그램 개발, 교육멘토 양성,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선순위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프로그램 운영(2개), 프로그램 개발(2개), 전문성 확보(1개), 실무역량 육성(1개), 체험기관 인센티브(1개), 제도마련(5개)으로 제시되었다. 제도마련(예산, 법, 시스템) 뿐 아니라, 실천적인 내용들인 프로그램, 실무역량 등에 관한 내용들이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은 주목해 볼 일이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중요도와 실천도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면서도 현재 실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이러한 11개 우선순위 고려항목은 현재 시점에서 자유학기제라는 이슈에 맞게 가장 우선 필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된 것이며, 다른 영역이나 항목들도 각 시기와 이슈에 맞게 중장기적 안목으로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표 2> 영역별 정책과제 : 1-11순위 요구사항 조사결과(청소년기관과 학교 통합)

구분	정책영역	정책과제
통합 (청소년기관과 학교)	프로그램 운영 (2개)	이동수단, 입장료할인
	프로그램 개발 (2개)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확보 (1개)	전담인력
	실무역량 육성 (1개)	교육멘토 양성
	체험기관 인센티브(1개)	체험기관 세금감면
	제도마련 (5개)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개정·제정, 안전대책,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표 3> 정책과제: 우선순위 요구사항

구분	우선순위 및 정책과제[2]		세부내용
청소년기관 (청소년지도사) 정책 과제 [3]	6순위	실무자 연수	자유학기제에 대한 실무자연수로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운영 방식 등 공유
	7순위	실태조사연구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와 개선방안 조사연구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단기, 중장기 정책마련
	14순위	공동실무협의회	행정 권역별 학교/청소년체험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 협의회 운영
통합 (청소년기관과 학교) 정책 과제 [4]	1순위	이동수단	교통안전수단, 학생관리, 인솔문제, 교통비용, 계약 및 답사 등
	2순위	예산배정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통비, 입장료, 강사료 등
	3순위	지원시스템	지역–학교 연계 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으로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해 지역 교육청과 자치구청 등에서 연계하여 기록, 정보, 홍보, 안내 등 지원
	4순위	법령	청소년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 지자체 조례 등
	5순위	전담인력	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 채용, 청소년 지도사, 행정실무사 등 채용 필요
	6순위	입장료 할인	유료체험 프로그램 입장료 부담, 유로 활동의 경우 학부모 동의와 학생 참여의사 등 업무 증가
	7순위	안전대책	체험활동, 장소, 건강관리, 비상대책 등 안전지침과 교육방안 등
	8순위	프로그램 개발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9순위	교육멘토 양성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 멘토로 진로교육담당자 등 양성 및 운영시스템 마련
	10순위	체험기관 세금감면	지속적인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금감면과 기부금 합법화 필요
	11순위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 읍면동에 문화의집 등 설립확대

2) 총 14개의 정책과제는 총 33개의 항목 중에서 Borich의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결과 우선순위 요구사항으로 도출된 항목임.

3) ◇청소년지도사 조사결과,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차별된 항목은 실무자연수, 실태조사연구, 공동실무협의회 항목임.
◇교사 조사결과,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차별된 항목은 재능기부 항목임.

4) ◇통합(청소년지도사, 교사) 조사결과, 우선순위 요구사항 11개 항목은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의 현장, 교육청과 지자체와 각 부처가 공통으로 노력해야할 요구사항임.

1)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 정책과제[5)]

○ 과제1, 자유학기제에 대한 실무자연수

(문제현상) 청소년기관을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실무자 연수가 33문항 중에서 6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문제원인) 그동안 청소년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등 학교연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자연수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

(대안마련) 첫째, 학교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자유학기제 등과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실무자 연수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 교사들에게 지역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운영을 이해하도록 교육연수가 필요하다.

○ 과제2,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조사 연구

(문제현상) 청소년기관을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조사 연구가 33문항 중에서 7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문제원인)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조사 연구를 통한 현장의 변화와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 정책의 연속성 유지와 정책적 지원을 바라는 요구를 나타낸 것이다.

(대안마련) 첫째,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장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하다. 둘째,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로 단기, 중장기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 과제3, 행정 권역별 학교/청소년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문제현상) 청소년기관을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공동실무협의회 운영이 33문항 중에서 14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문제원인) 이는 그동안 청소년기관에서 학교와의 소통과 협조를 얻는 것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안마련) 첫째, 행정 권역별 학교/청소년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둘째, 교육지원청 별로 공동실무협의회를 관계 법령에 명시한다.

---

5) ◇청소년지도사 조사결과,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차별된 항목은 16)실무자연수, 24)실태조사연구, 20)공동실무협의회 항목으로 나타났음.
◇교사 조사결과,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차별된 항목은 8)재능기부 항목으로 나타났음.

<표 4> 초·중·고 학생수/ 학교수/ 교육지원청수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시설 비율

구분	산출근거		단위학교당 청소년(수련)활동시설 수(%)
1	초·중·고 학생수/ 청소년(수련)활동시설수	6,285,792/ 753	학생 8,347명 당 1개 시설
2	초·중·고 학교수/ 청소년(수련)활동시설수	11,446/ 753	학교 15개 당 1개 시설
3	청소년(수련)활동시설수/ 초·중·고 교육지원청수	179/ 753	1개 교육지원청 당 4.2개 시설

참고: 교육통계서비스(2014.11.12). 유초중등 학교급별 개황.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4. 11. 12에 인출.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2) 통합 (청소년기관과 학교) 정책과제[6)]

○ 과제1, 지역체험 단체활동 시 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

(문제현상) 이동수단이 학교(교사)와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의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학교는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이 1순위, 청소년기관은 학교의 비협조(이해부족)가 1순위로 나타났다. 즉 자유학기제 등으로 이미 현장에서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면서도 실천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이동수단이 1순위로 제시된 결과임을 의미한다.

(문제원인) 구체적으로 이동수단의 의미는 교통안전수단, 학생관리, 인솔문제, 교통비용, 계약 및 답사 등 교사와 현장 지도자의 업무량 증가 및 심리적 부담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이동에 대한 교사와 현장 지도자의 행정적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안마련) 첫째, 지방자치단체나 동사무소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근처 학교나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교육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기관의 순환버스 운행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을 확대·증설하여야 한다.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면 이동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 ◇통합(청소년지도사, 교사) 조사결과, 우선순위 요구사항 11개 항목은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의 현장, 교육청과 지자체와 각 부처가 공통으로 노력해야할 요구사항임.

○ 과제2.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 추가 배정

(문제현상)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 추가 배정이 2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에 예산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지역체험 프로그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내역은 강사비나 재료비 등의 실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예산들을 청소년기관이나 학교에서 지역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매번 학생들의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는 어렵다. 특히 학교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처럼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때는 건건이 실비를 학생들에게 걷기가 어렵다. 예산배정은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통비, 입장료, 재료비, 강사료 등을 의미한다.

(문제원인) 학교에서 교사들이 예산을 걷을 때는 학부모 동의서 등 여러 행정절차와 업무량 증가가 수반되는 것도 어려운 이유이다. 학교가 청소년기관에 교육기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은 98%가 공공기관으로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관에서는 학교연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가 교육기부나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면 청소년기관들은 비용을 충당할 곳이 없는 형편이다.

(대안마련)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은 학교에서 실비 비용을 지불하고 청소년기관을 이용하는 방안과, 지자체나 여성가족부, 정부 기관에서 청소년기관에 직접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에 지역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기관에 학교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기관을 설립한 지자체나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등 정부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과제3. 지역-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

(문제현상) 지원시스템은 지역-학교 연계 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으로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해 지역 교육청과 자치구청 등에서 연계하여 기록, 정보, 홍보, 안내 등 지원을 의미한다.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이 3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 청소년기관의 96.6%가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의 98.6%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로 학교의 이해부족(비협조)(1순위),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의 지원부족(2순위), 학교-청소년기관의 정보교류시스템 부족(3순위)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교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는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1순위), 업무과다(2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원인) 첫째,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며, 청소년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행정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속적으로 연계 가능한 청소년기관을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와 지역자원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상호 소통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대안마련) 첫째,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한 청소년지도자와 교사 대상 연수를 지원한다.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교사 연수 등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한 연수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지역청소년기관이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체험활동 정보시스템을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전산망 연결이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 정보, 안내 등 지원시스템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체험활동 관련 모든 전산망을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연결, 통합하여 전산망(에듀팟, 꿈길, 크레존, 교육기부 매칭사이트, 유스내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통합 지역체험활동 정보시스템을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이 학교, 지역체험기관,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본다. 셋째, 지역-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과제4. 청소년(학생)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

(문제현상) 법령은 청소년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 지자체 조례 등을 의미한다. 청소년(학생)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이 4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도 진로교육법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 체험 인프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예산지원 등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을 구현하는 일선 현장(학교, 청소년수련시설, 공공기관 등)에서는 서로 이해와 소통을 지원하는 정책이 없어서 연계 협력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원인) 첫째, 일선 현장에서 서로 이해와 소통이 없어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지역체험활동(진로체험, 직업체험 등 포함)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법령의 일관성, 통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안마련) 첫째,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체험활동(진로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포함)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총괄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에서는 학교 체험활동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하여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교육청 및 시도 중심의 체험활동 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 관련 법령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자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지원 및 학교와의 역할분담 필요하다. 다섯째, 교과과정 연계 및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관련 법령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체험활동 전문지도자로서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확대 관련 법령 지원이 필요하다.

○ 과제5. 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의 채용

(문제현상) 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의 채용이 5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학교-지역연계는 많은 시간과 노력,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의 추진이 필요하다. 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의 채용은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지도사 채용, 학교의 행정실무사 등의 채용을 의미한다.

(문제원인) 기존의 인력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업무과중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인력의 배치에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대안마련) 첫째, 부처 담당자의 학교-지역연계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학교-지역연계를 전담할 인력의 신분과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채용, 배치, 역할, 예산의 부담주체 등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배치되는 인력의 예산부담 주체에 따라 청소년시설 혹은 학교 등 배치장소가 결정될 수 있으며 업무추진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향점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기관은 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한다.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등과 같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는 학교-지역연계 행정실무사를 추가배치 한다. 전 교사가 수업방법 개선 및 자율과정 운영안 작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 과제6. 지역체험 시 입장료 지원 또는 할인

(문제현상) 지역체험 시 입장료 지원 또는 할인이 6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교육기부를 통해 무료 체험학습에만 치중하다보면 유료 체험프로그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인) 교육기부를 통해 무료 체험학습에만 치중하다보면 유료 체험프로그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나 지도자 입장에서는 실제 입장료나 참가비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프로그램별로 학부모 동의나 학생의 참여의사 등을 거쳐 수행해야하므로 업무량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다. 1회 입장료 자체가 많이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비, 입장료, 체험활동비가 반복적으로 소요되다 보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안마련) 입장료 지원 및 할인은 학교와 지역체험기관, 각 정부부처가 소통하면서 함께 지원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학생 체험활동을 위한 할인 또는 무료입장을 위한 관계기관 연결망을 구축한다. 둘째, 정부부처와 행정기관 간에 학생 체험활동을 위한 할인 또는 무료 입장에 대해 협조요청 등 연결망을 구축한다. 셋째, 입장료 할인을 제공한 지역기관에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 부여한다.

○ 과제7. 체험활동 안전대책 마련

(문제현상) 체험활동 안전대책 마련이 7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관과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 여러 곳으로 학생들이 이동함에 따른 안전지도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다양한 체험장 별로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상존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대책은 체험활동, 장소, 건강관리, 비상대책 등 안전지침과 교육방안 등을 포함한다.

(문제원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교사, 청소년지도사 모두 단체 체험활동 시 복잡한 버스, 숙소계약 및 답사, 단체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책임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체험활동을 할 경우 교사만으로는 인솔지도 및 체험활동 지도에 한계가 있다.

(대안마련) 체험활동 전에 학생과 인솔 지도자의 장소, 교통수단, 건강관리, 비상대책 등 안전지침과 교육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지역체험활동이 효과적인 활동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청소년기관, 지도자, 여행사, 운전기사, 보험회사, 숙박

시설 업자 등 관련자들의 인식 혁신과 계약과 추진 지원 시스템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첫째,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체험장에서 숙지해야 할 안전사항을 학교와 연계기관 간에 공유한다. 셋째, 교사 및 청소년지도사용 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 과제8.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문제현상) 프로그램 개발 영역에서는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8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학생요구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요구조사나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다면 체험활동의 동기, 흥미도, 교육적 효과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문제원인)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최소한 동학년, 크게는 전체 학년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활동 장소가 부족한 상황이다.

(대안마련) 첫째, 청소년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과제9.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현장교육담당자) 양성·운영 시스템 마련

(문제현상) 실무역량 육성 영역에서는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 양성 및 운영 시스템 마련이 9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지역체험활동에서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 현장 교육지도자,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원인)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정책 흐름을 교사만 알아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체험기관 진로교육 담당자 등이 교육역량이 강화되도록 교육멘토로 양성 및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안마련) 첫째, 교육멘토 양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역체험기관 실무자들도 보수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역량자체를 강화해야한다. 둘째, 교사도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활용하기(예, 청소년수련관 등) 위한 연수 양성 교육이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 과제10.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문제현상) 체험기관 인센티브 영역에서는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이 10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금감면과 기부금 합법화 등의 방안이 있다.

(문제원인)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은 청소년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공공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충당하는데,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절반도 훨씬 못 미치게 지원받기 때문에 재정을 자립적으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

(대안마련) 첫째, 학교연계 청소년 지역체험활동을 일정 기간에 몇 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관 등과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금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터전으로 참여하는 기업체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감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예 : 농촌체험마을 세금감면 등).

○ 과제11.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문제현상)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가 11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은 98~99%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로서 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사의 지도하에 체계적 조직적인 청소년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기관 임으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성가족부(2013)와 안전행정부(2014)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은 법적기준 227개(시, 군, 구) 대비 181개로 79.74%의 설치가 이루어진 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법적기준 3,488개(읍, 면, 동) 대비 219개로 6.27%만이 설치되어 있는 실태이다. 2014년 현재 전국 중학교는 3,173개교이며, 전국 교육청의 179개이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을 구분하고 관내의 교육지원청 수에 따라 기초적인 산술로 나누어보면, 교육지원청 당 평균 4.2개의 청소년(수련)활동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역에 따라서 세종시(1.0개)부터 제주도(21.5개)까지 다양하게 설립(장현진, 2014)되어 있다.

(문제원인) 현재 청소년기본법 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의하면 청소년시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시·군·구 227개[7]에서 청소년수련관은 181개(공공 177개, 민간 4개)로 아직도 20.26%의 시·군·구에서 설치·운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읍·면·동 3488개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은 219개(공공 216개, 민간 4개)로 아직도 93.73%의 읍·면·동에서 설치·운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원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부족 및 예산부족,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 청소년활동시설의 정체성 및 홍보부족, 법으로 설치의무화 하였지만, 미설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설치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근거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설치 노력을 촉구함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마다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설립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5> 행정구역별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설치 비율

구분	시·군·구	수련관	시·군·구 수련관 설치비율	읍·면·동	문화의집	읍·면·동 문화의집설치 비율
계	227	181	79.74%	3488	219	6.27%

참고: 여성가족부(2012.12.31. 기준). 안전행정부(2014.1.1. 기준), 전국 중학교(3,173개교), 전국 교육지원청(179개)

(대안마련) 첫째, 청소년문화의집의 법적 설치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시설의 전문성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활동시설 건립 시 대규모 청소년활동시설 보다 지역여건, 청소년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기관의 양적 증가와 프로그램운영 등 질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7) 전국 행정구역(시군구, 읍면동)은 안전행정부(2013). 안전행정백서. p. 990(2014.1.1.기준)에서 참고함.

3) 단계별 추진 로드맵

<표 6> 단계 별 추진 로드맵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단계	정책영역	정책과제	정책방안	추진체계[8]
청소년기관 (청소년지도사) 정책과제[9]				
단기 과제 (1-2년)	실무역량육성	1) 자유학기제에 대한 실무자연수	1. 자유학기제와 같은 학교연계 체험활동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및 연수 2. 학교 교사에게 지역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교육연수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
	제도마련	2)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조사연구	1.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2.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로 단기, 중장기 정책 마련	
	협력체계	3) 공동실무협의회	1. 행정 권역별 학교/청소년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2. 교육지원청 별로 공동실무협의회를 관계 법령에 명시	
통합 (청소년기관과 학교) 정책과제[10]				
단기 과제 (1-2년)	프로그램운영	1) 이동수단 지원	1. 지자체나 동사무소에서 셔틀버스 운영 2. 청소년기관의 순환버스 운행 3. 법적기준대로 읍·면·동에 문화의집 설치	교 육 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
		2) 입장료 할인	1. 학생 체험활동을 위한 할인 또는 무료입장 관계기관 연결망 구축 2. 입장료 할인을 제공한 지역기관에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 부여	
	프로그램 개발	3)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1. 청소년기관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과정과 연동 2.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	
중기 과제 (2-3년)	전문성확보	4) 전담인력	1. 부처 담당자의 학교-지역연계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2. 청소년기관은 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채용 3. 학교는 학교-지역연계 행정실무사 추가배치	
	실무역량 육성	5) 교육멘토 양성	1. 지역체험기관 실무자들에게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전문교육 제공 2. 교사들에게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수 제공	

단계	정책영역	정책과제	정책방안	추진체계[8]
	체험기관 인센티브	6) 체험기관 세금감면	1. 지속적인 학교연계 체험활동기관에는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금감면 지원 2. 기업체에는 지자체의 세금감면 필요	
장기 과제 (4-5년)	제도마련	7) 예산배정	1. 학교에 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교육부나 정부 차원 예산지원 2. 청소년기관에 학교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여성가족부 등 예산지원	
		8) 지원시스템	1.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한 청소년지도자와 교사 대상 연수지원 2. 지역체험활동 정보시스템을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전산망 연결지원 3.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	
		9) 법령 개·제정	1.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정책목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체험활동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총괄기구 설치 3. 지자체에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 관련 조례 등 마련 4. 지역교육청 중심의 체험활동 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 법령지원 5. 교육과정 연계 및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관련 법령지원 6. 체험활동 전문지도자로서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확대 법령지원	
		10) 안전대책 마련	1.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2. 체험장에서 필요한 안전사항을 학교와 지역연계기관이 공유 3. 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준수	
		11)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1. 청소년문화의집 법적 설치기준 홍보 및 행정적 지원 필요 2. 청소년활동시설의 전문성에 대한 홍보 강화 3. 지역여건, 청소년인구수, 학교 수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 시설건립과 운영에 대한 재정확보	

8) 추진체계는 정책이나 사업 주관부처, 연계부처, 기관 명시

9) ◇청소년지도사 조사결과,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차별된 항목은 실무자연수, 실태조사연구, 공동실무협의회 항목임.
◇교사 조사결과,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차별된 항목은 재능기부 항목임.

10) ◇통합(청소년지도사, 교사) 조사결과, 우선순위 요구사항 11개 항목은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의 현장, 교육청과 지자체와 각 부처가 공통으로 노력해야할 요구사항임.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절차 ····· 6
3. 연구내용 ····· 7
1)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의미 파악 ····· 7
2)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현황 및 사례조사 ····· 7
3)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면담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 ····· 7
4)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설문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 ····· 7
5)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8
4. 연구방법 ····· 8
1) 문헌연구 ····· 8
2) 전문가 자문 ····· 8
3) 면담조사 ····· 9
4) 설문조사 ····· 10
5) 정책세미나 개최 ····· 11

Ⅱ. 이론적 배경 ····· 13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 ····· 15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의 추진 배경 ····· 15
2)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연계·협력의 전개과정 ····· 17
3)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에 관한 선행연구 ····· 24
4)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26
5) 본 연구와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 ····· 35
2.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 37
1)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정책적 연계 실태 ····· 37
2) 창의적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 성과와 한계점 ····· 45
3) 청소년시설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연계 ····· 50
3.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 ····· 53

Ⅲ. 면담조사 결과분석 ····· 67
1. 면담조사 개요 ····· 69
1) 면담조사 및 근거이론 소개 ····· 69
2) 연구 참여자 개요 및 특성 ····· 70
3) 자료수집 방법 ····· 71
4) 자료분석 방법 ····· 72
2. 근거이론 자료분석 결과 ····· 73
1) 개방코딩(open coding) ····· 73
2) 축코딩(axial coding) ····· 77
3)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 80

Ⅳ.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 ····· 83
1. 설문조사 개요 ····· 85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 85
2) 설문지 개발과정 ····· 86
2.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 ····· 90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90
2) 설문 응답자의 기관 및 지역 특성 (청소년지도사, 교사) ····· 93
3)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 96
4) 기관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검증(학교, 청소년기관) ····· 100
5) 요구조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분석결과(중요도와 실천도) ····· 105

Ⅴ. 정책현황 및 문제점 ····· 115
1. 조사결과 요약 ····· 117
1) 응답자의 특성 분석(청소년지도사, 교사) ····· 118
2) 설문 응답자의 기관 및 지역 분포(청소년지도사, 교사) ····· 118
3)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다중응답분석) ····· 119

4) 기관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검증 (학교, 청소년기관) …… 119
5) 요구조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분석결과(중요도와 실천도) …… 121
2. 정책현황 및 문제점 …… 122
1) 질적·양적 실태조사 주요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122
2) 우선순위 요구사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123

Ⅵ. 정책방안 …… 127
1.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에서만 요구된 정책과제 …… 132
2. 통합 (청소년기관과 학교)적으로 요구된 정책과제 …… 137
1) 프로그램운영 영역 …… 137
2) 프로그램 개발 영역 …… 140
3) 전문성확보 영역 …… 143
4) 실무역량 육성 영역 …… 145
5) 체험기관 인센티브 영역 …… 146
6) 제도마련 영역 …… 148
3. 단계별 추진 로드맵 …… 159

참고문헌 …… 165

부 록 …… 171
[부록 1] 면접조사지: 담당 청소년지도사용
[부록 2] 면접조사지: 담당 교사용/ 학부모용/ 학생용
[부록 3] 면접조사지: 기타 지역체험기관용
[부록 4] 설문조사지: 담당 청소년지도사용
[부록 5] 설문조사지: 담당 교사용

표 목 차

〈표 Ⅱ-1〉 본 연구와 관련 연구의 조사내용 비교 ····· 36
〈표 Ⅱ-2〉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사업(지역사회운영모델사업) 추진체계별 역할 ····· 43
〈표 Ⅱ-3〉 운영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효과 분석 ····· 46
〈표 Ⅱ-4〉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성패요인 분석 ····· 47
〈표 Ⅱ-5〉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개요 ····· 54
〈표 Ⅱ-6〉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구성 영역 ····· 56
〈표 Ⅱ-7〉 중앙행정의 자유학기제 인프라 제공 내용 ····· 57
〈표 Ⅱ-8〉 자유학기제 협업기관의 인프라 제공 내용 ····· 58
〈표 Ⅱ-9〉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체험인프라 활용 유형 ····· 59
〈표 Ⅱ-10〉 자유학기제 직업 체험활동 사례 ····· 60
〈표 Ⅱ-11〉 자유학기제 동아리 연계 체험활동 사례 ····· 61
〈표 Ⅱ-12〉 자유학기제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활용 사례 ····· 62
〈표 Ⅱ-13〉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3) ····· 64
〈표 Ⅲ-1〉 연구 참여자 소개 ····· 70
〈표 Ⅲ-2〉 면담 소개 ····· 71
〈표 Ⅲ-3〉 개방 코딩 결과 ····· 74
〈표 Ⅳ-1〉 설문지 개발과정 및 예비조사 개요 ····· 88
〈표 Ⅳ-2〉 설문지 영역별 문항(청소년지도사/교사) ····· 88
〈표 Ⅳ-3〉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90
〈표 Ⅳ-4〉 응답자의 청소년기관 및 지역 특성(청소년지도사) ····· 94
〈표 Ⅳ-5〉 응답자의 학교 및 지역 특성(교사) ····· 95
〈표 Ⅳ-6〉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 97
〈표 Ⅳ-7〉 교사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 98

〈표 Ⅳ-8〉 교사의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 영역(다중응답분석) ····· 99
〈표 Ⅳ-9〉 학교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교사) ····· 100
〈표 Ⅳ-10〉 지역규모에 따른 자유학기제 중점추진 영역 응답 차이(교사) ····· 101
〈표 Ⅳ-11〉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응답 차이(교사) ····· 102
〈표 Ⅳ-12〉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지역규모 차이 ····· 102
〈표 Ⅳ-13〉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학교연계 중요성 인식 차이 ····· 103
〈표 Ⅳ-14〉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별 응답차이 ····· 104
〈표 Ⅳ-15〉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응답차이 ····· 104
〈표 Ⅳ-16〉 청소년기관의 유형(청소년수련관 등)에 따른 학교연계 경험 응답 차이(교사) ····· 105
〈표 Ⅳ-17〉 청소년지도사의 t 검정과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 107
〈표 Ⅳ-18〉 교사의 t 검정과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 110
〈표 Ⅳ-19〉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의 t 검정과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 113
〈표 Ⅴ-1〉 우선순위 요구사항(Borich의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결과) ····· 126
〈표 Ⅵ-1〉 영역별 정책과제: 우선순위 요구사항(청소년기관/ 학교/ 통합) ····· 130
〈표 Ⅵ-2〉 정책과제 14개: 우선순위로 도출된 요구사항(청소년기관/ 통합) ····· 131
〈표 Ⅵ-3〉 초·중·고 학생수/ 학교수/ 교육지원청수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시설 비율 ···· 136
〈표 Ⅵ-4〉 시·도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 현황(2013년 기준) ····· 156
〈표 Ⅵ-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157
〈표 Ⅵ-6〉 행정구역별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설치 비율 ····· 158
〈표 Ⅵ-7〉 단계별 추진 로드맵(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162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의 절차 ····· 6
【그림 Ⅱ-1】 일본 케센누마시의 계통적 초·중·고 환경교육 체계 ····· 40
【그림 Ⅱ-2】 창의적 체험활동의 가설적 운영모형 ····· 41
【그림 Ⅱ-3】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모형 ····· 42
【그림 Ⅱ-4】 창의적체험활동 연계사업(지역사회운영모델사업) 추진체계 ····· 43
【그림 Ⅱ-5】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운영관리 절차 ····· 44
【그림 Ⅱ-6】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매트릭스 ····· 52
【그림 Ⅲ-1】 축 코딩 결과 ····· 77
【그림 Ⅲ-2】 학생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 활동 ····· 81
【그림 Ⅳ-1】 설문 조사 개요 ····· 86
【그림 Ⅳ-2】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 97
【그림 Ⅳ-3】 교사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 98
【그림 Ⅳ-4】 교사의 자유학기제 중점 추진영역(다중응답분석) ····· 99
【그림 Ⅳ-5】 최우선 순위와 차순위 요구(청소년지도사) ····· 108
【그림 Ⅳ-6】 최우선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교사) ····· 111
【그림 Ⅳ-7】 우선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청소년지도사와 교사 통합) ····· 114

제 Ⅰ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절차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Ⅰ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3년 5월부터 시범 시행된 자유학기제[1]가 1년이 넘으면서 이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그동안 청소년기관[2] 입장에서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나, 학교입장에서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연계협력에 대한 논의와 사업은 1990년대부터 봉사활동, 특별활동, 주5일제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자유학기제로 매 시점과 이슈를 달리해서 시행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련 연구로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연계협력을 위한 다양한 운영모형과 방안(임지연,김정주, 2007; 안선영,최창욱, 2011; 김현철,황여정,민경석,윤혜순, 2012; 김현철, 윤혜순, 2013; 성은모,정효정, 2013; 김기헌, 2013; 임지연,김영석, 2013)이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청소년기관 연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연계·협력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실태와 요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거시적인 논리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현장 종사자들이 공감하는 발전방안이 요구된다.

그동안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지역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 등에 대한 국내외 진로탐색 프로그램 사례조사, 학교-청소년기관 네트워크 사례, 청소년 주도형 지역참여

1) 자유학기제는 2013년 5월부터 시범운영되기 시작하여 2016년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의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교육부, 2013).

2)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관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시설 및 단체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활동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청소년수련관)나 읍·면·동(문화의집)에 설립하여 직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민간의 설치와 운영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사례, 외국의 진로직업체험 교육사례(홍후조,임유나,장소영, 2014;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외, 2013; 최상덕,신철균,박균열, 2013; 김현철 외, 2012) 등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에프터스쿨, 스웨덴 직업체험학습 등의 외국 사례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현재 우리나라에 맞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과 지역체험활동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외국사례와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기관의 설리복적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체험활동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청소년활동과 건전한 이용을 제공하는 데 있다(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2010; 김형주,임지연 외, 2011). 청소년기관 입장에서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은 청소년들 대부분이 학생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학교입장에서도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연계 체험활동의 교육적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정영근,김지숙,이근호, 2014; 장현진,김진숙,이근호, 2014; 황은희, 2014; 최상덕, 2014; 신철균,황은희,김은영,송경오,박민정, 2014) . 따라서 상호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한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실질적인 연계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기관 입장에서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을 활용한 학교연계 체험활동, 현장 중심의 자발적인 학교연계 체험활동, 공공기관 사업을 활용한 학교연계 체험활동,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체험활동을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사례에서 성공요인을 찾고 실태를 조사해서 현장에 근거한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지역연계 청소년활동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사, 현장체험기관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자유학기제의 구조 및 활동의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방안의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를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지역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내용 임으로 실무적 요구가 많은 내용들이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역연계, 체험활동은 실천적인 측면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는 면담조사를 통하여 현장의 실태와 맥락적 상황들을 깊이 이해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정책 지원방안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체험활동

시 지역체험기관(청소년활동시설 등)에 접근할 때 실태와 요구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활동시설의 현장에서 학교연계 체험활동을 할 때,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청소년활동의 실태와 요구는 어떠한가? 셋째,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의 연계·활성화 방안으로 준비하여야 할 중요도와 수행도가 높은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2. 연구절차

<table>
<tr><th colspan="2">1단계 : 문헌연구 및 정책세미나</th></tr>
<tr><th>문헌연구</th><th>정책세미나</th></tr>
<tr><td>■ 청소년활동과 학교연계의 의미
■ 청소년활동과 학교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의미
■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의 의미</td><td>■ 청소년지도사, 교사, 정책연구기관, 담당공무원, 학계가 참여하여 학교와 청소년기관 간의 정책적 쟁점과 현장 사례발표, 토론 및 논의</td></tr>
</table>

⬇

<table>
<tr><th colspan="2">2단계 : 면담조사 / 설문조사</th></tr>
<tr><td colspan="2">면담조사 (근거이론 적용)</td></tr>
<tr><td>면담조사
(학생,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사/ 지역현장 체험담당자)</td><td>■ 기 간 : 2014년 4월~5월
■ 대 상 : 학교 / 청소년활동시설 / 기타 지역체험기관 총42명
■ 분석방법 : 근거이론 적용
■ 조사도구 : 학생, 교사, 학부모/ 청소년지도사/ 현장체험기관 관련자(약1시간 소요)
(5가지 종류의 면담조사지 개발)</td></tr>
<tr><td colspan="2">설문조사 (정책과제 도출-우선순위기법 적용)</td></tr>
<tr><td>청소년기관용
(청소년지도사)</td><td>■ 기 간 : 2014년 6월25일(수) ~ 7월20일(월)
■ 대 상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중심 100개 기관 271명)
■ 조사방법 : 면접조사원 방문조사</td></tr>
<tr><td>학교용
(교사)</td><td>■ 기 간 : 2014년 6월25일(수) ~ 7월20일(월)
■ 대 상 : 교사(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 204명)
■ 조사도구 : Web 조사</td></tr>
</table>

⬇

<table>
<tr><th colspan="2">3단계 : 정책방안</th></tr>
<tr><th>정책과제</th><th>정책방안</th></tr>
<tr><td>■ 질적·양적 실태 조사에 대한 주요 결과와 우선순위 요구결정을 위한 분석결과(중요도와 실천도)를 중심으로 제시함.
■ 정책과제는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 271명)과 학교(교사 204명)를 통합하여 Borich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지원이 필요한 1순위-11순위까지의 요구사항이 도출됨.</td><td>■ 11개 정책과제는 이동수단,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전담인력,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프로그램 개발, 교육멘토 양성,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 활동시설 설립확대의 순임.
■ 청소년기관 만의 우선지원이 필요한 요구사항은 실무자연수, 실태조사연구, 공동실무협의회로 나타났음.
■ 14개의 정책과제에 따른 정책방안은 문제현상, 문제원인, 대안마련으로 제시하였으며, 단기에서 중장기 단계별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td></tr>
</table>

【그림 Ⅰ-1】 연구의 절차

3. 연구내용

1)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의미 파악

○ 청소년활동과 학교연계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2)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현황 및 사례조사

○ 청소년활동시설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체험활동에 대한 워크숍 및 세미나개최를 통하여 정책적 쟁점과 현장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학교와 청소년기관 간의 이해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운영사례,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발표, 각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지역-학교연계 사례들의 유형, 논의 사항, 현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방안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3)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면담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

○ 면담조사를 통하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시설의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의 실행과정, 실태, 문제점, 인식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의 연계 방안 및 협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제는 무엇인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변화 내용 및 협업 활동상의 쟁점은 무엇인가, 자유학기제 참여 주체가 인식하는 자유학기제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4)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설문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

○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유학기제의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 운영실태, 어려움과 요구사항,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를 조사하여 우선순위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기존과는 차별적인 청소년활동의 변화와 준비할 내용은 무엇인지를 진단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5)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IPA)과 가중치를 통해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설문조사결과 도출된 1-11순위 정책과제(이동수단, 예산배정, 지원 시스템, 법령 개·제정, 전담인력,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마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멘토 양성,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에 대하여 정책협의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기존과는 차별적인 청소년활동의 변화와 준비 전략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자유학기제는 2013년 2학기부터 시범 시행되어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청소년활동과 학교연계,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현황,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의미와 관련 변인을 파악하여 질적 양적 조사문항 개발의 기초자료 및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반영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방향 설정, 면담조사지 개발, 설문조사지 개발, 자료분석 관련 자문, 구체적 정책방안 제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3) 면담조사

○ 심층면담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지역체험기관 담장자, 학생,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유학기제의 실태를 심도 깊게 이해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실행되고 있는 현장의 실시 과정과 맥락적 상황들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유학기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 조사내용 :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실태, 인식, 문제점, 요구사항 등

○ 조사대상 : 첫째, 전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학부모/학생, 둘째, 자유학기제 또는 학교연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셋째, 지역체험기관 담당자(공공기관, 대기업, 개인사업장, 민간단체) 총42명

○ 자료수집방법 : 자료 수집은 면대면 인터뷰 및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전화 인터뷰, 이메일 인터뷰, 현장 관찰 등으로 보완하며 실시하였다.

주요 요소	내 용
인터뷰 참여자 섭외과정	관련 사례조사 및 전문가를 통한 네트워크 활용 (경험, 유형, 소재지, 지역특성 순으로 고려)
인터뷰 참여자 수	인터뷰 참여자 수 : 총 42명 (개별면담) 학교, 청소년시설, 지역체험기관 별로 1인 내외(21명) (FGI면담) 학생과 학부모(21명)
인터뷰 참여자 특성 개요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활동 경험자 (교사/학부모/학생, 청소년지도사, 지역체험기관 현장멘토)
인터뷰 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개별 및 FGI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인터뷰 시간 및 횟수	인터뷰 당 1시간 30분, 인터뷰당 1-2회
인터뷰 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음 후 전사, 기록
면담자	연구자

○ 분석방법 : 면담조사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근거이론의 주된 목적은 어떤 현상과 사건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와 현상간의 상호작용 및 주변 환경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실질적 이론(substantive theory)을 개발하는 것이다. 근거이론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주요 속성뿐만 아니라 현상을 둘러싼

핵심적 사회 맥락, 참여자의 심리적 과정 및 변화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다. 자료분석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련자로서 교사/학부모/학생, 청소년지도사, 지역체험기관 현장멘토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연구의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4) 설문조사

○ 설문조사 목적: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정책제언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 조사내용 :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

○ 조사대상 : 전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80개중 74개)의 교사 204명, 청소년활동시설(100개 기관)의 청소년지도사 271명

○ 설문지 개발과정 : 설문지는 2종류(청소년지도사용, 교사용)로 개발하였으며, 개발과정은 문헌연구와 면접조사 결과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1차 초안을 개발하였다. 2차 설문개발 워크숍개최(청소년지도사용, 교사용)를 통한 전문가검토와 3차 현장 예비조사(약 5분~10분 소요, 10명)를 각각 실시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 조사방법 : (교사용) Web 설문조사
(청소년지도사용) 집단별 면접조사원의 방문에 의한 응답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전국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80개) 교사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중심)	
표집	여성가족부, 교육부 자료	
표본수	전국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80개중 74개)의 교사 204명 청소년활동시설(100개 기관) 청소년지도사 271명	
표집방법	(전수조사)자유학기제 연구학교 80개 당 교사 4명 내외 (목적적 표집) 청소년수련시설 당 청소년지도사 4명 내외	
조사시기	2014년 6월~7월	
조사방법	(교사용) Web 설문조사 (청소년지도사용) 집단별 면접조사원의 방문에 의한 응답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분석방법 : T검정을 통해 차이 유의성을 살펴보고, Borich 가중치를 계산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한 후,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의 분석(IPA)을 통해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였다. IPA를 통하여 2차원 도표 4분면 위에 X축(중요도), Y축(현재 실천도) 위에 좌표값을 표시함으로써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을 받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5) 정책세미나 개최

○ 정책세미나 개최 : 본 연구과제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초기에 연구방향과 사례발표 중심 워크숍개최(4.23), 후반기에 연구결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 개최(8.29), 유관 연구기관 공동세미나 개최(9.25), 질적연구방법론: 근거이론 콜로키움(8.29)을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련자들과 소통을 통하여 연구방향 및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과정 중에 4번의 연구 자료집을 발간 및 인터넷에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료요청과 문의에 신속하게 소통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활동의 의미와 사례발표'워크숍개최(4.23)는 학교입장에서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체험활동 쟁점, 청소년기관 입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성과와 한계점, 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운영사례 2개,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 6개를 발표하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의 결과는 면담조사와 설문지 개발에 반영하였다.

(2)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정책 세미나개최(8.29)는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면담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설문조사 결과분석과 시사점,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이 협력방안, 토론발표(청소년수련관, 학교, 여성가족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참여하였다. 세미나의 결과는 조사결과 및 시사점에 반영하였다.

(3) 질적연구방법론: 근거이론 콜로키움 개최(8.29)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적연구방법의 이론 및 활용방법을 연구자 및 관계자들에게 소개함으로서, 연구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4)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개최(9.25)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 기관과 학교 현장의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 현장 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각 유관기관의 의견과 토론자, 참여자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번호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비고
1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활동의 의미와 사례발표 (정책워크숍 자료집 14-S14)	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약 15명	2014.4.23.	PDF공개
2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자료집 14-S31)	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약 20명	2014.8.29.	PDF공개
3	질적연구방법론: 근거이론 콜로키움 (콜로키움 자료집 14-S36)	학계, 현장전문가, 연구자 약 20명	2014.8.29.	PDF공개
4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자료집 14-S41) 유관 연구기관 공동주최(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계, 공무원, 현장 학교 및 청소년기관 종사자 약 300명	2014.9.25.	PDF공개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
2.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3.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3)]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의 추진 배경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과의 연계·협력은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이 수립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시도 되어온 과제이다. 1991년 12월 31일에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993년부터 시행된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의 시행을 계기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1991.12.31.제정)에서는 청소년육성을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상호 보완"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청소년활동을 임의활동영역, 고유활동영역, 수련활동영역으로 구분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의 고유활동영역에 속하는 학교교육과는 구별되는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이 국가청소년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청소년정책에서는 1993년에 시행된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시발점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청소년정책계획을 추진하면서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특히 학교교육정책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1995년 발표한 5.31 신교육개혁안을 계기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의 강화가 교육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정착되면서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5.31 신교육개혁안에서는 학교급별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교육방법을 개선하며, 아울러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의 확립을 제창하였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학생의 흥미, 취미 및 학교 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방과후 교육활동을 제안하였다(이광호,이태재,윤철경, 1999). 이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의

3) 본 내용은 김정주(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교육학박사)가 집필하였음.

봉사활동 강화, 야영·수련활동 권장,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 강화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되었다.

그 후,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강화, 2007 개정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적체험활동의 적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도입,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강화 및 방과후 학교 시행, 진로교육강화 및 자유학기제 시행 등 일련의 교육정책의 변화과정에서 학교교육에서 지역사회는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주5일수업제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교육력과 학력관이 대두되어 현장 체험중심의 학습을 강조하게 되었다. 교육과 학력에 관한 새로운 관점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현장 체험중심의 학습에 성패가 달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방과후 학교로 확대되면서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접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학생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특별활동이나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정책분야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 및 지도자를 연계함으로써 학교가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에 관한 정책연구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천정웅·김정주(1999)의 연구는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포괄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이광호·이태재·윤철경(1999)의 연구는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의 연계를, 김정배·추성수·남미애·우정자(2001)의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연계를, 이민희·주동범·김홍주·임지연(2005)의 연구는 학교교육활동과 청소년활동의 포괄적인 연계를, 최창욱·송병국·김혁진(2009)의 연구는 교육정책의 전반과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의 연계를, 김현철·최창욱·민경석(2010)의 연구는 창의적체험활동과의 연계를, 김기헌·맹영임(2011)의 연구는 진로체험과의 연계, 성은모(2013)의 연구는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연계를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해당 연구가 수행된 시점에서의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주요 정책적 이슈를 반영하여 연계·협력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2)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연계·협력의 전개과정

(1)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시기 : 봉사활동

1991.12월 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정의 없이, 제11조(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제 ①항에서 청소년활동은 고유활동영역, 수련활동영역, 임의활동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유활동영역은 주로 학교·직장·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근로·복무활동영역을 고유활동영역으로 규정하여, 주로 청소년이 소속한 곳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수련활동영역은 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수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사회봉사 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영역을 수련활동영역으로 규정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는 구분되어 실시되는 체험활동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임의활동영역은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영역을 임의활동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제11조 제②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고유활동영역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 청소년활동분야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반영되었다.

이 시기에 학교교육정책은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이 적용되던 시기로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1995년에 발표된 '5.31 신교육개혁안'이었다. 5.31 신교육개혁안에서는 '학생 종합생활기록부'에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 수준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특별활동·단체활동·봉사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항을 기록하고 대학입시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이 교내외 봉사활동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이를 학생 종합생활기록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이민희,주동범,김홍주,

임지연, 2005).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분야에서는 학생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중앙에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시·도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중앙 및 지방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터전 발굴, 자원봉사지도자 양성 및 자원봉사교육 실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연계 지원, 자원봉사활동 기록관리 등을 운영하여 학생 청소년의 교외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2)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시기 :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교육활동

1998년부터 시행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은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었다.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강조하면서 정책의 내용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 인프라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신장,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확대, 청소년 참여의 제도화 등이 반영되어 청소년정책의 내용상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과 청소년참여의 제도화는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즉 기존의 지도자와 체계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적인 청소년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들의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를 강조하는 청소년참여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 교육정책에서는 특별활동과 특기적성교육이 강조되었다. 특히 특별활동은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크게 변화되었다. 2000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제7차교육과정에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변화는 재량활동의 신설과 특별활동을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구분한 것이다. 재량활동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에서 담지 못하는 학생 및 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편성하는 교육활동으로 범교과활동이나 자기주도 학습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창의적 재량활동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창의성을 계발하고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의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고 동아리중심의 학생문화 창달,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및 학교 시설과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등의 목적이 담겨있었다(이광호 외, 1999). 이 시기에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연계는 봉사활동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학교의 특별활동과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C.A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내 동아리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생동아리축제나 학교축제가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청소년시설 등과 연계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3)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시기 : 주5일제수업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시기에는 국가 청소년정책계획의 명칭이 변경되고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과 청소년정책 담당 행정조직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2004. 2. 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을 전부 개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수련활동에 관련된 내용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복지에 관한 내용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반영하고,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는 법령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청소년기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일어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큰 변화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졌다는 점이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2호에서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제3조 2호에서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기존 청소년기본법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데, 청소년육성을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로 재규정하였다는 점과, 청소년육성이 "교육과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서 "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가 정책적으로 처음으로 규정된 것도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2004.2.9. 제정)에는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교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청소년활동 진흥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활동에 관한 국가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시기에는 국가의 청소년정책업무가 국무총리산하 청소년위원회로 편제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관심이 집중된 반면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측면도 있다(김광웅 외, 2009). 이 시기에 교육정책에서는 제7차교육과정이 2000년부터 단계별로 적용되었다. 교육정책에서도 외환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2003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도입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교육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는 방과후 학교 사업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였다.

2005년부터는 청소년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매월 1회씩 학교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어 향후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를 대비하게 되었다. 주5일수업제는 학생들이 쉬게 되는 토요일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교육관과 학습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도입하여 지역사회에서 현장 체험중심의 학습이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 분야에서도 다양한 주5일제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시설 단위별로는 다양한 주말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응하고자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들이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체험학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기 : 창의적체험활동과 진로교육, 교육기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기에는 2008년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 업무가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이라는 이슈가 부각되며 혼란을 겪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2010년에는 청소년정책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교육정책에서는 교육과정을 수시개정 형태로 전환하면서, 2007년 개정과 2009년 개정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크게 바꾸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학교의 완전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체험활동을 신설하면서 청소년활동과의 관련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창의적체험활동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편성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창의적체험활동’을 신설하였다.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당 3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주당 4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였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창의·인성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자원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기부 정책이 도입되었다. 교육기부정책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학교 밖의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인 자원을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생교육활동에 비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2010. 12월에 교육기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로부터 개인 재능,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제공, 활동지원, 시설 및 기자재 제공 등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과 맞물려서 청소년정책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려는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교육과학부와 성공적인 창의적체험활동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0.5.14.)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연계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체험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사회에 프로그램 전문기관, 청소년 현장, 학교가 참여하는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모델을 2012년에는 44개 수련시설과 100개 학교로 확대하였고, 2013년에는 42개 수련시설과 191개 초·중·고교로 확대되었다(김주희, 2014).

한편, 이시기에 교육정책에서 진로교육이 크게 부각되었다. 2011년 4월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9**[추가: 년]** 개정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진로교육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을 강화하고, 2011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진로교육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 계획에 따르면 20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5,383명)를 배치하고, 학생 발달단계 및 학교급별·계열별 진로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시도교육청별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진로교육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분야와 연계되어 나타난 사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2014)에서 실시하는 자치구 단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학생들의 현장중심의 진로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단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2012년에는 서울 강동구와 노원구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2013년도에는 13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까지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자치구별로 지역사회 직업체험장 자원을 발굴하고 일터 멘토를 관리하여 학교와 직업체험장 간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는 허브(hub)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현재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를 비롯하여 단위학교의 현장직업체험 등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2014).

청소년활동분야와 진로직업교육과의 연계는 이러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을 상당수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은청소년문화의집이나 역삼청소년수련관 등에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직업체험장과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 직업체험활동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학교의 인식변화, 청소년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의 발굴,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소년활동의 영역과 방식의 다양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2014; 박찬열, 2014).

(5)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기 : 자유학기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청소년의 역량, 참여, 균형, 안전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제4차 기본계획의 연계선상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기초하여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필수역량 함양"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과제 보완 및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영역 부각, 청소년(청년)의 경제활동여건 강화를 위해 청소년(청년)의 진로와 자립과제 등을 보완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2). 청소년활동분야에서는 2013년 7월에 발생한 해병대캠프에서 활동 중 사망 사고 발생에 따른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하여 이동·숙박형 수련활동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도입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 발생한 고등학생 제주도 수학여행단을 태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여파로 2014년 6월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등 생활권 청소년시설에서의 청소년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에서는 2013년에 들어선 새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핵심 비전 및 교육목표를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설정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자유학기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의 개념은 "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정의된다(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는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분되는데, 공통과정은 학교의 교과에 대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참여와 활동 유도, 평가방법에서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교별로 학생의 성취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마련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방법을 혁신하는 것이다. 반면에 자율과정은 진로탐색활동, 주기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학생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등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성된다(황은희. 2014).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형성과 학부모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자유학기제 운영의 정책방향으로 반영되어 있다(최상덕 외, 2014).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교별로 '자유학기제 후원단'을 구성하여 지역시설과 재능기부자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학부모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유학기제에 따른 지역자원개발 및 지역체험활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3; 최상덕 외, 2014).

자유학기제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13년도 연구학교 42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2014년에는 32개의 연구학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80개의 연구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학교를 7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청소년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성은모, 2013). 특히 자유학기제에서 자율과정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소질을 개발하는 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자유학기제를 통해 운영되는 체험활동은 창의적체험

활동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체험적인 방법으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 된다.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정책협의회나 교육 관련기관과 청소년분야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유학기제가 시범운영 단계이어서 청소년활동분야의 자유학기제 연계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되고 있지 않다. 다만,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는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등 기관 단위에서 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와 청소년활동분야의 연계의 상황은 2013년도의 42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중에서 15개 학교에서 청소년활동 관련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황은희, 2014).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향후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 청소년활동 관련기관과의 연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에 관한 선행연구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활동의 연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해당 연구가 수행된 시점에서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주요 정책적 이슈를 반영하여 연계·협력방안을 탐색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몇 가지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연계·협력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정웅·김정주(1999)의 연구는 당시 청소년육성분야의 법·제도, 물적·인적자원,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점과 교육과 청소년육성 분야의 연계 필요성은 있으나 실제 연계는 부족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청소년육성 연계·협력의 올바른 의미를 인식, 중앙부처·지역·일선 현장수준에서 교육과 육성분야의 상설업무협의회 제도화, 교육과 육성분야의 상호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일선 현장의 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열의와 노력, 교육과 육성분야의 연계·협력을 고려한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육과 육성 분야의 연구영역에서의 연계협력, 청소년정보망의 확대·구축, 청소년복지·보호분야의 교육-육성 연계협력 방안 모색,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참여확대와 인적자원으로 활용,

청소년육성분야에서 청소년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 등의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이광호·이태재·윤철경(1999)의 연구는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열린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관계 형성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가능한 활동의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연계·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학교 특별활동과 지역사회 수련활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교육청 단위 '체험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과정상 특별활동에 포함된 클럽활동과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통합운영, '체험학습지원센터'와 지역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네트워크로 상설협의체 구성,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도구 및 교구 개발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와 각급학교와 자매결연을 등 협력학교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연계, 특별활동의 일부 및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 위탁운영, 청소년수련활동안전공제회 설치, 정부차원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협력 시범지역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김정배·추성수·남미애·우정자(2001)의 연구는 2006년부터 청소년정책에서 설치하여 운영해 온 중앙 및 16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당시 청소년 자원봉사의 문제점 해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청, 관련 자원봉사센터의 연계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연계협력과 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구축으로 영역을 나누어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민희·주동범·김홍주·임지연(2005)의 연구는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에서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한 연계·협력 방안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연계·협력을 위한 상설 실무협의체 구성, 학교교육과 청소년정책 관계 실무자들의 수평적 의사소통,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시너지 효과 증진,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연계·협력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연계·협력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연계·협력을 위한 예산 항목의 신설, 학부모 대상 연계·협력의 중요성에서 대한 계몽과 홍보 등을 제안하였다.

최창욱·송병국·김혁진(2009)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와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종합 정책과제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교육정책과 연계하는 현장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가 학교교육정책과 연계하기 위해서 상호관계 설정 및 네트워크 원칙을 설정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종합 정책과제는 학교내 교육과정 운영, 학교내 방과후 교육, 학교밖 체험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학교 진로교육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의 진로개발 체험활동 등과 연계-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였고, 이의 이행전략으로 사업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안 추진과제로 지역사회 단위 연계·협력 지원 통합운영체계 구축,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시스템과 NEIS 연동, 다양한 청소년활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운영,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자원맵 공동개발, 교육과 연계·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재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통합 운영,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의 체계화 등을 제시하였다.

김현철·최창욱·민경석(2010)의 연구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으로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과제는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학교조직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창의적체험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지역 및 계층간 격차문제 해결, 청소년 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및 활동 프로그램 개선,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의 체계화, 지역단위 청소년활동 거점센터 지정 및 코디네이터 배치, YRM제작과 창의체험자원지도(CRM)의 공동개발, 청소년활동기록관리시스템과 EDUPOT 연계, 체험활동의 계통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의 시범사업을 편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모형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정교화 하는 후속 연구를 추진하였다.

김기헌·맹영임(2011)의 연구는 청소년활동 시설을 이용하는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다루었으며, 주요 정책제언으로는 ① 진로체험 활성화에 대한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의 공감대 형성, ② 청소년시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③ 청소년시설이 중심이 되는 진로직업체험추진협의회 구성, ④ 청소년발달 특성을 고려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직접체험과 장기체험의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성은모(2013)의 연구에서는 자육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개념구조와 연계모형을 제시하고 각 조직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활성화 전략으로 체험활동의 가치 공유 및 확산, 최적의 체험기관 발굴 및 효율적 매칭, 체험활동의 질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연계·협력의 변화과정과 몇 가지 선행연구를 통해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 또는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연계·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것을 파악하였다. 그 방안들에는 공통적으로 연계·협력에 대한 학교와 청소년시설 및 단체 모두의 인식의 변화,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운영,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청소년활동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의 확충과 개선,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정책과 재원의 확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에 대한 논의와 사업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행연구와 현장의 학교연계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에 대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실행은 부족하다.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하여 그동안 지역사회와는 단절되어왔던 학교교육에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학교에 집중된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이다. 특히 교과중심의 학교교육 체계에서 학교가 전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천 지향적인 인성교육과 자기개발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을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실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자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자원을 학교교육에 활용하자는 관점과 체험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학교에서 모두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역할분담을 하자는 두 가지 관점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4].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 교사까지 이러한 생각이 공유되고 실천될 수 있을 때에 실현 가능하다. 즉, 대부분의 학교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은 일선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학교교육의 일부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 및 교사들의 인식전환과 실행이 있을 때 가능하다.

실제로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활발한 사례들의 경우는 대부분 학교장 및 교사의 연계·협력의 필요성 인식과 실천 의지가 중요한 성공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의 성패와 광범위한 확산은 학교와 교사들의 인식전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인식전환은 결국은 학교와 교사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에서 시작된다.

4) 이에 관해서는 이광호·이태재·윤철경(1999)의 연구에서 학교본위론과 학교한계론, 학교강화론 등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이광호·이태재·윤철경, 1999: 122-123).

둘째,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의 활성화가 여전히 미흡하다. 청소년활동분야에서 여러 차례 학교교육과의 연계방안을 탐색하였고 현장에서 학교연계가 시도되고 있지만 일선 청소년기관 및 학교 단위의 현장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연계가 정책적으로 운영된 사례인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중앙 및 16개 시·도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쳤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서울시 지역에 국한되고 있다. 창의적체험활동도 2013년에 42개 수련시설과 191개 학교에서 운영된 이후에 정책지원이 중단되었다. 이처럼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있는 몇몇 사업에서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되지 못함으로써 광범위하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일상적인 연계·협력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2년도 청소년수련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이 전국 평균 10.98개의 학교와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체결하였고, 연계·협력 사업수도 평균 49.25개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2a).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수련관과 학교의 연계·협력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연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정책사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진로교육이나 직업체험, 동아리활동,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 또는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연계·협력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현장의 인식이 높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도 공통적으로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짓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이 부진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재정지원, 실행에 필요한 인력확보, 시설 및 장비 확보, 프로그램의 확보와 개선, 업무부담 경감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연계·협력이 여전히 현장에서 확대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연계·협력 모형이 제시되었다. 이민희·주동범·김홍주·임지연(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모형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함께 연계되는 'family-school-community' 모형, 지역사회에 속하는 청소년 관련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이 학교로 들어가는 'community-to-school' 모형, 공간은 지역사회이지만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함께하는 'school and community' 모형 등이다. 김현철·최창욱·민경석(2010)의 연구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지역 청소년활동거점센터 및 코디네이터'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지역단위로 청소년활동 시설을 청소년활동거점센터로 지정하고,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자는 의미이다. 성은모(2013)의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위한 연계모형을 제시한바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계·협력 모형이 개발되었으며,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가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반영되어 실행된 것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창의적체험활동 등이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중앙의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각 시·도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협력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마다 1개씩 설치하여 학교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창의적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모형은 여성가족부의 예산편성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선 현장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은 정책적인 의지와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활동 분야보다는 교육정책과 일선 학교에서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할 때 연계·협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학교교육과 지역사회 연계의 허브로서의 청소년활동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제안하는 연구모형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과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중심 거점조직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거점센터 및 코디네이터 배치 등으로 구상되어 창의적체험활동 연계사업에서 실행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와 교사가 학교교육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야 하는 업무부담을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거점센터에서 코디네이터가 대신 수행함으로써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시설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조직화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청소년활동시설을 비롯한 청소년기관이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능인가라는 의문과 더불어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비판점은 존재한다.

다섯째,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위상 정립에 대한 고민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동등한 관계에서 목표의식의 공유와 상호이익을 전제로 성립된다.

그동안에 교육정책에서도 청소년정책에서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연계·협력을 시도해왔다. 그동안의 청소년활동에서 학교교육 연계를 위하여 노력했던 경험은 청소년활동이 학교교육과 어떠한 위치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생각을 갖게 하였다. 즉,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과의 연계·협력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관계인지 아니면 학교교육을 보조하는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5].

학교에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학교교육을 위한 부족한 자원을 외부 지원으로 해결하려는 관점으로 좁게 생각한다면, 청소년활동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중의 하나로서 학교교육을 보조하는 수준으로 위상을 갖게 된다. 반면에 동등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지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분야는 학교에서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느낄 만큼 매력적인 물적·인적 자원과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여섯째,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동안 청소년시설과 단체에서 운영되어온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학교교육에 바로 활용된다는 점은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게 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활동은 학교교육과 차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활동이 학교교육과 차별화되는 것인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정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정책적으로 규정한 용어인데, 이 용어의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1991년 12월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에서 학교교육활동은 고유활동으로, 학교 밖에서의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은 수련활동으로 구별하고, 청소년육성은 "교육과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규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정책이 교육정책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차별성을 유지하였다.

5) 이에 관해서는 최창욱·송병국·김혁진(2009)의 연구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최창욱,송병국,김혁진, 2009).

그러나 2004년 2월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육성을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로 구분하고,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육성이 "교육과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서 "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육성과 교육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청소년육성이 교육을 보완하는 관계로 다시 정의되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청소년활동의 용어는 현실의 청소년활동의 실체를 특정하여 파악하기에 모호하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로 규정하였다. 이는 청소년활동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청소년활동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은 모두 청소년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어느 곳에서 실행하는 것이라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은 모두 청소년활동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실제에서는 청소년정책에서 사용하는 수련활동이라는 용어를 학교교육에서도 학생 수련활동이라는 용어로 오래전부터 사용하였다. 청소년정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체험활동이라는 용어도 학교교육에서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분야에서 동일한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정책에서 규정하는 청소년활동 개념의 모호성, 교육정책에서 동일한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혼란,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책적 개념 이외의 학문적 논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제한되는 특수한 개념이 아닌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김현철,임희진, 정효진,민경석, 2013).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학교 밖에서 실행해왔던 청소년활동의 목표나 내용, 방법들이 학교교육에서 강조해왔던 체험중심 교육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정책에서 규정한 개념을 바탕으로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도자, 프로그램이 확충하면서 학교교육과는 구별되는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여기에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청소년시설과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청소년활동이라고 부르는 것에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에

대한 심도 깊은 학문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로, 모호한 정책적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활동분야가 당면한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교육과의 연계가 강조되면서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더 부각된다. 학교교육과 구별되는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채 학교연계가 활성화되면, 청소년활동이 교육정책과 독립된 청소년정책영역으로서 존립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미,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주요한 용어가 학교교육에서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청소년시설은 학교 밖의 또 다른 학교교육 시설이 되고, 청소년활동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으로 정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활동을 광의로 해석하여 학교교육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이 학교교육과 구분되는 독립된 영역을 유지해야 한다면, 청소년활동의 철학과 이념, 개념, 내용체계, 실행방법론 등 전반에 걸쳐서 학문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정책적으로도 재규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에서 청소년활동의 주체로서 청소년시설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은 정책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범주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현실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체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주체로서 청소년시설의 위상이 미흡하다는 의미이다.

학교교육에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은 교육기부 관련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기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자원을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기부는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개인, 사회단체,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생동아리 등이 기부할 수 있으며, 교육기부의 유형은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제공, 개인 재능, 활동지원, 시설 및 기자재 기부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교육기부는 진로·직업교육, 창의적체험활동, 교과학습지원, 교사연수 등에 활용된다(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센터, 2014). 이는 학교에서는 교과학습지원에서 교원연수까지 전반적인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교육기부의 활용은 교육청을 포함하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범위는 청소년시설에서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분야에서 시행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시설과 단체를 포함하는 청소년기관이 학교로 들어가거나 학생들이 청소년시설로 나오는 방안,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중심 거점센터로서 역할 하는 방안, 지역사회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방안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 연계를 위해서 학교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들을 제안하였다. 공통적으로 청소년시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고, 한편으로 학교의 요구를 청소년시설 및 단체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교육정책분야에서 학교교육에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협력을 다룬 연구나 정책들은 청소년시설이나 단체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하나로만 인식하거나, 아예 누락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배치된 학교와 학생의 수에 비하여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 학교나 교사들이 지역사회에 청소년시설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때에 청소년시설이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중심이 되는 모형을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시설이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만한 수준으로 여건과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발간한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편람'에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2b).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175개의 1년 평균 연간 총수입이 12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연간 총수입이 5억 미만인 청소년수련관이 72개소로 41%에 달한다. 전국 175개 청소년수련관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수는 평균 18.5명이고 그중 청소년지도사는 6명 정도이며, 전체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곳도 51개소로 29%에 달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196개소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1억5천만 원 정도이며, 이중 1억 원 미만인 곳이 108개소로 55%에 달한다. 청소년문화의집 210개소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수는 평균 3.9명이고 그중 청소년지도사는 1.9명이며, 전체 직원 수가 3명 미만인 곳도 84개소로 40%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그 운영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에서 청소년시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헌신과 열정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시설이 청소년활동의 전문기관으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 인력확충, 시설 및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제고와 그에 맞는 복리후생 제고 등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여덟째,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을 포함하여 기관이나 조직 간의 연계·협력이나 네트워크의 유지 및 발전은 상호간의 동등한 파트너십과 상호이익을 전제로 성립된다. 학교교육과 연계·협력을 통해서 청소년활동분야가 얻고자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청소년분야에서 기대하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동참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구체화하여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학교와 구분되어 지역사회에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하는 이유에 기반 하여 이익을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활동에서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청소년시설 설치,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청소년활동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학생인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매달려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을 운영할 여건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과 이에 따른 재정투자의 미흡 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소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학교교육과의 연계·협력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양적으로 더 확충하고 동시에 질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포함하고 있다. 즉, 전국적인 학교와 학생의 수와 분포를 고려하고 이에 대응할 만한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의 교육활동으로서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적 수준을 가진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학교교육과 연계를 통해서 기대하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의 단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청소년활동이 학교교육과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보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재정투자를 확보하여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시설과 인력 및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기대효과이다. 학교교육 연계를 계기로 청소년활동시설이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하는 허브로서 지위를 확보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중추적 기능을 갖게 되는 것,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많아지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청소년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는 되는 것도 기대효과가 된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되어 사회 전반으로 청소년활동이 확대되는 것도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의 단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대효과 중에서 학교교육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정책분야에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거시적인 수준에서 정책적인 명분이나 논리뿐만 아니라 실제 연계·협력을 실행하는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현장 종사자들이 공감하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5) 본 연구와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6)]

그동안 청소년기관 입장에서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나, 학교입장에서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연계협력에 대한 논의와 사업은 1990년대부터 봉사활동, 특별활동, 주5일제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자유학기제로 매 시점과 이슈를 달리해서 시행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련 연구로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연계협력을 위한 다양한 운영모형과 방안(임지연,김정주, 2007; 안선영,최창욱, 2011; 김현철,황여정,민경석,윤혜순, 2012; 김현철,윤혜순, 2013; 성은모,정효정, 2013; 김기헌, 2013; 임지연,김영석, 2013)이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연계·협력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실태와 요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거시적인 논리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현장 종사자들이 공감하는 발전방안이 요구된다. 그동안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지역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관련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 등에 대한 국내외 진로탐색 프로그램 사례조사, 학교-청소년기관 네트워크 사례, 청소년 주도형 지역참여 사례, 외국의 진로직업체험 교육사례(홍후조 외, 2014; 이기봉 외, 2013; 최상덕 외, 2013; 김현철 외, 2012) 등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에프터스쿨, 스웨덴 직업체험학습 등의 외국 사례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현재 우리나라에 맞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과 지역체험활동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의 자유학기제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사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지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현장의 실천상황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는 때이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외국사례와 이론적 논의와 필요성에 기반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6) 이 부분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Ⅱ-1 본 연구와 관련 연구의 조사내용 비교

연구제목 및 연구기관	주요 조사내용
본 연구 특징 임지연 외(2014).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실태와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 ■ 면담조사 : 자유학기제가 실행되고 있는 현장의 실태와 맥락적 상황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학교(교사, 학생, 학부모),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 기타 지역체험기관(공공기관, 대기업, 개인사업장, 민간단체) 42명을 대상으로 학교–지역체험활동 과정, 개선사항, 성공요인 등 조사 후 근거이론으로 분석함. ■ 설문조사 : 연구학교 74개(교사), 청소년기관 100개(청소년지도사) 총 475명을 분석하여 전문인력, 프로그램, 연계협력, 기반구축, 인식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와 실천도 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함.
신철균 외(2014).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설문조사: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원)와 학교유형(연구학교 80개교, 희망학교 35개교, 일반학교 36개교)에 따라 어떠한 지원전략이 필요한지를 분석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
장현진 외(2014).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FGI : 연구학교, 실무협업기관, 교육청 대상의 ,심층그룹인터뷰(FGI)를 통하여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 및 장애요인을 도출 ■ 델파이조사 : 학교교사, 학계전문가, 교육청 전문직, 정책 담당자 총25명 대상의 델파이조사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 학교 현장과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다 심층적인 성공 및 장애요인을 탐색
정영근 외(2014).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2013~2014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2013년 42개교 전체와 2014년 38개교 중 32개교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진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실태 및 인식, 향후 교육과정 개정 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실태 조사지를 통한 분석과 학교교육계획서 분석을 실시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
성은모(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질적 분석: 조직차원의 질문지와 개인차원의 질문지 응답내용 분석 ■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모형의 틀 도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전략
이기봉 외(2011).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Ⅰ.	■ 외국사례조사, 설문조사,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운영

연구제목 및 연구기관	주요 조사내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지역사회연계 운영 모형 개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례 개발, 지역사회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김현철 외(2012).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 사업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실태 조사,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체험활동 사례조사,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모형 개발
김현철 외(2013).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 실태 및 효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안선영 외(2011).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자원연계 코디네이팅 연수 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설문조사: 81개 기관(청소년수련관 63개, 청소년문화의집 18개) 대상, 전문가 의견조사: 31명을 대상 ■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자원연계 코디네이터
홍후조 외(2014). 관련자 의견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탐색 연구.	■ 설문조사: 학생·학부모·교사·연구자 대상 ■ 자유학기제 관련 해외사례조사 :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의 진로직업체험 교육 비교, 자유학기제의 기본안과 본 연구의 제안 종합비교,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구안 및 제시

2.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7)]

청소년시설에서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정책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해 보고,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체험활동 활성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정책적 연계 실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한 일본의 「종합적인 학습시간」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 체험활동을

7)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된 워크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워크숍자료집(14-S14))."에서 김주희(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팀장)의 발표문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음.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단순히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과 역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현철,최창욱,민경석, 2010).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2010)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성공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2010.5.)하고 청소년 시설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발굴 확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정책적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업무협약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가 MOU체결로 두 개 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핵심활동으로써 내실 있게 추진하게 위한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제고하자는 취지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인프라의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창의체험자원지도에 청소년 활동인프라(단체, 시설, 인력, 프로그램)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 인프라

학교 교육과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자리 잡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교 밖이 원활히 연계·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는 학교 교육정책과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정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밀접하게 협력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청소년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기회로 적극 참여하고자 교과부와 창의체험자원지도(CRM, Creative Resources Map) 및 입학사정관제 등의 협력 강화는 중앙차원에서 지속적 추진하였다. 청소년 관계자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해 증진과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청소년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체질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전략사업을 전개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청소년체험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체계 구축하여 교과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하고 교과부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추진기관간 협약(2011.3.) 추진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과학창의재단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지역실무협의회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 및 센터 평가지표 제시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지역사회 학교연계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및 운영 지원, 청소년활동 인프라 활용확대를 위한 설명회 및 홍보사업을 펼쳤다. 그 외 국립청소년수련시설(중앙·평창·고흥)을 활용하여 봉사 및 특정 테마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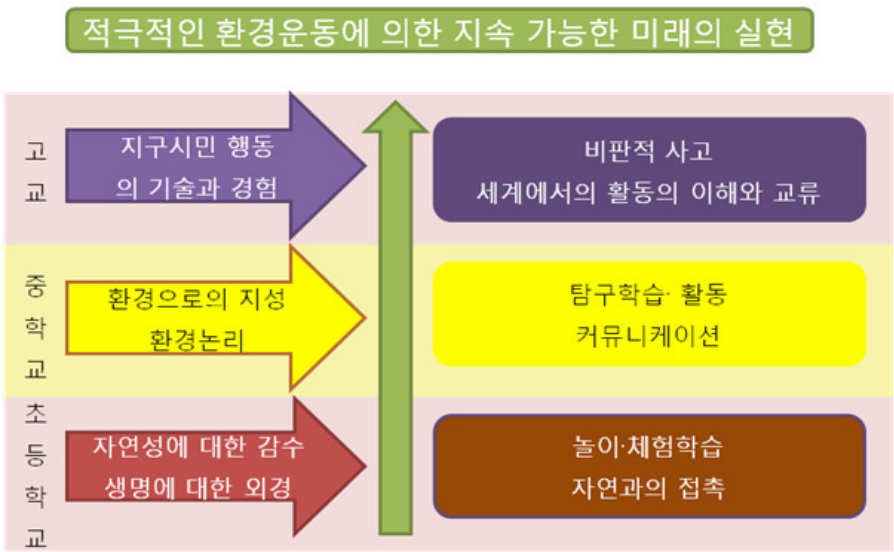
창의적 체험활동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및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운영매뉴얼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학교연계 컨설팅,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체험자원지도(CRM)에 연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자원지도(YRM, Youth Activity Resource Map,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단체 현황 등)를 보강하여 지방센터와 자원지도 관리체계를 운영하였다.

(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지역자원 특히,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체험활동 인프라(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등)를 기 구축·운영 중이며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가능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인프라와 학교를 성공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는 지역사회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운영모델을 시범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운영사례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2011년 2개 지역의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개발된 운영모델을 전국적인 정책사업에 적용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모형개발 연구」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창의적 체험활동 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 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과 운영모형을 제공하는 전략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시범지역 및 기관은 지자체 의지가 있고, 자원 등 역량이 안정된 지역을 기반으로 선정하여 노원구 및 수원시 초중고 각 1개교(총 6개교) 2천 명이 참여하였다.

기존 청소년 시설에서 제공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활동영역별로 되어 있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어 학교의 관심 유도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지자체와 교육청, 프로그램 개발기관, 청소년현장, 학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통성과 연계성을 확보한 통합된 프로그램과 운영체계 모델을 구축하고, 시범운영한 사례를 보급·확산시키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젝트로 실행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대표 주제(예: 환경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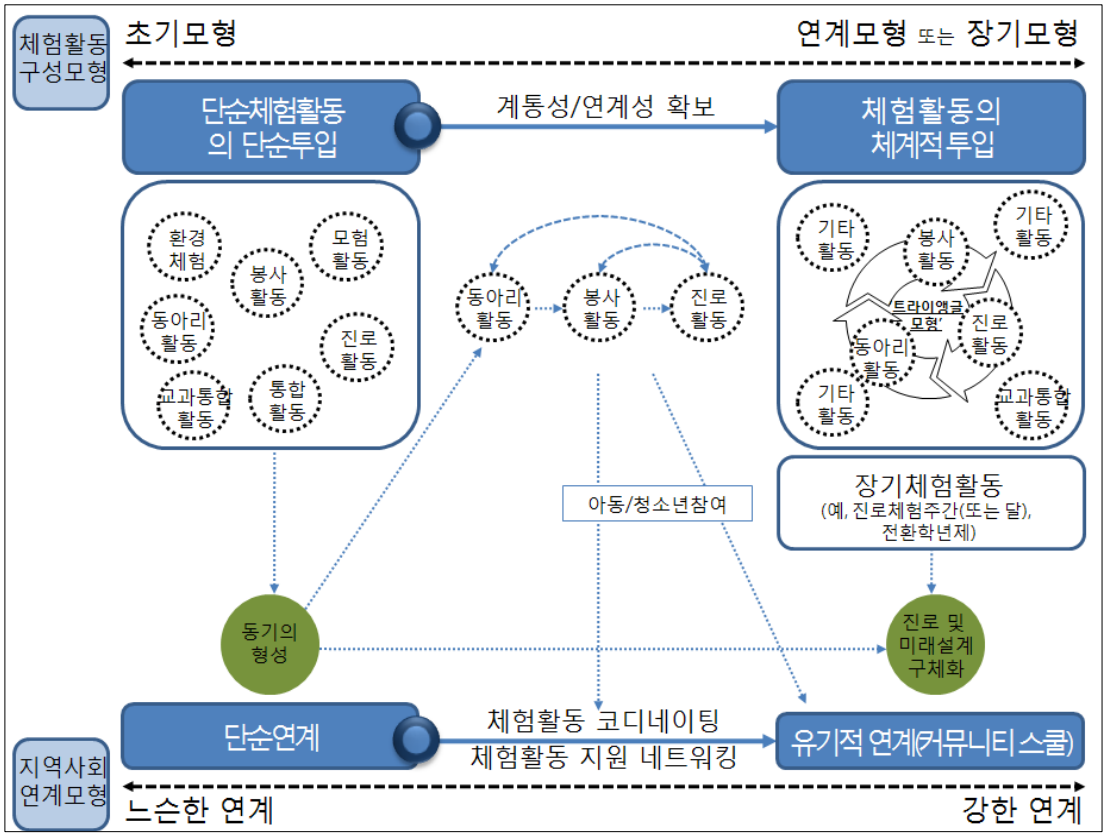
등)를 먼저 결정한 후 교급별, 영역별 활동을 연계·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개별적 체험활동의 단순투입 형태에서 계통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활동 영역간 통합·연계모형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예로 동아리를 기본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진로활동으로 연결되어 미래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일본 케센누마시의 환경체험활동에서 계통성을 확보한 교급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적용은 대표적인 해외 우수 사례라고 볼 수 있다(김현철,최창욱, 민경석, 2010).



원자료: 気仙沼市教育委員会(2009). Mobius for sustainability(2002→2009).
출처: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p. 50.

【그림 Ⅱ-1】 일본 케센누마시의 계통적 초·중·고 환경교육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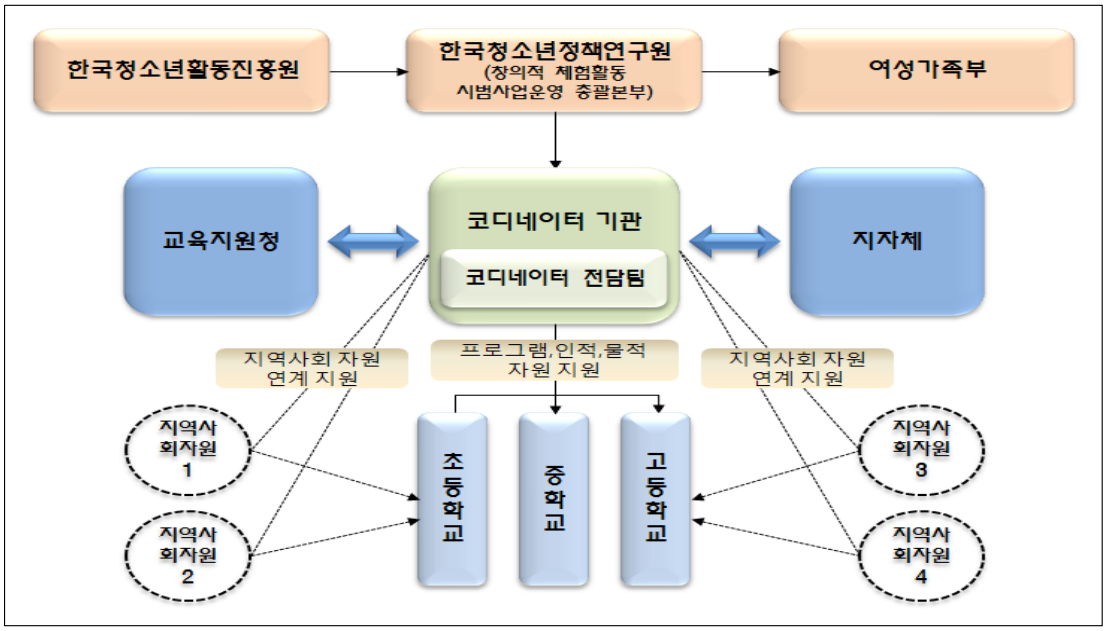
이를 토대로 장기적 체험활동, 진로 및 미래설계의 구체화가 가능한 통합형 체험활동의 체계적 투입(단순통합→트라이앵글모델)으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유기적 연계모형 제시함으로 프로그램은 계통성과 지역자원 및 활동영역과 통합·연계성을 가지고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운영체계 구축과 함께 학교와 지역코디네이터 담당기관이 연간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컨텐츠 개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출처: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Ⅰ. p. 22.

【그림 Ⅱ-2】 창의적 체험활동의 가설적 운영모형

여성가족부(2013)는 2012년 개발된 지역사회운영모형을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참여기관의 컨설팅과 담당인력 지도, 지역모델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과 각 학교(교육지원청)와 연계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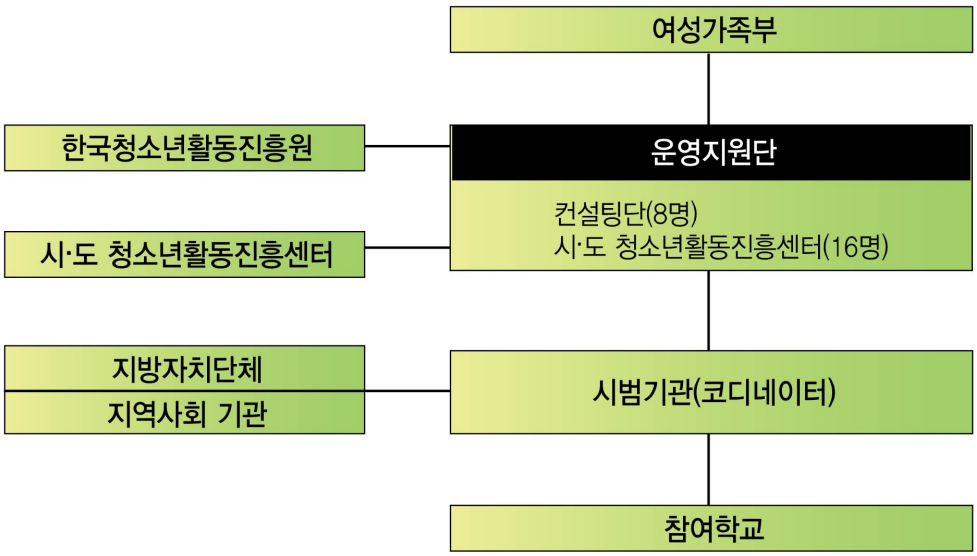
출처: 김현철 외(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Ⅱ. p. 7.

【그림 Ⅱ-3】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모형

시도별 각 60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총 960백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시도별 각 2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선정하여 1개 수련시설에서 초중고 총 3개 학교를 기준으로 담당하여, 전국적으로 총 44개 수련시설과 100개 학교가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는데 참여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본 시범사업은 2013년에 총 42개 수련시설과 확대된 191개의 초·중·고교가 참여하면서 활발한 연계 성과를 이루어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이로써 2011년에 개발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더욱 개선·발전시키며, 시범기관(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의 학교, 지자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첫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기관을 코디네이터기관으로 하여 추진체계 마련과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자원 발굴 및 자료집(DB) 개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육 및 연수를 통한 담당자들의 코디네이팅 기능 강화와 청소년 체험활동 및 지역 네트워크 관련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청소년 체험활동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강조를 두었다. 이러한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의 추진체계와 추진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



출처: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 사업지침. 미간행물.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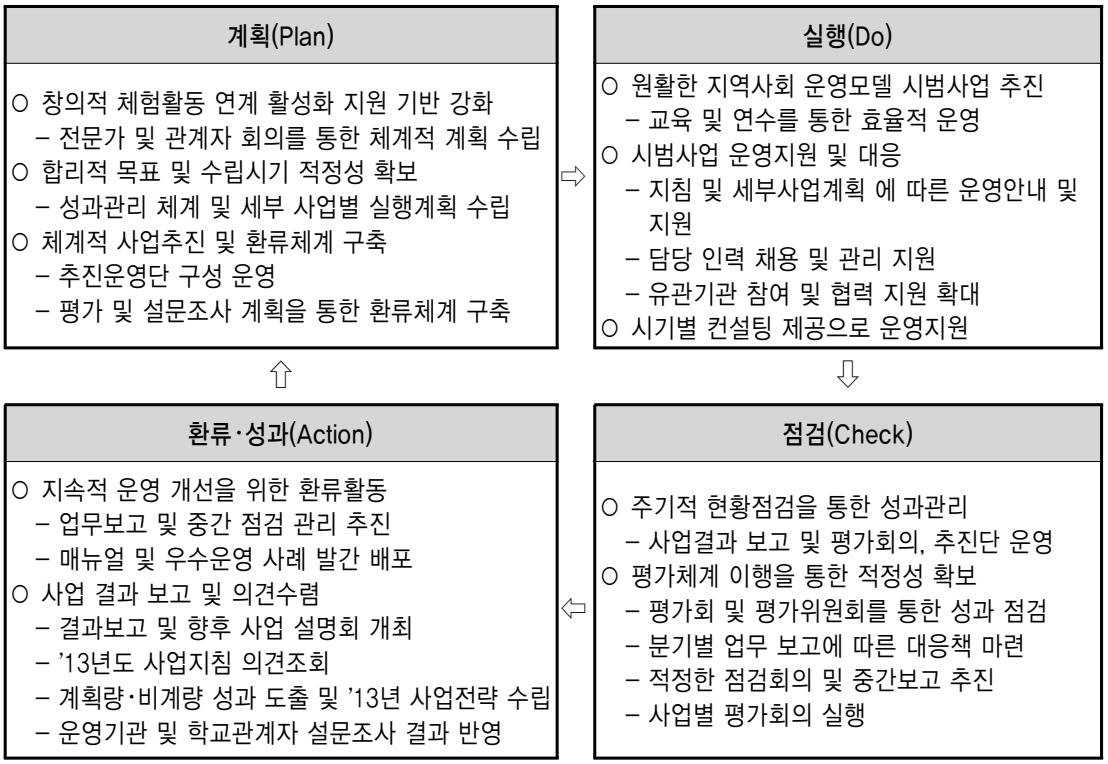
【그림 Ⅱ-4】 창의적체험활동 연계사업(지역사회운영모델사업) 추진체계

표 Ⅱ-2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사업(지역사회운영모델사업) 추진체계별 역할

기 관	역 할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총괄 ○사업지침 수립 및 시범사업 기관 결정
운영지원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사업시행 총괄 ○사전 워크숍 및 결과보고회 주관 ○운영기관 및 참여학교 교육·지도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과 협약 체결 – 운영기관, 참여학교도 같이 협약 체결 ○사업 운영관련 행·재정 지원 및 감독 ○운영기관과 참여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의 지원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해당 지역 운영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 평가(상반기, 하반기), 중간보고회 개최

기 관	역 할
	○사업에 참여할 전문인력 지정 – 센터 내에서 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 경력이 있는 인력 지정, 국가가 배치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는 타 업무 인력으로 활용 가능 ○컨설팅 및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3월, 10월)
시범기관 (코디네이터기관)	○사업 추진체제(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참여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진행 ○중간보고(7월) 및 최종 결과(12월) 보고 – 여성가족부(지자체 경유),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제출
참여학교	○차년도 연간교육계획 수립 시 운영기관(코디기관)과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에 대한 협의 및 반영 ○운영기관(코디기관)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출처: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 사업지침. 미간행물. p. 4.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연구 결과보고서. 미간행물. p. 5.

【그림 Ⅱ-5】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운영관리 절차

2) 창의적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 성과와 한계점

(1) 창의적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 성과

여성가족부(2012)에 의하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운영 모델 확산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량 강화와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도 제고로 전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전국 시범사업에 이르는 3년간의 프로젝트가 운영되었다. 아쉽게도 2014년도 지역사회 운영모델사업의 정책적 지원이 중단되면서 3년간 개발 적용되어 온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사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원이 아직 전국적으로 안정적 정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여 자생적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과는 분명 여러 운영사례를 통해 현장의 변화와 지역 네트워크의 강화 및 학교정책과 협력 증진, 시설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2012년도 사업운영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 학교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역할로 인식 전환과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이용 및 활용도가 증대되었다. 특히 충남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기반 구축에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활동 인프라(프로그램, 지도자, 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내 시범사업 연계 시범학교 지정 요청 증대로 경쟁력이 확보되고 '13년부터 시범학교를 공모형태로 선정하는 운영기관이 많아졌다. 사례로 '12년 양산시 청소년회관이 공모를 통한 시범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울산동구청소년문화의집,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경기연천군청소년수련관 등에서도 학교연계 요청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울산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자원 현황 발굴 및 DB구축(YRM)이 증가하고,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대덕구청소년수련관 등은 학교 및 지역 사범사업 참여기관과 유기적 연계 협력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44개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100개 학교가 참여하면서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 성공적 사업 추진은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주요성과로 채택되어 사업추진 결과의 객관적 적정성을 확보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사업평가를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의 운영사례를 통한

시범사업 전후의 효과분석을 프로그램(유형, 내용, 특화프로그램), 지역사회(네트워크), 시설(기관역할, 시설이용률), 학교(연계), 지도자(지도역량) 측면으로 제시하고 대표적인 성패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Ⅱ-3 운영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효과 분석

구 분		시범사업 전	시범사업 후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형	– 단기 일회성 프로그램 참여 – 교급·학년 수준별 차별화된 학기(학년)단위 프로그램 미흡 – 시설 보유 프로그램 제공(공급자 중심) 위주	– 사전 교육과정 협의를 통해 학년 수준별 학기(학년)단위 프로그램 개발 예)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 교급별 계통성을 확보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 학교 요구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수요자 중심) (예) 인천 동구·서구청소년수련관, 충남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전남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내용	–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요구 증대로 질적 개선 필요	– 창의체험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률 및 만족도 증가 (예) 충남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특화프로그램	– 지역 및 기관의 특화프로그램 부족	– 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예) 전국 44개 시범사업 운영기관 추진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 자원발굴 저조, 네트워크 필요성 인지 부족 – 청소년체험활동의 자원 관리 미흡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 증가 (예)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대덕구청소년수련관,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경기연천군청소년수련관, 대구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자원 발굴 및 DB 구축 증가 (예)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울산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학교	학교연계	– 학교의 관심과 연계 미흡 ※외부기관 및 시설과 연계 경험 5점 만점에 평균 2.26이하(김현철 외,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요청 증대 예) 울산 동구청소년문화의집, 울산남목청소년문화의집,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경기연천군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학교의 변화 및 연계 증대 효과 – 경쟁력 강화로 공모를 통한 시범학교 선정사례 도출 예) 양산시청소년회관 연계 초중고교 공모 선정
지도자	지도자 역량	– 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외부 전문 지도력 요청 증대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자체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초중고 교사 불과 3.5%, 동아리활동(35.1%)과 진로활동(39.0%)을 선호하나, 학	– 지역사회 및 학교로 활동범위 확대로 역량 제고 – 지역코디네이팅, 동아리 및 진로활동 전문 지도역량 연수 및 교육 추진 예) 전문연수를 통한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구 분		시범사업 전	시범사업 후
		교인력만으로 운영하기 가장 취약한 영역임(김현철 외, 2010)	
시설	기관 역할	– 기관 자원만으로 학교 프로그램 연계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기능 미흡 – 지역사회자원 학교 연계 코디네이터 기능 인식 부족	– 시설내 전담인력 배치 학교 연계 효율성 증대 예)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학교협력관' 직제 생성, 44개 시범운영기관의 전담지도자 배치 – 지역사회 자원 총괄 등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 예) 광주청소년문화의집 '코디네이터' 직제 생성, 전남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울산 문수청소년문화의집 – 교육기부자 양성 및 참여기관 발굴, 모임 운영 지원 예) 빛고을청소년문화의집,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 시도활동진흥센터와 연계 추진하여 YRM 자원 확대 등 시너지 효과 예) 대덕구청소년수련관, 빛고을 청소년문화의집, 울산 청소년활동진흥센터(6개기관)
	시설 이용률	– 청소년지도사가 강사로 학교로 찾아가 프로그램 진행	– 동아리 및 자율활동으로 수업(낮)시간에 청소년시설 이용률 증대 예) 노원청소년수련관, 역삼청소년수련관, 부산양정 청소년수련관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사업 결과보고서. 미간행물. pp.46-48.

표 Ⅱ-4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성패요인 분석

성공요인	실패요인
• 지역모임 활성화 • 네트워크(협력 기관) 다변화 긴밀화 중심화 • 학교 요구조사후 프로그램 연계 • 특화, 통합 프로그램 협력 개발 • 지역자원 발굴 및 DB 구축 증가 • 학교와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 • 지도자 코디네이팅 전문성 및 역량 • 기관 차원 운영 지원 •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 상호이해부족 • 지역내 자원부족 • 네트워크 중요성 인식 부족 • 네트워크 활용성 부족 • 전문성 역량 부족 • 잦은 인력 교체 • 코디기관으로서 정체성 미흡 • 학교 요구에 단순 지원(프로그램, 장소, 지도자) • 학교와 기관 매개자 및 대행자 역할 (방과후활동위주 강사관리)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연수 결과보고서. 미간행물. p. 45.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는 지역사회자원 활용과 지역사회 협조가 중요사안으로 현 청소년활동 지원에 지역사회 인식 부족, 인프라 부족, 체계적 지원 부족함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갈 사항이다. 한편 객관적인 시범사업 외부평가로 김현철 외(2012)은 시범운영기관 및 시범학교 관계자 37명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코디기관과 시범학교의 협의회 운영은 평균 2-3회 개최로 만족도 90.2%를 나타냈으며, 교사와의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코디네이터 역량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하였다. 또한 코디기관당 평균 9개 지역자원(기관)과 인근 초중고 70%의 학교가 참여하며,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효과, 필요성에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연계협력기관 유형중 청소년수련관이 73.2%로 가장 높았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외부 지역자원연계 필요성에 93.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학교 현장의 코디네이터 수요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성공요인으로 좋은 프로그램, 지역사회자원 코디네이터, 예산지원 순으로 응답함을 알 수 있었다.

2013년도는 특히 전년도에 비해 지역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정책적 참여와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 강화로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4개의 청소년시설과 191개의 초중고교로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업 확산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창의적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역할 및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3).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이용 및 활용도를 증대하였는데 대표적인 우수사례 3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은 지역자원 참여기관의 수를 30여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2배로 확대하고, 공모형으로 참여학교를 선정하여 교사와의 연구모임, 간담회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역 해양프로그램을 진로와 연계하여 해양과학자 등 진로분야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해양기관과의 협의회 운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재능기부 고등학교 동아리가 초등생 돌봄교실을 운영지원하는 사례의 호응이 높았으며, 청소년 분야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표의 계량화로 모델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기관수 대비 참여학교수 비율, 지역기관 및 학교의 예산부담 비율을 점차 늘려 자립 형태의 운영모델을 만들어 갔다. 둘째,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은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으로 객관적 사업성과 측정 및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날을 지정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동아리활동을 청소년문화존 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신뢰와 인지도 향상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러한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운영기관이 2년차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사업을 추진(42개 기관, 191개 학교)하면서 점차 지역내 사업 효과 및 인지도가 향상되고 참여학교 공모형 선정추진과 학교 및 지역사회 신뢰도 향상,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2011년)과 시범사업(2012년, 44개 수련시설, 100개 학교), 본 사업(2013년, 16개 시도센터, 42개 수련시설, 191개 학교) 추진 확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서 지자체, 청소년시설, 학교가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모델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과 운영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유기적 연계·협업으로 2014년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업예산을 별도 확보(대구광역시 등)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 등 교육시설 위탁 운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즉청소년시설이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착 및 체험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창의적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 한계점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2011) 운영을 통해 지역자원 및 학교 연계 추진 정도와 수준에 있어 지역별 큰 편차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지역의 청소년시설은 코디네이팅 역할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배치가 미흡하였고, 학교 관계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사업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실질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기관 및 담당자의 이직 및 변경, 부재사정으로 일부 운영기관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이직률을 줄이는 지도사의 역할과 전문성 등 위상 강화 등 근무조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강사 지도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현실적 예산 지원과 사전 프로그램 요구조사, 지역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보완과 운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2011).

더 나아가 교육청, 지자체 업무협약 추진 등 지원을 위한 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참가 만족도·효과성 설문 문항, 평가체계(성과달성목표 등)는 필히 개발 연구되어 사업

확대의 객관적 근거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코디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 이해, 자원확보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 지속적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역자원 및 학교연계 우수사례와 정보가 온 오프라인으로 상시 공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과목표에 전담인력 구성 및 시설이용 증가율 등이 사업결과 보고시 반영되고,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과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사업운영체계 우수 및 미흡기관 추적 모니터링 실시로 우수사례의 정책적 매체 홍보 및 인센티브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2011).

지역모델사업 운영지원으로 청소년시설이 지역사회 운영모델 확산 및 정착화에 중추적 역할로 참여협력기관 발굴 및 확대,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연계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에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하였다. 즉, 청소년수련시설(42개)과 학교(191개) 연계로 지역 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체험활동 기회 확대'라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16개 시도별 42개 운영기관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근거로 향후 시·군·구까지 지역모델 운영사업이 점증적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 긴밀한 부처간 정책적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지자체 및 교육청, 시도센터, 청소년시설, 학교,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 향후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처간 연계·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 및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14년도 연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보조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지역사회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지원 사업이 일부 중단되는 상황에 처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요구 증대와 함께 자유학기제와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청소년시설이 지역내 안정적 운영 체계와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성장시스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

3) 청소년시설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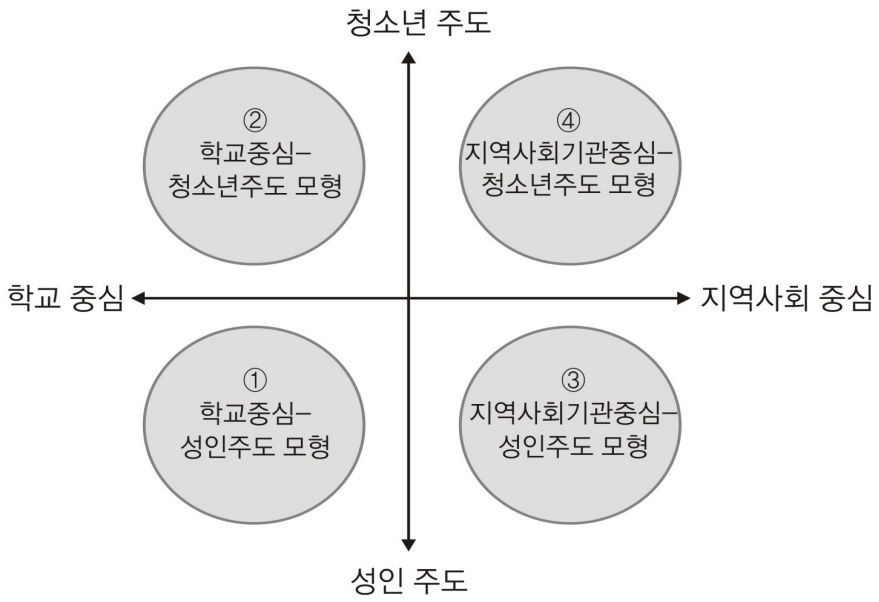
창의적 체험활동와 자유학기제는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활동과 학교연계 협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시설은 대체적으로 학교 연계 사업으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도 협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는 자유학기제와 어떻게 연계 협력할 수 있을지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두 교육정책은 학교스포츠활동 강화, 동아리활동, 문화예술활동 강화 등 청소년체험활동을 강조하는데 양적인 팽창 외 질적인 변화가 이제는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체험활동 운영하기 위해 중요 고려사항으로 체험활동을 통해 흥미·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과/비교과 통합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능력을 갖추고 능동적인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지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는 프로그램 콘텐츠 기술자가 아닌 청소년 자기주도적 참여지도와 다양한 컨텐츠 융합 통합 기술, 네트워크 통해 가능하도록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기관은 네트워크에 중요 역할로 학교와 지역사회 변화에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기관·시설·단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청소년활동 대처방안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연계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자원과 교류, 강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을만들기를 위한 중심 역할로 단순히 시설을 찾아오는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운영자, 강사연계형 공적 서비스는 한계에 도달했다. 청소년지도사 활동 영역 전문성, 교사와 연구모임, 지역 전문 인력 교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를 강조하여 협업활동 강화, 및 컨설팅 역량 강화로 청소년기관의 필요성 인식과 지역사회내 존재감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로 프로그램 가지고 가는 세일즈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장으로 학교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와 상호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며, 일방적 지원이 아닌 협업방식으로 지역사회 네트워커로 청소년기관 이 역할(학교, 지자체, 교육청 등)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계의 휴먼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활용과 운영으로 학교, 지역사회 조직, 청소년기관 조직이 상호보완적 시스템으로 자원의 활용과 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이다. 청소년기관은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전문성 갖추어 학교 및 지역 전문가로 교사나 학부모를 리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참여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주도성과 지역사회 연계정도 기준 4개 모형에 따르면 지역사회기관 중심, 청소년주도 모형이 전문성 갖춘 지역기관이 연계 담당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청소년주도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때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심을 갖고 관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역사회 연계로 자원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자기주도적 활동 참여가 전제되도록 해야 한다. 자기주도적 활동의 핵심은 지도원리, 문화적 자본의 격차 줄이는데 있다. 이는 활동내용, 강사의 질 차이 줄여주는 방안으로 저비용으로 가능하며, 문제

발견, 기획, 문제해결 위한 활동 방식으로 스스로 생각, 비판, 분석,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도자가 멘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현철 외, 2012).



출처: 김현철 외(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p. 180.

【그림 Ⅱ-6】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매트릭스

셋째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협력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조직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책임진다는 자발적 참여와 관심, 책임의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여 단순 일터제공을 넘어 인재육성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해 가야 한다. 성공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공동발전 및 상생의 비젼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지역 참여 주체자로 학부모의 참여 확대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터 체험제공 기관 발굴 및 기업윤리, 교육철학과 의지 갖춘 일터의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적 손실 고려한 선 공공자원, 후 민간자원 확대 등 다양한 자원 발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활동 성공사례 및 프로그램 모형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고 철저한 사후관리, 청소년예절교육, 체험기관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일례로 교육기부 인증명패, 칭찬릴레이, 공공기관 의무화, 기업세제 혜택, 시간기부 인정 등 사회적 합의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사항이다.

3.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8)]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데 있어 교과 수업과 더불어 직·간접 체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들의 학생 체험활동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자유학기제의 개념 및 특징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의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은 <표 Ⅱ-5>와 같이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분된다. 공통과정은 기존의 학교에서 가르치던 교과에 대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유연하게 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방법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자율과정은 진로탐색활동, 학생선택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의 네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8) 본 내용은 황은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된 워크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워크숍자료집(14-S14)).'을 수정·보완하였음.

표 Ⅱ-5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개요

과정	구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자율과정 (참여·활동형 프로그램 강화)	진로탐색 활동	• (학습) 학교수업에 진로교육 내용 반영, 진로와 연관된 통합교과 운영 등 • (상담·검사) 진로상담교사 우선 배치, 무료 진로검사, 진로상담 어플(4종) 활용 등 • (체험) 2회 이상 전일제 체험, 학생이 계획하고 학교가 출석을 인정하는 자기주도 체험, 진로캠프, 사회인사의 특강 등 • (관리) 학생부에 진로희망 이유·비전 등도 기술, 학생의 상담·체험 결과를 누적하여 진로 포트폴리오 구성 등
	학생선택 프로그램	• 주기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
	동아리 활동	• 학생 희망에 따른 동아리 개설 및 동아리 간 연계 활동 강화 • 청소년 단체(스카우트·RCY 등) 참여 권장 및 교육청의 지원 확대
	예술·체육 활동	• 문체부의 문화·예술·체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예체능 교육 내실화 • 예체능과 국·영·수·사·과 교육간 융합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공통과정 (학교 교육방법의 혁신)	교수·학습 방법	• 참여와 활동 유도: 토론, 실험, 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 • 과목 간 융합·연계 수업 • 협동교수-협력학습 강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 교과의 내용은 핵심 성취 기준 중심으로 구성
	평가방법	• 중간·기말고사 실시하지 않음 :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상황을 학생부에 기록 • 학교별 학생 성취 결과 확인 방안 마련 : 결과는 고입 미반영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3. 5. 29), p. 4.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 교육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공통과정 및 자율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학생 평가 방법의 변화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자율과정 프로그램 운영에서 두드러진다. 첫째,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은 공통과정(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기본교과)와 자율과정(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활동, 학생선택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교 마다 다르지만, 공통과정의 수업 시수는 주당 20~22시간 정도이며 대부분 오전에 진행된다. 자율과정은 주당 12~14시간 정도로 구성되며 대부분 오후시간과 중간·기말 고사 기간을 활용한 전일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는 2013~2014년 연구학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운영 형태이고,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율과정을 전일제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다(최상덕 외, 2014).

둘째, 공통과정 및 자율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학생의 흥미와 수요에 기반한 참여형, 활동형 프로그램의 확대가 강조된다. 공통과정으로 편성되는 기본교과의 경우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벗어나 토론, 실험·실습, 체험, 교과 간 융합 수업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과정은 진로탐색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 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활동마다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학생 평가에 있어 중간·기말 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학생들을 시험과 입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는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 학교별로 평가의 방법, 시기,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형성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중심의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프로그램 제공, 학생 수요에 기반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학교 현장에서 예술·체육 교육이 내실화 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통과정의 교육과정의 편성, 교수·학습, 학생평가 및 자율과정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특징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체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해 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은 학교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 중인 연구학교에서는 교원연수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기본교과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자율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차원의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2) 자율과정의 운영 및 체험 인프라 구축

자유학기제의 자율과정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포함되게 된다. 자유학기제 자율과정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목적 및 성격, 학습내용, 운영방법은 <표Ⅱ-6>과 같다.

표 Ⅱ-6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구성 영역

	진로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
목적 및 성격	학생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학생들 간의 자치적, 자율적 모임	학생에게 다양한 예술, 체육 활동 제공	학생에게 전문화된 프로그램 학습 기회 제공
학습내용	진로, 직업 관련 내용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음악, 미술, 체육 관련 내용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운영방법	학생 선택	학생 선택	학생 선택	학생 선택
교수자	교사 및 외부 강사	학생중심의 운영, 교사는 지원자 역할	교사 및 외부 강사	교사 및 외부 강사

출처: 최상덕 외(2014)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 매뉴얼. p. 2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진로와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유학기제에서는 이를 더욱 유연하게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의 체험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과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영에 있어 학생선택프로그램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나 강사가 주도하고,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동안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직·간접 체험을 활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 '특별활동'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로 제7차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이르기까지 학교 내 비교과활동이 점점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교사나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의 부족 문제, 수업시수 조정용이나 자습시간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학생의 수요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 교사의 업무 과다 문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부재, 외부 자원과의 연계 경험 부족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현철 외, 2013; 김현철 외 2010 재인용).

자유학기제 자율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비교과활동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 중 비교과활동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자원 부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부재, 자원 연계 경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의 직·간접 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중앙정부 차원, 시·도교육청 차원, 교육지원청 차원, 학교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가 중앙부처·청, 교육기부 공공·민간기관 등과 중앙단위에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광역 자치단체, 교육지원청-기초 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연계·협력 체제를 형성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으며(교육부 보도자료, 2014. 2. 21), 2014년 3월 12일에 교육부와 8개 중앙행정 처·청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표 Ⅱ-7>.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에서는 16개 전문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있다. 각각의 전문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협업기관들은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강사풀이나 학생 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시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역할은 <표 Ⅱ-8>과 같다.

표 Ⅱ-7 중앙행정의 자유학기제 인프라 제공 내용

기관명	인프라 제공 내용
법제처	청소년 법제관 사업
국가보훈처	청소년 독립군 체험캠프,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경찰청	경찰 직업 체험 및 안전·법질서 교육 지원
소방방재청	미래 소방관 체험교실
문화재청	문화유산방문교육, 고고학체험교실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소속기관 현장체험
산림청	청소년 인성교육 숲체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현장탐방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4. 3. 12) 재정리.

표 Ⅱ-8 자유학기제 협업기관의 인프라 제공 내용

기관명	인프라 제공 내용(예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클, 수상스포츠, 골프 등 체육 프로그램 및 체육공원, 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 제공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성교육, 교육기부 등의 사업으로 주요 교과활동 연계운영 프로그램 제공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학·관·연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과 안정적 정착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평가에 관한 연구 수행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 문화 프로그램 예술교육 강사 파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와 직업 관련 스마트북 제작 및 제공, 진로 전문 인력 지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유학기제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동아리, 국제교류, 자치활동, 문화활동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강사 및 전국 수련시설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별 거점에 콘텐츠 제작 체험 인프라 구축, 드라마, 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제작분야 강사 파견 및 산업현장체험 제공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관련 교사, 학생 연수 개설 및 지원, NIE교실 등 미디어 관련 전문 강사 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업 진로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보급, 교육멘토링 및 직업체험학교 제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디어활용교육, 진로교육,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교사 및 청소년 대상 상담, 자살예방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학습클리닉 등
한국고용정보원	커리어액션, 직업체험 시설 활용 청소년 진로탐색 컨텐츠 제공 등
한국잡월드	직업탐색 기회 제공, 사회학습 종합 인프라 제공, 건전한 직업관 형성 지원 등
한국폴리텍대학	학생들에게 직업훈련 및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체계적 진로탐색 기회 제공, 체험·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자료집. pp. 58-59.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MOU는 체결하지 않은 협업기관임.

3) 자유학기제와 연구학교의 학생 체험활동 사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통해 다양한 학생 체험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자유학기제를 처음 시행한 연구학교들의 학생 체험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여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의 연계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들의 체험인프라 활용은 크게 교육 전반과 관련된 체험활동, 교과 연계 체험활동, 직업·진로 체험활동, 동아리 연계 체험활동, 문화·예술 체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학교별 운영 모형(진로탐색활동 모형, 학생 선택 프로그램 모형, 동아리활동 모형, 예술·체육활동 모형, 혼합 모형)에 따라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인프라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직업·진로 체험을 위한 인프라 활용이 많았다(최상덕, 2013).

표 Ⅱ-9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체험인프라 활용 유형

유형	설명
교육전반	교과와 관련된 체험활동 실시, 교과 연계 체험활동, 직업체험, 문화예술 체험을 모두 혼합한 형태
교과 연계 체험활동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등의 교과와 관련하여 각 과목마다 관련 체험활동을 실시
직업체험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특화되어 있는 직업 체험을 실시
동아리 연계 체험활동	학생들이 속한 동아리 차원에서 동아리 특성에 맞게 체험활동을 실시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역사회의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하여 교양 활동을 실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자료집. p. 59.

첫째, 교육 전반과 관련된 인프라 활용은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체험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전체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교과 연계 체험활동은 기본교과의 운영에서 체험활동 활성화, 자율과정과 연계된 기본교과의 지도를 위해 인프라를 활용한 경우이다. 2013년 연구학교의 성과보고서 분석 결과 서울 동작중학교가 교과별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학관련 체험을 위해 증권거래소, 국정원 안보전시관, 통계원,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의료보험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방문하고, 과학과 관련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사회와 관련하여 인재능력개발원, 소방

학교를 방문하여 교과와 연계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의 연구학교에서 교과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성과보고서에 교과별로 분류하여 체험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셋째, 직업체험은 대부분의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진로직업센터를 활용하는 형태, 잡월드와 같은 체험기관을 활용하는 형태,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회사, 상점 등을 활용하는 형태, 부모님 직장과 연계하여 체험하는 형태 등으로 다양하였다.

표 II-10 자유학기제 직업 체험활동 사례

구분	학교	체험활동 인프라
진로직업센터 및 진로체험기관 활용	거원중학교, 동변중학교, 외삼중학교, 청북중학교, 태안여중, 김제중앙중학교 등	강동진로직업센터(상상팡팡), 한국잡월드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함태중학교	강원관광대학교(상담, 직업체험), 태백 장서어 중앙병원(의료 진로, 직업), 태백시청, 연세대 원주캠퍼스(창의체험, 방과후 교육), 태백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태백경찰서, 태백농협중앙회,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생명의 숲, 태백청소년수련시설, 태백관광개발공사, 태백지역자활센터, 태백 오투리조트, 태백 선탄 박물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협의회태백지구, 태백수자원공사, 태백산도립공원, 하이원 엔터케인먼트 애니메이션, 유리공예, 커피박물관, 태백레이싱파크, 태백 너와마을, 태백 교육도서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강원소방학교, 태백365 Safety Town, 삼척 어촌 체험마을
부모님 직장 연계	연암중학교	ART요리학원, SBS미용학원, 울산MBC방송국, 로보로보 사이언스 클럽, 울산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 중부 경찰서, 현대자동차, 환경미화원, 암웨이, 화봉성당, 분스킨케어, 미용실, 대일산업, 수학학원, 웰스정수기, 청호나이스, 우리 소방, 봉대박스스파게티, 평화산업, 화봉고등학교 조리실, 대성전기공업, 동광택시, 무룡고등학교행정실, 해바라기 어린이집, 하늘아이지역아동센터, 가죽핸들만들기 부업, 연암건축자재백화점, 등산복판매장,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화봉어린이집, 울산지방경찰청,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춘해보건대학, 울산박물관, 갤러리구교원, 외고산 옹기마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자료집에서 재정리.

넷째, 동아리 연계 체험활동의 경우 동아리별로 동아리의 특성에 맞는 체험처를 찾아 체험하는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42개 연구학교 중 성과보고서에 동아리 연계 체험활동을 소개한 학교는 <표 Ⅱ-11>에 제시한 여섯 개 학교가 있었다.

표 Ⅱ-11 자유학기제 동아리 연계 체험활동 사례

학교	동아리 관련 체험활동 인프라
용수중학교	부산폴리텍대학,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기상청, 동서대학교, 김해공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대명과, 부산동물메디컬센터, 쿠쿠 전자 공장, 한국은행부산본부, 한국거래소
천내중학교	달구벌종합복지관, 달성현풍석빙고, 계명문화대학, 두류도서관, 구미경운대학교, 마비정벽화마을, 대구골목투어, 국립대구과학관, 교육과학연구원, 애망원, 논공카톨릭치매센터
연암중학교	갤러리아,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교육청, 춘해보건대학, 울산MBC,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부산은행, 순천만 갈대숲
연무중학교	전봉준 생가, 수원 화성, 서울 청계천, 대학로, 은진향교, 견훤왕릉
조치원여자중학교	한국만화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밸리코리아학원, 명지대학교 음악학부, 코엑스, 소마미술관, 남양주종합촬영소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서귀포 테니스장, 서귀포학생문화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자료집에서 재정리.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체험활동은 지역사회의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하는 형태와 중앙정부 차원의 협업기관 인프라를 활용하는 유형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문화체험으로 체험이 이루어진 경우와,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위주의 소규모 활동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학교별 운영 모형에 의한 분류 외에 청소년활동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지역의 청소년 활동 관련 기관의 활용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를 연구학교의 성과보고서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총 42개 연구학교 중 성과보고서에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의 인프라 활용을 제시한 학교는 15개교가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는 <표 Ⅱ-12>과 같다. 이들 학교 중 중앙 단위의 협업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활용한 학교는 태안여자중학교와 북삼중학교 2개교 였으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와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를 이용한 학교는 선운중학교와 김제중앙중학교의 2개교였다. 이밖에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는 부평동중학교, 잠실중학교, 언양중학교, 함태중학교, 태안여자중학교로 총 4개교였으며, 그 밖의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 등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표 Ⅱ-12> 참고).

표 Ⅱ-12 자유학기제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활용 사례

학교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잠실중학교(서울)	송파청소년수련관
동변중학교(대구)	북구청소년문화회관,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부평동중학교(인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회덕중학교(대전)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언양중학교(울산)	언양청소년수련관
연암중학교(울산)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함태중학교(강원)	태백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태백청소년수련관
서면중학교(충남)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태안여자중학교(충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태안군청소년수련원
선운중학교(광주)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김제중앙중학교(전북)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김제교육문화회관
화순동면중학교(전남)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순천이수중학교(전남)	순천청소년문화센터
문경서중학교(경북)	문경시민문화회관, 경북학생문화회관
북삼중학교(경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귀중앙여자중학교(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자료집에서 재정리.

(4)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를 위한 과제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학생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수업방식은 체험중심수업(65.4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협동학습(11.01%), 강의식 수업(10.29%), 프로젝트 학습(5.95%), 토론식 수업(5.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에 중점적으로 시행되기를 원하는 자율과정으로는 학생 선택프로그램(32.36%)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체육(31.50%), 동아리활동(23.75%), 진로탐색(1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체험중심의 수업 방식을 가장 선호하며,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선택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및 체육 활동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지연(2013)은 성공적인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향으로 교과서와 교실 중심의 학습 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지역사회와 삶의 현장 속 학습 환경 조성, 학교 밖 학부모, 전문 직업인, 은퇴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인력의 적극 활용 및 확대를 제안하며 자유학기제외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기관 중 현재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자율과정 시행에 따른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은 수련시설의 형태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시군구 단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며, 읍면동 단위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 당일 체험활동 등이 가능하다(유진이, 2012).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백서(2013)에 의하면 <표 Ⅱ-13>에 제시된 것과 같이 2011년 기준 738개소, 2012년 기준 753개소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2012년 620만 명의 학생 청소년 기준으로 볼 때, 23%를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유진이, 2012). 실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도 42개교 중 15개교만이 청소년관련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다. 실제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인구 대비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2013년 현재 42개교 수준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인프라의 활용율이 저조한 것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 및 청소년활동과의 연계방안 준비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 중 중학생의 흥미와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인프라 연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자유학기제 학교와 청소년활동 기관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 기관에 대한 홍보와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Ⅱ-13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3) (단위: 개소)

구분	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총계	계	753	181	219	173	45	127	8
	공공	485	177	215	42	27	16	8
	민간	268	4	4	131	18	111	0
서울	61		33	17	2	0	4	5
부산	24		8	9	4	2	1	0
대구	13		5	6	1	0	1	0
인천	26		8	6	5	4	3	0
광주	11		5	4	1	0	1	0
대전	13		4	7	1	0	1	0
울산	9		1	6	2	0	0	0
세종	1		0	1	0	0	0	0
경기	144		28	41	47	4	23	1
강원	81		14	27	16	6	17	1
충북	46		9	9	15	2	11	0
충남	49		9	10	14	3	13	0
전북	54		11	20	13	3	6	1
전남	44		13	11	8	7	5	0
경북	63		16	11	14	7	15	0
경남	71		14	15	25	4	13	0
제주	43		3	19	5	3	13	0

주: 국립청소년시설(3개)–중앙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평창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라남도 고흥군) 포함. '13. 7월 개원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전라북도 김제시)는 상기통계 미포함.

출처: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pp. 403–404.

두 기관의 서로의 요구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는 학교 주변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및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청소년수련관 담당자 및 청소년지도사들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 자율과정 프로그램 등을 이해하고 자유학기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Ⅱ-1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국에는 181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있어 인근 학교의 자율과정 운영을 상당부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캠프, 청소년체험활동 이외에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희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설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스포츠활동 등은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예술·체육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고,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들이 대부분으로,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연계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들과 청소년수련관 지도사들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좋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실제 인근학교 학생들의 희망과 일치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간 및 운영방안과 맞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지역사회기관의 협조가 중요하지만, 청소년체험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였으며, 연계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연간계획의 수립 및 업무협의회 개최 등의 최소 범위로만 이루어진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김현철 외, 2012; 성은모 2013 재인용). 지역 청소년수련관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소재한 학교들이 와서 활동하게 되는 만큼, 인근 학교 교사들과 청소년수련관 담당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체험활동 인프라 발굴 및 체험활동 시행을 위한 자유학기제 전담 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역사회의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2013년 연구학교의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일부 원거리에 있는 체험활동처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인근 지역사회의 관공서, 대학, 박물관, 기업체 등의 체험 인프라 자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원거리 체험으로 인한 예산 부족 및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체험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각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연구학교의 컨설팅 결과 상당수의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인프라 발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을 도와 줄 전담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를 운영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사례에서도 성공적인 TY 프로그램의 계획 및 적용을 위해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이기봉, 2013 재인용). 교사들이 직접 체험처 발굴 및 협약 체결 등을 진행하는 노력을 지역 전담 코디네이터가 지원한다면, 교사들이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디네이터 양성에 있어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경험이 많은 청소년 활동 관련 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된다면 전문성 있는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 코디네이터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이기봉,

2013).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전반의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경기 신길중학교에서는 학교 인근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청, 연구원, 복지관, 음식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자유학기제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학부모 지원단 구축 및 학부모 일터 직업 체험 등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부모 모두가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유학기제를 취지에 맞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유학기제 중요성 인식 및 협력적인 문화 조성을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연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차원의 협업이 지역차원의 협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부처간, 공공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체험 인프라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주로 활용하게 되는 곳은 중앙기관보다는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산하 기관들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중앙기관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연계적 협력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국가는 2개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시·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시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씩 설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유진이, 2012). 현재 자유학기제 협업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소속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 이외에도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이 4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표 Ⅱ-13>. 국립 시설의 경우 자유학기제의 경우 자유학기제 협업기관 간의 월 1회 운영되는 정례회의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유학기제 학교를 위한 인프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산하 기관의 경우 중앙기관보다 정보가 부족하여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앙기관과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며, 또한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업무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있어 청소년 활동 유관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청소년활동 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의 부족, 대화와 소통의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는 학교대로 자유학기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소년활동 기관은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적 홍보, 자유학기제 학교와 청소년 활동 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Ⅲ 장

면담조사 결과분석

1. 면담조사 개요
2. 근거이론 자료분석 결과

제 Ⅲ 장

면담조사 결과분석[9)]

1. 면담조사 개요

1) 면담조사 및 근거이론 소개

면담조사의 주요목적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도사와 연구학교 교사의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요구 및 현재의 실태에 대한 이해이다. 자유학기제의 활동 주체(교사, 청소년지도사, 학생 등)의 인식과 활동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 면담조사의 주요내용은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활동,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지역 기관들과의 연계과정, 성공적 운영의 요인 등이다. 면담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표 Ⅲ-2>과 같다.

본 연구의 면담조사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근거이론은 Glaser & Strauss (1967)에 의해 사회학 분야에서 '양적' 연구과정을 통해 기존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방법과 비체계적 질적 연구에 대한 반성으로 탄생하였다. 근거이론의 주된 목적은 어떤 현상과 사건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와 현상간의 상호작용 및 주변 환경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실질적 이론(substantive theory)을 개발하는 것이다. 근거이론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주요 속성뿐만 아니라 현상을 둘러싼 핵심적 사회 맥락, 참여자의 심리적 과정 및 변화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다. 근거이론은 Glaser & Strauss (1967)에 의해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학자에 의해 45년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연구 상황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Strauss & Corbin (1998)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9) 제3장은 김영석(동의대학교 교수)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집필하였음.

2) 연구 참여자 개요 및 특성

연구 참여자는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지역체험활동을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관계자를 임의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첫째,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 자유학기제 관련 학교연계 경험이 있는 7개 기관 대상의 청소년지도사 8명을 선정하였다. 둘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서 지역체험활동 사례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8개 학교의 교사 9명과 함께 학부모 6명, 학생 15명을 선정하였다. 셋째, 지역체험기관(공공기관, 대기업, 개인사업장, 민간단체)으로서 자유학기제를 통한 현장진로교육 경험이 있는 현장 멘토 4명이 참가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주요특성은 <표 Ⅲ-1>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청소년기관 입장에서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을 활용한 학교연계 체험활동, 현장 중심의 자발적인 학교연계 체험활동, 공공기관 사업을 활용한 학교연계 체험활동,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체험활동을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지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진정한 체험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각 사례에서 성공요인을 찾고 면담조사 및 실태를 조사해서 현장에 근거한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Ⅲ-1 연구 참여자 소개

번호	이름	직위	특성 및 내용	유형	
1	이00	실무자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직업체험센터	ㅇ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지도자
2	김00	팀장	자발적 학교연계	ㅅ청소년수련관	
3	김00	팀장	자발적 학교연계	ㅂ청소년수련관	
4	박00	기관장	진로직업체험센터	ㅎ청소년문화의집	
5	박00	팀장	진로직업체험센터	ㅎ청소년문화의집	
6	강00	팀장	자발적 학교연계	ㅈ청소년수련관	
7	이00	팀장	창의적 체험활동	ㅅ청소년수련관	
8	김00	팀장	창의적 체험활동	ㅎ청소년수련원	
9	허00	담당교사	지역체험 중심활발 (학부모중심)	ㅅ중학교	학교 담당

번호	이름	직위	특성 및 내용	유형	
10	김00	연구부장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ㅈ중학교	교사
11	고00	상담교사	교육복자우선투자	ㄷ중학교	
12	김00	담당교사	수업개선 중심	ㅎ학교	
13	김00	학년부장	지역체험, 동아리 중심	ㅍ중학교	
14	박00	교감	지역체험 중심활발 (학부모중심)	ㄱ중학교	
15	고00	교감	지역체험 청소년수련관 연계활발 (교사중심)	ㅂ중학교	
16	박00	담당교사	수업개선 중심	ㄷ중학교	
17	한00	담당교사	중1진로선택집중학년제 운영 경험	ㅇ중학교	
18	학생 15명	중2 (중1때 경험 면담)	자유학기제 2013년 중1 2학기때 지역체험 경험 있음	ㅅ중학교 ㅂ중학교 ㅍ여중	학생
19	학부모 6명	자녀	자유학기제 2013년 중1 2학기때 지역체험 경험 있음	ㅅ중학교 ㅂ중학교	학부모
20	정00	사장	소규모 개인 사업장	ㅍ커피숍	기타 지역체험 기관
21	김00	팀장	종교단체, 민간단체, 구청	ㅈ푸드마켓	
22	설00	홍보교육 팀장	대기업	ㅂ주식회사	
23	손00	청소년관련 담당 팀장	공공기관	ㅇ경찰서	

3) 자료수집 방법

표 Ⅲ-2 면담 소개

주요 요소	내 용
면담 참여자 섭외과정	관련 사례조사 및 전문가를 통한 네트워크 활용 (경험, 유형, 소재지, 지역특성 순으로 고려)
면담 참여자 수	인터뷰 참여자 수 : 총 42명 (개별면담) 학교, 청소년시설, 지역체험기관 별로 1인 내외(21명) (FGI면담) 학생과 학부모(21명)
면담 참여자 특성 개요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활동 경험자 (교사/학부모/학생, 청소년지도사, 지역체험기관 현장멘토)

주요 요소	내 용
면담 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개별 및 FGI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1시간 30분 정도 2회 내외
면담 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음 후 전사, 기록
면담자	연구자

자료수집은 면대면 면담, 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전화 면담, 이메일 면담 등으로 보완하며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개별적 사례들의 특수성에 대해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관련 고민거리나, 개선방안, 정부 정책 등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방식은 반구조화된 인터뷰로 주요 질문 항목을 정한 뒤 그 항목을 중심으로 면접하는 과정에서 세부 질문을 수정·보완하면서 심화, 분화시켜나갔다. 면담 과정은 피면담자의 사전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현장기록 및 녹음된 자료는 전사하여 내용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trauss & Corbin (1998)에서 제안한 방법을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수집된 자료 속에 존재하는 인터뷰 대상자의 생각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개방코딩을 실시한다. 개방코딩(open coding)을 통해 수집된 코드들을 반복적 비교함으로서 일정한 범주들(categories)을 구성한다. 둘째, 축코딩(axial coding)을 위해 앞 단계에서 추출된 범주를 제안된 패러다임에 따라 조건, 행동/상호작용, 결과로 구분한다. 셋째,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위해 다양한 범주들이 통합의 기준이 되는 핵심(중심)범주를 선정하고, 이야기 윤곽(story line)과 그림 그리기를 통해 범주들의 통합을 시도한다.

2. 근거이론 자료분석 결과

1) 개방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은 수집된 자료 안에 존재하는 인터뷰 대상자의 연구의 주제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개방코딩의 과정은 반복적 비교분석법(Glaser & Strauss, 1967)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수집된 인터뷰 및 관찰 자료를 단어/어구/문장 수준에서 꼼꼼히 세분화한 후 각 단어/어구/문장에 존재하는 주요 개념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각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개념(사건, 의미, 활동 등)을 개념의 공통점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 '범주'(category)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범주들을 서로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범주의 특성에 따라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Ⅲ-3>과 같이 통해 총 31개의 하위범주와 13개의 상위범주가 만들어졌다.

표 Ⅲ-3 개방 코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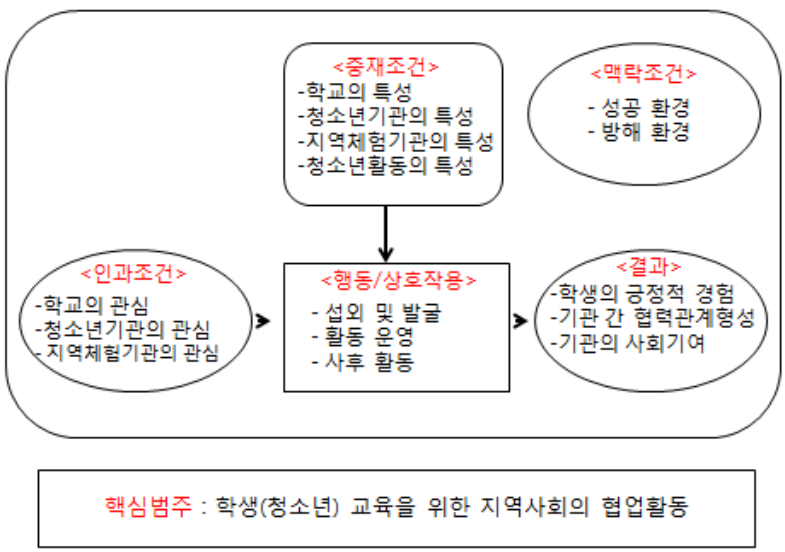
개방 코드(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받음,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적극적 연락, 교실 안에서 교사만 가르치는 것에 한계 느낌, 학부모의 찬성	자유학기제 필요성 공감	학교의 관심	인과조건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 교감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	학교장 및 교감의 의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교연계,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와의 연계, 자발적으로 찾아온 학생들이 속한 학교연계, 진로직업지원체험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연계, 공공기관사업을 통한 학교연계	학교와의 연계	청소년 기관의 관심	
청소년에 대한 사랑, 사명감, 학교수업과 연계한 대낮 청소년 시설 이용의 당위성, 학교의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식 향상, 청소년들이 갈곳없을 때 갈 수 있는 청소년전용시설로서 공간 제공, 청소년활동 전용시설 이용률 높임. 공간이 넓어 학생들 체험 많이 가능, 신청인원이 차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함	청소년기관의 사명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 교육기부목적,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공익적 목적	사회적 책임 추구	지역 체험기관의 관심	
기업의 장점 소개, 기업의 이미지 제고, 홍보처 필요, 학교와의 연계 추구	기관 홍보 추구		
교사의 적극성, 교장의 융통적 마인드, 교사의 자발적-적극적 노력, 진로부장의 세심함. 교실에서 지역사회로 교육의 장이 넓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	교사의 열정	학교의 특성	중재 조건
학부모 대상 학교의 적극적 홍보(학교설명회), 학교 교사간의 협력(1학년부장-교무부장-연구부장-진로부장), 학교장의 태도	학교의 긍정적 태도		
학부모의 청소년 활동 인식향상, 학부모님의 적극적 협조, 체험처 발굴, 학부모진로코치교육(학생인솔), 보조인솔자 역할, 부모와 자녀 팀을 이루어 참여, 지역체험 계획-체험-정리, 학부모지원단	학부모의 긴밀한 협력		
시설의 공간 문제 걸어 올만한 거리의 학교와 연계, 최소 두 학급 이상 참여 장소 고려, 장소 부족 시 인근 공공기관 활용, 청소년 시설의 공간적 매력, 걸어올 수 있는 거리의 학교와 연계됨, 공간이 넓어 학생들 체험 많이 가능, 신청인원이 차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함	기관의 공간 및 학교와의 거리	청소년기관의 특성	
진로교사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요구사항 프로그램에 반영함, 학교와 지역연계기간 다리 역할, 학교의 필요를 파악 후 지역사회 내 자원과 연계함, 학교와 운영협의회 구성, 학교와의 잦은 통화	학교의 필요사항 파악		
학교의 청소년시설의 인정-신뢰,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인정, 청소년수련관 역할 다시 봄, 영리업체의 진입을 막는 역할	청소년 전문시설로의 인정		

개방 코드(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지역연계기관 선정시 접근성 고려, 이동수단의 문제로 인한 접근성 고려, 이동시 어려움(교통편, 안전사고, 기관 사용 비용) 고려	기관의 공간 및 학교와의 거리	지역체험기관의 특성	
지역체험기관의 일정과 조율, 매출감소우려, 직원들의 불만 발생, 재료비 부담, 기관주관행사와 연결 추구	고유 활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학생입장에서 바꾸어서 생각, 학생의 멘토 역할, 석 달 동안의 준비, 학생의 의견 반영키 위해 최대한 노력, 학생들에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관심,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기쁨	기관장 및 직원의 태도		
직업체험 기관 선정 시 학생들 요구 반영, 학생들의 요구조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폰을 통한 학생들 서로간의 체험 비교, 왜 이러한 체험기관을 방문하며 내가 왜 이러한 체험활동을 하는지 학생입장에서 궁금함.	학생의 요구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활동의 특성	
연속적으로 지역기관이 참여가능한지 확인, 지속적 활동에 대한 고민	지속적 활동 필요		
진로직업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각자 시스템 이해, 학교와의 공감대 형성, 기존 사업으로 잦은 만남 가짐	지역의 사회적 자본 활용	성공 환경	맥락 조건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관련 교사·교장·기관장 대상의 설명회 및 연수, 지자체·교육청·부처의 협력지원, 교육청을 기반으로 한 정보구축 및 홍보, 정부 부처·지자체·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함께 지원하고 행정협조를 해줌(예,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체험활동을 예산, 인력, 행정적으로 함께 지원함	국가적 지원		
학교 교사의 정책에 대한불신, 재정지원중단, 정책이 없어짐, 일관성 없는 정책, 청소년지도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의 예산과 지원이 갑자기 중단됨	일관성 없는 정책적 문제	방해 환경	
청소년 시설이 일부 프로그램만 지원 요구, 강사정보만 요구,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냉담과 무시, 대등하지 않은 관계, 교육기관의 우월주의, 다양한 시도를 꺼림, 학생들을 컨트롤 하지 않음, 체험기관 현장멘토 및 체험기관의 운영자에 대한 권위주의적 태도	학교의 폐쇄적 태도		
지역기관이 방문학생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받지 못함, 학생들이 무엇 하는 시설인지 모른 채 방문, 체험 전 학교의 사전 설명이 없음	사전 준비 부족		
프로그램 개발 후 공문 통해 학교모집, 기존 청소년체험활동 연계 활용, 교육청에 공문 보냄, 학교교사대상 설명회 개최, 청소년기관의 홍보, 학교에서 연락이 옴	학교–청소년기관	섭외 및 발굴	행동/상호작용
교사의 직업체험기관 섭외, 학부모의 지역체험기관 섭외, 교육청의 발굴, 학교 선생님의 발굴, 다른 사업으로 생긴 네트워크 활용, 교육기부박람회참가, 인맥을 통한 발굴, 대규모 기관의 경우 사전답사,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	학교–지역체험기관		

개방 코드(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공공기관, 시민단체, 사업장 1:1로 발굴, 일터기업인을 강사로 섭외, 청소년시설의 적극적 섭외, 기존네트워크 활용, 지인활용, 방문부탁, 인터넷조사, 지역기관의 청소년기관 홈페이지 방문, 청소년기관 소개로 학생들 지역기관방문	청소년기관–지역체험기관		
진로교사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시설 담당자와의 만남, 진로교사와 청소년시설 담당자와의 실무자 협의회 구성, 지속적 대화 필요, 학교운영협의회, 청소년담당자의 학교의 잦은 방문, 학교–청소년기관 SNS	상호 접촉	활동 운영	
수련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발, 학교의 활동 모델에 맞게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기획		
학부모의 지역체험 현장순회지도, 학생들의 진로체험, 강사지원 받음, 수업연계 체험, 방과 후 외부 강사들의 교내 체험제공, 소규모 체험, 대규모 체험, 동아리 활동	현장 활동		
학교의 선물 전달, 학생 및 학교장의 감사편지, 학생들이 멘토에게 감사엽서를 작성함, 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현판전달, 감사인사, 놓치지 않도록 관리	인정	사후 활동	
학교교사, 학부모, 일터 멘토, 진로직업지원센터 간 간담회실시, 사후 평가회 개최, 설문 및 평가분석,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지역체험활동 사진 및 소감 전시회, 발표회	평가 및 성과물 전시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기획자 및 활동가 역할,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 향상, 외국인과의 접촉, 만나기 어려운 사람 만남, 매주 색다른 경험	다양한 체험활동 경험	학생의 긍정적 경험	결과
자기개발, 재능개발, 인성교육, 공동체 의식, 지역기관 멘토에게 교사에게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움, 더 밝아짐,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직업적 흥미 유도, 교실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움, 기존 친구들과 가까워짐, 재미있음, 몰랐던 친구 알게 됨, 마음이 편함	긍정적 활동/정서 경험		
진로에 대한 새로운 태도, 나의 장점 파악, 미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함, 진로 발견, 시험보다 나의 꿈 더 생각	진로에 대한 관심 증대		
학교상황 이해하게 됨, 학교의 요구 파악, 긍정적 인식, 학교와의 긴밀한 관계, 연계가 많아짐, 학교 연계 용이	학교–청소년기관	기관 간 긴밀한 관계형성	
지역체험기관의 지역체험 관련 요구 존재 이해,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해도 향상, 지역사회 내 필요한 자원 연계, 지역사회 조직이 넓어짐	청소년기관–지역체험기관		
청소년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해 및 활용증가, 긍정적 인식, 청소년의 변화하는 욕구 파악가능	청소년(학부모)–청소년기관		

2) 축코딩(axial coding)

축코딩의 목적은 개방코딩을 통해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여 연구현상의 구조('왜'에 대한 설명)와 과정('어떻게'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것이다. Strauss & Corbin(1998)은 축코딩 과정 중에 연구현상의 분석적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식적 구조 즉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이 패러다임은 조건(conditions), 행동/상호작용(actions/interactions), 결과(consequences)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조건'은 연구 현상의 구체적 상황, 쟁점,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단의 사건이나 일로서, 왜, 어떻게 사람이나 집단이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지 설명해준다. 조건은 연구현상이 발생한 원인의 역할을 하는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이 연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중재 조건', 연구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배경 또는 구조적 상황을 의미하는 '맥락 조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둘째, '행동/상호작용'은 연구참여자가 자신들이 마주친 상황이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보이는 구체적 행동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즉 행동/상호작용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가 수행하는 의도적 혹은 일상적 대응양상으로 연구참여자의 생각, 행동, 태도 등의 조정과정까지 포함된다. 셋째,'결과'는 연구참여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행동/상호작용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축코딩 결과는 [그림 Ⅲ-1]과 같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1】 축 코딩 결과

(1) 인과조건(causal conditions)

인과 조건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의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왜' 특정한 행동/상호작용의 양상이 나타났는 지와 관련되어 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는 원인은 크게 '학교의 관심', '청소년 기관의 관심', '지역체험기관의 관심'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일선 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 활동의 운영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연구학교 또는 희망학교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일선 학교의 경우 학교장 및 교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기관의 경우 기존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연계된 학교의 요청을 받아 들여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요청과 관계없이 청소년 기관의 담당자가 인식하는 직업적 사명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지역체험기관의 경우 기관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와 기관을 홍보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유학기제 활동을 시작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2) 중재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중재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 조건을 의미한다. 중재 조건은 인과적 조건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순화된 형식으로 표출되는데 매개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 조건으로 '학교의 특성', '청소년기관의 특성', '지역기관의 특성, '청소년활동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먼저 학교의 경우 동일한 연구/희망학교라 할지라도 개별 교사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자발적 노력을 보이는 지, 학교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위한 협력활동을 원활하게 하였는지, 학부모들과 얼마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는지가 자유학기제 활동의 정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청소년기관의 경우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수록, 연계된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학교의 필요사항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을수록,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전문시설로 인정받을수록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체험기관의 경우 역시 적절한 기관 내 활동 공간이 확보되고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그리고 기관장 및 직원들이 청소년 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자유학기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체험 기관의 경우 자유학기제 활동이 사업 운영과 같은 자신들의 고유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내용이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을수록, 단 기간의 체험이 아닌 지속적 활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일선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보다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맥락 조건(contextual conditions)

맥락 조건은 참여자들의 행동/상호작용이나 연구 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배경 또는 구조적 상황을 의미한다. 맥락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나 중재 조건을 통해 찾을 수 있으며, 인과적 조건과 중재 조건은 맥락 조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하게 된다. 자유학기제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 조건으로는 '성공 환경'과 '방해 환경'이 도출되었다. 먼저, 성공 환경으로는 기존의 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으로 학교-청소년기관-지역사회기관 간에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국가 및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기존 청소년 활동 과련 정책의 일관성 없는 진행, 일부 학교가 청소년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폐쇄적 태도, 학교와 학생의 사전준비 부족 등이 부정적 맥락 조건으로 조사되었다.

(4) 행동/상호작용

'행동/상호작용'은 연구 참여자가 자신들이 마주친 상황이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앞에서 제시한 조건 속에서 연구와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이 구체적으로 보인 의도적 혹은 일상적 대응양상을 의미한다. 행동/상호작용은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대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갖는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의 교류과정을 통한 생각의 타협과 조정과정도 포함된다.

자유학기제의 주체인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체험기관이 보인 활동 및 상호작용은 크게 '섭외 및 발굴', '활동 운영', '사후활동'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섭외 및 발굴 단계에서는 학교가 먼저 청소년기관과 지역기관에 자유학기제 활동을 제안하는 경우, 학교가 직접 지역체험기관에 연락하여 섭외하는 경우, 청소년기관이 지역체험기관과 먼저 연계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후 이를 일선 학교에 제안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활동 운영과정은 실질적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체험기관 간의 방문 및 협의회 활동 등을 통한

상호 접촉, 각 기관간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활동, 청소년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현장 활동운영으로 구분된다. 셋째, 사후 활동으로는 학교 측에서 직업 체험 및 지역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한 지역체험기관에 일정한 감사를 표시하는 인정과 관련한 활동과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이들 활동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활동 등이 있었다.

(5)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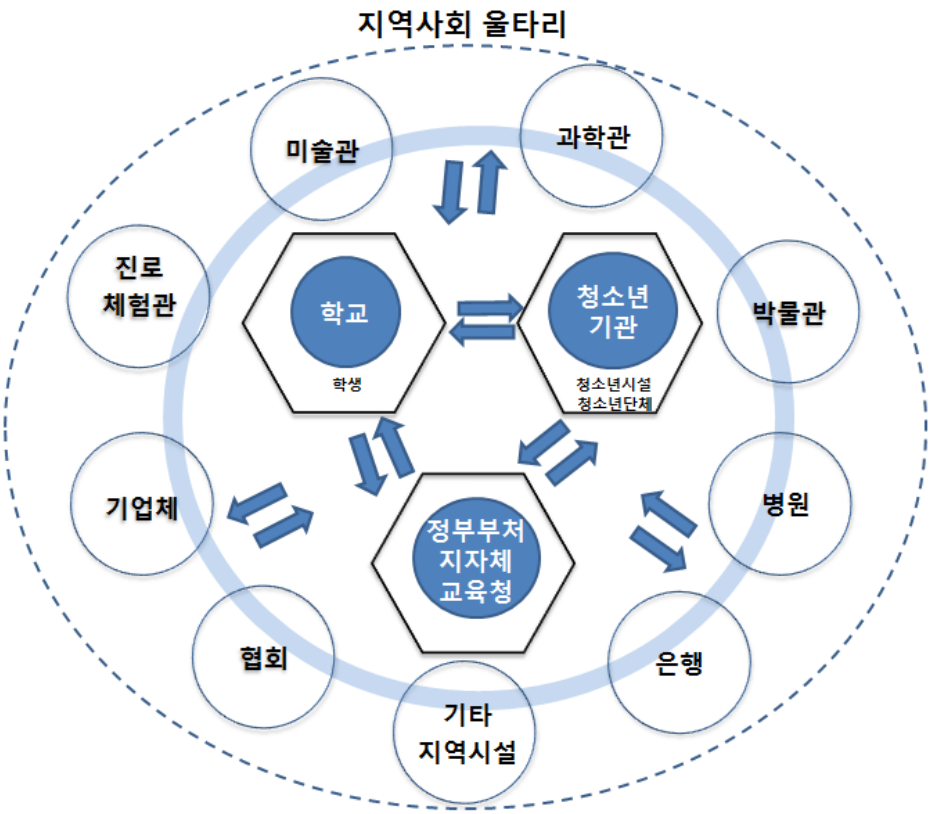
결과는 행동/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행동/상호작용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의미한다. 결과는 연구와 관련된 개인 및 조직에 의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의 경우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발생된 결과는 '학생의 긍정적 경험'과 '기관 간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및 교실 안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직업적 흥미 갖기, 공동체 의식 함양, 편한 마음 등 긍정적 활동 및 정서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미래에 갖게 될 직업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기관인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체험 기관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간의 이해도가 높아지며 연계가 용이하게 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통해 그동안 청소년 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청소년 기관의 존재 및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자유학기제 활동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선택코딩은 축 코딩에 살을 붙여 최종적으로 연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실질적 이론(substantive theory)'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선택코딩의 주요목적은 축 코딩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범주들을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중심으로 통합시켜 연구의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핵심 범주는 '학생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활동'으로 선정되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물론 이 속담은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주지만 아울러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학교나 가정만의 몫이 아닌

온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학생 및 학부모, 학교 교사, 청소년 기관, 청소년지도사, 지역체험기관은 자유학기제 활동을 학생(청소년)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보다 체계적으로 일을 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택코딩과 관련한 결과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학생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 활동

선택코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관은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비교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 기관은 그동안 잘 인식하지 못하였던 학교의 교무 및 연구 활동 등을 보다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학교와 대등한 관계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교육이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울타리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학교 교사는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청소년기관과 청소년 지도사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지역체험기관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그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주지 못했던 소중한 경험임을 인정하였다.

셋째, 지역체험기관은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일선 학교 및 청소년기관과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의 기관 내에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일원인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의 협업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와 청소년기관을 다각적 협력체제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 지자체에서 예산, 전담조직 인력, 홍보, 공문 등 행정협조 등을 다각적으로 함께 지원할 때에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협업 활동이 신뢰롭게 잘 이루어졌다.

제 Ⅳ 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

제 Ⅳ 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10)]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설문조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최우선 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제언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따라서 설문문항의 형식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중요도와 실천도에 대한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조사도구의 개발은 문헌연구, 현장워크숍, 현장관찰, 면접조사 결과와 정책협의회를 통한 초안을 작성한 후 설문개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대상은 첫째, 전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전수조사로 현재 80개 학교당 4명의 담당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web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활동 시설(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중심) 청소년지도사 24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를 하였다. 이후 80개 학교의 204명의 교사, 100개 청소년활동시설의 271명 청소년지도사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10) 제4장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그림 Ⅳ-1】 설문 조사 개요

2) 설문지 개발과정

설문 조사영역은 ① 전문인력(전문성확보, 실무역량육성) ② 프로그램(개발, 운영, 평가) ③ 연계협력(체험기관 인센티브, 협력체계) ④ 기반구축(제도마련) ⑤ 인적사항/배경변인이다. 8개의 소영역 별로 세부 문항은 33문항이며, 배경변인은 7문항이다. 전문인력은 7문항, 프로그램은 14문항, 연계협력은 6문항, 기반구축은 9문항, 배경변인은 7문항이다.

설문지 개발과정은 문헌고찰과 워크숍,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1차 설문지 초안을 만들고 청소년지도사용, 담당 교사용으로 2가지 종류로 개발하였다. 이후 설문지 검토를 위한 전문가회의와 설문지 개발 워크숍,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의 영역별 하위범주 및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표 Ⅳ-1>. 영역은 연구진이 정책제언에 필요한 영역으로 문헌과 연구진 협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1) 설문지 초안 개발

첫째,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문헌고찰과 둘째, 현장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사례분석, 셋째, 학교와 청소년기관, 기타 지역체험기관을 포함하여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체험기관 관련자 총40명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였다.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설문문항의 형식은 IPA 기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중요도와 실천도에 대한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2) 전문가의견조사 및 설문지 개발 워크숍 개최

첫째, 교사 대상의 설문지 내용전문가로서 관련 학계, 현장 교사, 장학사, 통계전문가, 연구진 등 9명의 검토를 위한 면접조사와 설문지 개발 워크숍개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web 설문지 제작을 위하여 전문가와 문항의 재배치, 순서, Web 설문지 양식 등에 대한 실무회의를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지도사 대상의 설문지 내용전문가로서 관련 학계, 현장 청소년지도사, 통계전문가, 연구진 등 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설문지 개발 워크숍개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사목적과 관련하여 설문문항의 내용타당도 및 분석기법과의 적합성, 설문문항의 배열 및 디자인 등을 수정·보완하였다.

(3) 예비조사

교사 5명과 청소년지도사 5명을 이틀에 걸쳐서 설문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2번의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지 전체의 내용타당도, 문항의 용어, 답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설문지 응답 소요시간은 교사 약7분에서 12분, 청소년지도사 약5분에서 11분으로 나타났다. 문항은 36문항에서 33문항으로 최종 수정되었고 문항의 용어와 답지의 내용도 현장의 현실과 맞게 더 구체적 용어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표 Ⅳ- 1 설문지 개발과정 및 예비조사 개요

구분	일시	조사대상	설문응답 소요시간 및 내용	조사방법
교사	6월17일	교사 5명 (자유학기제 관련 경험자)	약 7분에서 12분/ 안면타당도	집단 조사
	7월2일	교사2명 (예비조사 후 수정·보완한 설문지로 2차 예비조사)	약10분/ 안면타당도	개별 조사
청소년지도사	6월18일	청소년지도사 6명 (학교연계 관련 경험자)	약 5분에서 11분/ 안면타당도	집단 조사
	7월3일	청소년지도사2명 (예비조사 후 수정·보완한 설문지로 2차 예비조사)	약10분/ 안면타당도	개별 조사

(4) 최종 설문지 확정

최종 설문지는 <표 Ⅳ-2>와 같이 4개 영역, 8개 소영역, 33문항과 배경변인 7문항으로서 청소년지도사용과 교사용의 2가지 종류로 개발되었다. 33문항은 공통 내용문항이며, 배경문항은 조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Ⅳ- 2 설문지 영역별 문항(청소년지도사/교사)

영역	소영역	세부항목
전문 인력	전문성 확보	1)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장(기관장) 연수 2) 학교(지역)연계 전담 인력의 채용 3) 학교(지역)연계 담당자의 업무 인정 4) 학교(지역)연계 해당 학교의 업무내용 및 방향의 지속성
	실무역량 육성	15) 행정기관에서 학교(지역)체험활동 운영을 컨설팅 할수있는 전문가육성 16) 자유학기제에 관한 실무자 연수 실시 17) 지역체험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할 전담부서 설치 33)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 양성 및 운영 시스템 마련
프로 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발	9) 청소년 지역체험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 12) 지역체험 활동 시 참가 청소년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30)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영역	소영역	세부항목
개발, 평가	프로그램 운영	7) 청소년 지역체험 인솔도우미 봉사단 운영 8) 청소년 지역체험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 11) 지역체험활동 참가 청소년을 위한 사전교육 운영 14) 지역체험활동 결과에 대한 전시회나 발표회 운영 18) 지역체험기관의 교육멘토 역할에 대한 사전 협의 25) 지역체험 단체활동 시 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 26) 지역체험 시 입장료 지원 또는 할인
	프로그램 평가	10) 학교(기관) 평가시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반영 강화 13) 지역체험활동 효과에 대한 평가실시(예, 평가회의, 만족도 등) 29)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 31) 학교–체험활동기관과 프로그램 공동 평가 실시
연계 협력	체험기관 인센티브	5) 참여한 청소년지역체험기관에 대한 표창, 명단공개, 감사패, 감사편지 등 인센티브 부여 6) 청소년 지역체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수여 21)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협력체계	19) 청소년 지역체험기관 사업 MOU 협정 20) 행정 권역별 학교/청소년체험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기반 구축	제도마련	22) 청소년(학생)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 23)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 24) 지역체험활동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7)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 설립 확대 28)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 추가 배정 32) 체험활동 안전대책마련
배경 변인 (청소년지도사)		1)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 2) 응답자 직위(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기타) 3)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 유무 4) 학교연계 인식정도 5) 학교연계 어려운 이유 6) 기관 지역규모(16개 광역시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기관주소) 7) 기관규모(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인원수 등 대·중·소규모)
배경 변인 (교사)		1) 자유학기제 중점 추진영역(수업방법개선, 동아리활동·선택프로그램(교내), 진로활동(교내), 지역체험활동(진로·직업·동아리활동·선택프로그램), 기타) 2)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경험 유무 3) 지역체험활동 인식정도 4)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인식정도 5)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6) 학교 지역규모(16개 광역시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학교주소) 7) 학교규모(자유학기제 해당학년 학급수, 학급별 인원수 등 대·중·소규모)

2.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특성은 청소년지도사(100개 청소년기관, 271명)와 교사(자유학기제 연구학교 80개중 74개 학교, 204명)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지도사 응답자의 특성은 청소년기관의 규모, 지역규모, 청소년기관의 유형, 응답자의 직위,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교사 응답자의 특성은 학교규모, 지역규모,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표 Ⅳ-3>.

표 Ⅳ-3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청소년지도사 (100개기관)	청소년지도사 인원수 (청소년기관 규모)	5명 미만	53	20.9
		5-9명	86	34.0
		10-19명	81	32.0
		20명 이상	33	13.0
		합계	253	100.0
	지역규모[11]	대도시	108	47.4
		중소도시	77	33.8
		읍면지역	43	18.9
		합계	228	100.0
	현재 근무 중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	청소년수련관	141	52.6
		청소년문화의집	63	23.5
		청소년수련원	26	9.7
		기타(청소년단체, 유스호스텔 등)[12]	38	14.2
		합계	268	100.0
	응답자의 직위	기관장	4	1.5
		중간관리자(청소년지도사)	81	30.3
		실무자(청소년지도사)	171	64.0
		기타	11	4.1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67	100.0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	경험이 있다	224	83.6
		경험이 없다	44	16.4
		합계	268	100.0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	매우 중요하다	146	54.7
		중요하다	112	41.9
		중요하지않다	9	3.4
		합계	267	100.0
교사 (74개 학교)	학교규모[13]	대규모	55	27.2
		중규모	101	50.0
		소규모	46	22.8
		합계	202	100.0
	지역규모	대도시	97	48.0
		중소도시	43	21.3
		읍면지역	62	30.7
		합계	202	100.0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 횟수	없음	2	1.0
		학기당 1-2회	34	16.7
		학기당 3-5회	86	42.2
		학기당 6-10회	38	18.6
		월2회 이상	16	7.8
		주1회 이상	18	8.8
		주2회 이상	10	4.9
		합계	204	100.0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매우 중요하다	117	57.4
		중요하다	84	41.2
		중요하지않다	3	1.5
		합계	204	100.0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	이름만 들어봤다	32	15.7
		처음 듣는다	2	1.0
		이용해 본 적이 있다	147	72.1
		자주 이용한다	23	11.3
		합계	204	100.0

11) 청소년기관의 **규모**는 청소년지도사 인원수를 기준으로 5면 미만, 5-9명, 10-19명,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함. 청소년기관이 위치한 **지역규모**는 근무지역의 주소를 기입한 내용을 데이터클리닝을 한 후 자료를 가공하여 recode 하였음. 지역규모의 기준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현황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로 제시된 기준을 사용하였음.

12) 기타는 청소년단체,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자유센터 등으로 나타났음.

13) **학교규모**는 대규모(한 학년이 평균 8학급이상), 중규모(한 학년 평균 4-7학급), 소규모(한 학년이 평균 1-3학급)을 기준으로 구분함. **지역규모**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현황의 지역규모 제시된 내용을 사용하였음. 기준에 대한 출처는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참고함.

(1) 응답자의 특성 분석(청소년지도사)

100개의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27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지도사 인원수(청소년기관의 규모)에 대한 응답결과는 5-9명(34.0%), 10-19명(32.0%), 5명 미만(20.9%), 20명 이상(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대도시(47.4%), 중소도시(33.8%), 읍면지역(18.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 중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은 청소년수련관(52.6%), 청소년문화의집(23.5%), 기타(14.2%), 청소년수련원(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청소년단체, 유스호스텔 등이다. 응답자의 직위는 실무자(청소년지도사)(64.0%), 중간관리자(청소년지도사)(30.3%), 기타(4.1%), 기관장(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사 응답자의 94.3%가 실무자나 중간관리자임을 알 수 있다.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는 경험이 있다(83.6%), 경험이 없다(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매우중요하다/중요하다(96.6%), 중요하지 않다(3.4%)로 나타나 거의 대다수가 학교연계 청소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응답자의 특성 분석(교사)

8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규모에 대한 응답결과는 중규모(한 학년 평균 4-7학급)가 50.0%, 대규모(한 학년이 평균 8학급 이상)가 27.2%, 소규모(한 학년이 평균 1-3학급)가 2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대도시(48.0%), 읍면지역(30.7%), 중소도시(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 횟수는 학기당 3-5회(42.2%), 학기당 6-10회(18.6%), 학기당 1-2회(16.7%), 주1회 이상(8.8%), 월2회(7.8%), 주2회 이상(4.9%), 없음(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정도는 매우 중요하다(57.4%), 중요하다(41.2%), 중요하지 않다(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중요하다/중요하다는 인식이 98.6%, 중요하지않다는 1.5%로 응답자 대부분이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는 이용해 본 적이 있다(72.1%), 이름만 들어봤다(15.7%), 자주 이용한다(11.3%), 처음 듣는다(1.0%)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설문 응답자의 기관 및 지역 특성 (청소년지도사, 교사)

첫째, 청소년지도사 응답자의 청소년기관 및 지역 특성은 서울지역은 14개구의 22개 청소년기관에서 74명의 청소년지도사가 응답하였다. 부산지역은 5개구(5개 청소년기관, 9명), 대구지역은 3개구(3개 청소년기관, 10명), 인천지역은 2개구 1개군(4개 청소년기관, 9명), 광주지역은 2개구(2개 청소년기관, 4명), 대전지역은 2개구(2개 청소년기관, 4명), 울산지역은 1개군(1개 청소년기관, 5명), 경기지역은 15개시(21개 청소년기관, 64명), 강원지역은 4개시 2개군(6개 청소년기관, 9명), 충북지역은 1개구 1개군(2개 청소년기관, 2명), 충남지역은 1개구 1개군(2개 청소년기관, 5명), 전북지역은 3개시 2개군(5개 청소년기관, 7명), 전남지역은 4개시 2개군(6개 청소년기관, 6명), 경북지역은 3개시(5개 청소년기관, 7명), 경남지역은 3개시 2개군(5개 청소년기관, 7명), 제주지역은 2개시(11개 청소년기관, 17명)로 총 100개의 청소년기관, 271명의 청소년지도사 중 35명이 무응답하였고 236명의 청소년지도사가 응답하였다.

둘째, 교사 응답자의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은 서울지역은 5개 구의 5개 학교에서 11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부산지역은 2개구 1개군(4개 학교, 14명), 대구지역은 3개구 1개군(4개 학교, 14명), 인천지역은 4개구(4개 학교, 13명), 광주지역은 3개구(4개 학교, 13명), 대전지역은 5개구(6개 학교, 18명), 울산지역은 3개구 1개군(4개 학교, 14명), 세종지역은 1개시(2개 학교, 3명), 경기지역은 4개시(7개 학교, 23명), 강원지역은 1개시 3개군(4개 학교, 9명), 충북지역은 1개시 2개군(4개 학교, 7명), 충남지역은 2개시 3개군(5개 학교, 12명), 전북지역은 2개시 1개군(3개 학교, 6명), 전남지역은 1개시 5개군(6개 학교, 13명), 경북지역은 3개시 2개군 (5개 학교, 9명), 경남지역은 3개시 2개군(5개 학교, 17명), 제주지역은 2개시(2개 학교, 6명)로 총74개 학교, 204명의 교사 중 2명이 무응답하였고 202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응답한 청소년지도사(236명)의 청소년기관 지역분포는 16개 광역·자치도시의 시군구에서 대도시(47.4%), 중소도시(33.8%), 읍면지역(18.9%)으로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다<표 Ⅳ-4>. 응답한 교사(202명)의 학교 지역분포는 16개 광역·자치도시의 시군구에서 대도시(48.0%), 중소도시(21.3%), 읍면지역(30.7%)으로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Ⅳ-5>.

표 Ⅳ-4 응답자의 청소년기관 및 지역 특성(청소년지도사)

16개 광역·자치도시	시군구	청소년기관 명	기관수(개)	지도사(명)
서울	14개구	ㄱㄷ청소년수련관, ㄱㅊ청소년수련관, ㄷㅂㅅ마을청소년수련원, ㄷㄷㅁ청소년수련관, ㅁㅊ청소년수련관, ㅁㅍ청소년문화의집, ㅁㄷ청소년수련관, ㅂㄹㅁ상담센터, ㅂㄹㅁ청소년수련관, ㅅㅇ유스호스텔, ㅅㅇ청소년수련관, ㅅㄷ청소년수련관, ㅅㅂ청소년수련관, ㅅㅍ청소년수련관, ㅇㅅ청소년수련관, ㅈㄹㄱ시설관리공단, ㅈㄱ청소년수련관, ㅊㄷ청소년문화의집, ㅊㄷ청소년수련관, ㅇㅇ기관, ㅇㅇ기관, ㅎㅇ청소년문화의집,	22	74
부산	5개구	ㄱㄷ청소년수련관, ㄱㄹㅅ청소년수련원, ㅂㅅㅅ청소년활동진흥센터, ㅇㅈ청소년수련관, ㅎㅇㄷ청소년문화의집	5	9
대구	3개구	ㄷㄱ청소년문화의집, ㄷㄱ청소년수련원, ㅅㅅㄱ청소년수련원	3	10
인천	1개군 2개구	ㄱㅎ청소년문화의집, ㄱㅎ청소년수련관, ㅂㅍㄱ청소년수련관, ㅇㅅㄱ청소년수련관	4	9
광주	2개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ㅇㅇ기관	2	4
대전	2개구	ㄷㅅ청소년문화의집, ㄷㄱ청소년자연수련관	2	4
울산	1개군	ㅇㅈㄱ청소년수련관	1	5
경기	15개시	ㄱㅇㅅ청소년수련관, ㄱㄱ청소년수련관, ㄱㅈㄷ청소년문화의집, ㄱㄹ청소년수련관, ㄱㅅ청소년수련관, ㄱㄱ청소년문화의집, ㄴㄹ청소년문화의집, ㄴㅇㅈㅅ청소년수련관, ㅁㅇ청소년수련관, ㅁㅂㅅ청소년수련원, ㅂㅊㅅ청소년수련관, ㅅㅎ청소년수련관, ㅅㅇ청소년육성재단, ㅅㅎ청소년문화의집, ㅇㅅㅅ청소년수련관, ㅇㅅ청소년수련원, ㅇㄹ청소년문화의집, ㅇㅇㅅ청소년수련관, ㅈㅇㄴㄹ청소년수련원, ㅈㅇ청소년문화의집, ㄱㄹㅈㅇ청소년디딤센터	21	64
강원	4개시 2개군	ㄱㅈ청소년문화의집, ㄱㄹㅍㅊ청소년수련원, ㅇㄷ청소년문화의집, ㅊㅇ종합문화복지센터, ㅊㅊㅅ청소년수련관, ㅇㅇ기관	6	9
충북	1개구 1개군	ㅁㅍ청소년문화의집, ㅅㅇ청소년문화의집	2	2
충남	1개구 1개군	ㄱㄹㅈㅇ청소년수련원, ㅎㅅㄱ청소년수련관	2	5
전북	1개시 2개구 2개군	ㅁㅈ청소년수련관, ㅇㅅ청소년문화의집, ㅎㅈ청소년문화의집, ㅇㅅㅅ청소년문화의집, ㅈㅇ청소년수련관	5	7
전남	4개시 2개군	ㄱㅎ우주체험센터, ㄴㅈㅅ청소년수련관, ㅁㅇㄱ청소년수련관, ㅅㅊㅅ청소년수련원 ,ㅇㅅㅅ청소년문화의집, ㅇㅇ기관	6	6
경북	3개시	ㅁㄱㅅㅈ유스호스텔, ㅅㄷ청소년수련관, ㅇㄷ청소년문화센터	3	4
경남	3개시 2개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ㄱㅎ청소년문화의집, ㅇㅇ기관, ㅇㅇ기관, ㅇㅇ기관	5	7
제주	2개시	ㄱㅇ청소년문화의집, ㄷㅊ청소년수련관, ㅅㄱㅍㅅ청소년문화의집, ㅅㅅ청소년문화의집, ㅅㅅ청소년문화의집, ㅇㄷ청소년문화의집, ㅍㅅ청소년문화의집, ㅇㄹㄷ청소년문화의집, ㅈㅈYMCA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ㅈㅈ청소년수련관, ㅎㄹ청소년문화의집	11	17
청소년기관수 합계			100	
무응답 (oo기관은 지역 응답자 중 기관명은 밝히지 않은 것임)				35
합계				**271**

표 Ⅳ-5 응답자의 학교 및 지역 특성(교사)

17개 광역·자치도시	시군구	학교명	학교수 (개)	교사 (명)
서울	5개구	ㄱㅈ중학교, ㅅㅅ중학교, ㄷㅈ중학교, ㅈㅅ중학교, ㄷㅅ중학교	5	11
부산	2개구 1개군	ㅂㅅㅈㅇ중학교, ㄱㅇ여자중학교 ㅂㅅㅇㅅ중학교, ㅂㅇ중학교	4	14
대구	3개구 1개군	ㅅㄱ중학교, ㅊㄴ중학교, ㅅㅇ중학교, ㄷㅂ중학교	4	14
인천	4개구	ㅂㅇㅊ여자중학교, ㅇㅊㅅㄹ중학교, ㅂㅍㄷ중학교, ㅇㅈ중학교	4	13
광주	3개구	ㅅㅇ중학교, ㅇㅇ중학교, ㄱㅈㅎㅈ중학교, ㄱㅈㅅㅅ중학교	4	13
대전	5개구	ㅎㄷ중학교, ㄱㅇ중학교, ㄷㅈㅅ중학교, ㄷㅈㅇㅍ중학교, ㄷㅈㅇㅅ중학교, ㅎㄷ중학교	6	18
울산	3개구 1개군	ㄷㅅ중학교, ㅇㅇ중학교, ㅇㅇ중학교, ㅇㄱ중학교	4	14
세종	1개시	ㅈㅊㅇ여자중학교, ㅈㅊㅇ중학교	2	3
경기	4개시	ㅅㅅ중학교, ㅇㅈ중학교, ㅅㄱ중학교, ㅊㅂ중학교, ㅂㅇㅊ중학교, ㅅㄱ중학교, ㅊㅂ중학교	7	23
강원	1개시 3개군	ㅇㄱ중학교, ㅅㅂ중학교, ㅎㅌ중학교, ㅎㅅ중학교	4	9
충북	1개시 2개군	ㄱㅅㅇㅅ중학교, ㅇㅊ중학교, ㅅㅎ중학교, ㅈㅇ중학교	4	7
충남	2개시 3개군	ㄱㅅ중학교, ㅇㅁ중학교, ㅅㅁ중학교, ㅊㅇㅅㅅ중학교, ㅌㅇ여자중학교	5	12
전북	2개시 1개군	ㅇㅂ중학교, ㅈㅍ중학교, ㅅㄷ중학교	3	6
전남	1개시 5개군	ㅅㅎㅅ중학교, ㄱㅅ중학교, ㅅㅊㅇㅅ중학교, ㅊㅅ중학교, ㅅㄱ중학교, ㅎㅅㄷㅁ중학교	6	13
경북	3개시 2개군	ㅅㅅ중학교, ㅁㄱㅅ중학교, ㅈㅂ중학교, ㅂㅅ중학교, ㅍㅎㅈㅊ중학교	5	9
경남	3개시 2개군	ㅊㄷ중학교, ㄱㅈㅈㅇ중학교, ㄱㅊ여자중학교, ㄱㅎㄷㄷ중학교, ㅎㄷㅈㅇ중학교	5	17
제주	2개시	ㅅㄱㅈㅇ여자중학교, ㅎㄹ중학교	2	6
응답한 학교			74	202
무응답				2
합계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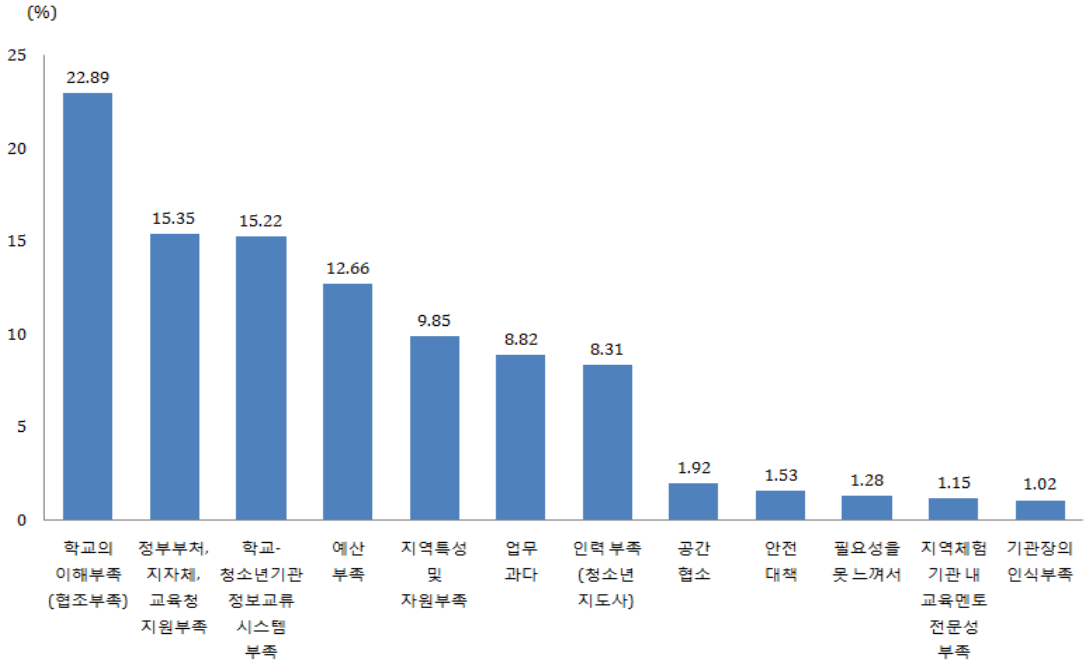
3)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2순위)와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영역(1순위, 2순위)의 조사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응답은 순위별로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 2순위)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의 비협조(1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의 지원부족(2순위), 학교-청소년기관의 정보교류 시스템부족(3순위), 예산부족(4순위),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5순위), 업무과다(6순위), 인력부족청소년지도사의 인력부족(7순위), 공간협소(8순위), 안전대책(9순위), 필요성을 못 느껴서(10순위), 지역체험기관 내 교육멘토 전문성부족(11순위), 기관장의 인식부족(12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 현장의 청소년기관에서는 학교연계 청소년활동을 위해서 예산부족보다도 당장 학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마련이 더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상호이해와 홍보, 신뢰구축을 통한 행정협조, 정보교류, 신뢰구축 홍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중·단기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라 보여 진다. 이는 차후 논의될 중요도에 가중치를 둔 우선순위 분석결과로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예산배정, 법령, 학교연계 체험활동 지원시스템 마련, 공동실무협의회 등으로 나타난 것과도 연결하여 논의할 수 있다. 일선 현장에서 학교연계가 어려운 이유를 1순위, 2순위로 다중응답분석을 한 결과임으로 가장 먼저 체감하는 요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교사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 2순위)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1순위), 업무과다(2순위), 예산부족(3순위), 지역체험기관의 교육멘토 전문성부족(4순위),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지원부족(5순위), 안전대책(6순위), 지역체험기관의 비협조(7순위),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 부족(8순위), 청소년기관의 인력부족 및 공간협소(9순위), 학교 인력부족(10순위), 필요성을 못 느껴서(11순위), 기관장의 인식부족(12순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지역특성(교통불편, 먼거리 등)과 지역자원부족, 업무과다, 예산부족을 체감하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는 뒤쪽에 논의될 중요도에 가중치를 둔 우선순위 분석결과로 전담인력,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예산배정, 교육멘토 양성이 제시된 것과도 연결하여 논의할 수도 있다. 일선 현장에서 학교연계가 어려운 이유를 1순위, 2순위로 다중응답분석을 한 결과임으로 가장 먼저 체감하는 요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6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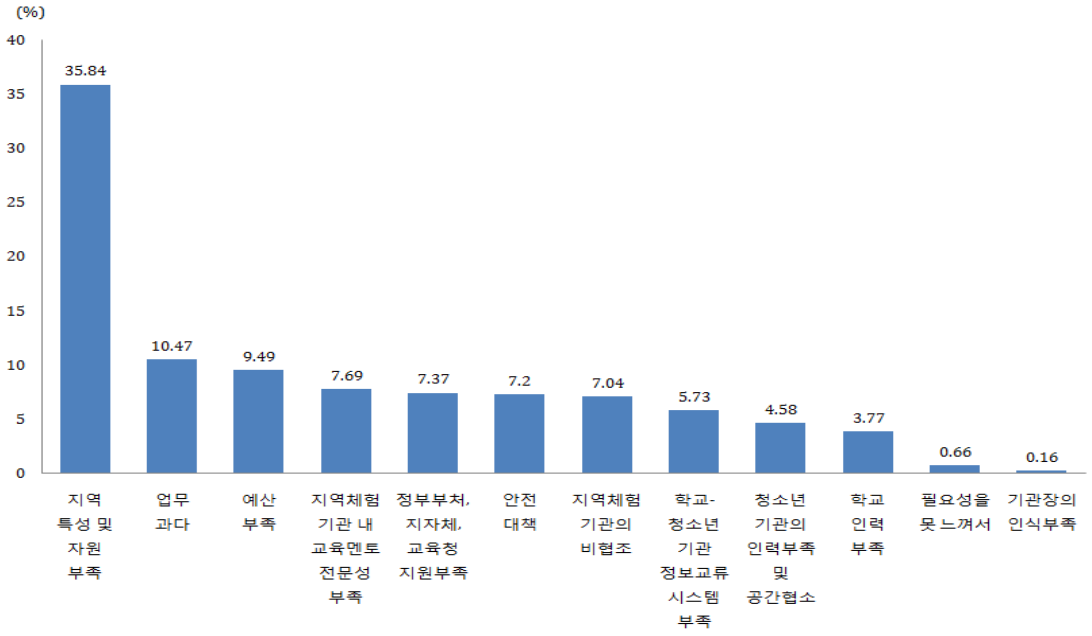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77	5	9.85
안전대책	12	9	1.53
업무과다	69	6	8.82
필요성을 못 느껴서	10	10	1.28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지원부족	120	2	15.35
인력 부족(청소년지도사)	65	7	8.31
학교의 이해부족(비협조)	179	1	22.89
예산부족	99	4	12.66
공간협소	15	8	1.92
지역체험기관 내 교육멘토 전문성 부족	9	11	1.15
기관장의 인식부족	8	12	1.02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 부족	119	3	15.22
합계	782		100%



【그림 Ⅳ-2】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표 Ⅳ-7 교사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구분	빈도	순위	비율(%)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219	1	35.84
안전대책	44	6	7.20
업무과다	64	2	10.47
필요성을 못 느껴서	4	11	0.66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지원부족	45	5	7.37
학교 인력 부족	23	10	3.77
지역체험기관의 비협조	43	7	7.04
예산부족	58	3	9.49
청소년기관의 인력부족 및 공간협소	28	9	4.58
지역체험기관 내 교육멘토 전문성 부족	47	4	7.69
기관장의 인식부족	1	12	0.16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 부족	35	8	5.73
합계	6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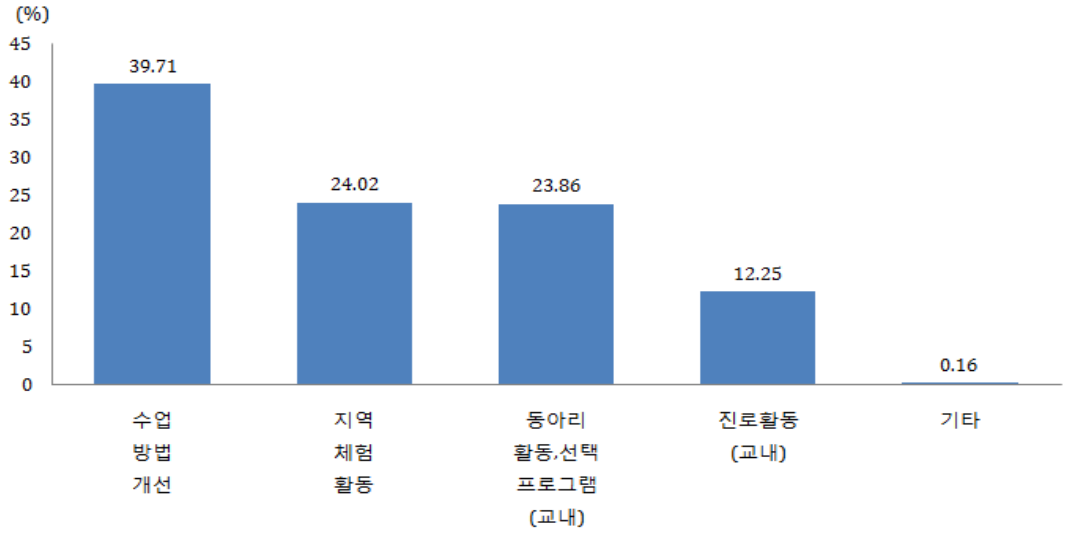


【그림 Ⅳ-3】교사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셋째, 교사의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영역1순위, 2순위)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보면, 수업방법개선(39.71%), 지역체험활동(24.02%),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교내)(23.86%), 진로활동(교내)(12.25%), 기타(0.16%)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방법 개선이 가장 많았지만 약 40%에 못 미치는 비율로 나타났으며, 지역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도 약 25% 정도로 함께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동안 편의상 학교는 수업개선 영역에서만 대부분 활동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실제로는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치우치는 경향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8 교사의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 영역(다중응답분석)

구분	빈도	순위	비율(%)
수업방법개선	243	1	39.71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교내)	146	3	23.86
진로활동(교내)	75	4	12.25
지역체험활동	147	2	24.02
기타	1	5	0.16
합계	612		100%



【그림 Ⅳ-4】 교사의 자유학기제 중점 추진영역(다중응답분석)

4) 기관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검증(학교, 청소년기관)

기관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5 미만의 기대빈도가 20% 미만으로 유의도를 신뢰할 수 있는 항목들에 한해서 χ^2 검증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른 응답의 차이, 둘째,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응답의 차이, 셋째,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응답의 차이, 넷째,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응답의 차이, 다섯째, 청소년기관의 유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첫째, 학교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IV-9), 학교규모에 따른 차이로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중점추진 영역(1순위),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정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χ^2=8.723*, df=2)가 나타났다. 학교규모에 따른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가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소규모(60.9%) 학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대규모(38.2%), 중규모(35.6%) 학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Ⅳ-9 학교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교사) 단위: 명(%)

학교규모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		합계	χ^2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기타		
대규모	21(38.2)	34(61.8)	55(100)	8.723* (df=2)
중규모	36(35.6)	65(64.4)	101(100)	
소규모	28(60.9)	18(39.1)	46(100)	
합계	85(42.1)	117(57.9)	202(100)	

*p<.05 **p<.01 ***p<.001

둘째, 학교의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Ⅳ-10),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중점추진영역(1순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χ^2=*18.262***, *df=6*)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χ^2=*12.753***, *df=2*)가 나타났다.

대도시는 수업방법개선(53.6%), 지역체험활동(18.6%)를 추진하고, 중소도시는 수업방법개선(74.4%), 지역체험활동(14.0%)를 추진하고, 읍면지역은 수업방법개선(35.5%), 지역체험활동(22.6%)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도시에서 특히 수업방법개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수업방법개선뿐 아니라 동아리활동, 지역체험활동, 진로활동을 골고루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 Ⅳ-10 지역규모에 따른 자유학기제 중점추진 영역 응답 차이(교사) 단위: 명(%)

지역규모	자유학기제 중점추진 영역(1순위)				합계	χ^2
	수업방법개선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 (교내)	진로활동 (교내)	지역체험활동		
대도시	52(53.6)	20(20.6)	7(7.2)	18(18.6)	97(100)	18.262** (df=6)
중소도시	32(74.4)	2(4.7)	3(7.0)	6(14.0)	43(100)	
읍면지역	22(35.5)	16(25.8)	10(16.1)	14(22.6)	62(100)	
합계	106(52.5)	38(18.8)	20(9.9)	38(18.8)	202(100)	

*p(.05 **p(.01 ***p(.001

학교의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가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표 Ⅳ-11)은 읍면지역(58.1%)에 많았고,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70.1%), 중소도시(53.5%)에 많았다. 따라서 읍면지역에 지역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는 지자체에서 읍면동 지역에 설치하도록 한 문화의집 설치를 촉구한다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Ⅳ-11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응답 차이(교사) 단위: 명(%)

지역규모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		합계	χ^2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기타		
대도시	29(29.9)	68(70.1)	97(100)	12.753** (df=2)
중소도시	20(46.5)	23(53.5)	43(100)	
읍면지역	36(58.1)	26(41.9)	62(100)	
합계	85(42.1)	117(57.9)	202(100)	

*p<.05 **p<.01 ***p<.001

셋째,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응답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χ^2=34.813***, df=6), 현재 근무중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χ^2=55.617***, df=9),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χ^2=15.079***, df=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Ⅳ-12). 그러나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차이는 청소년지도사 인원수가 5명 미만인 기관은 읍면지역(45.5%)에 많았다. 청소년지도사 인원수가 5-9명인 기관에서는 대도시(48.0%), 중소도시(33.3%)에 많았다. 청소년지도사 인원수가 10-19명인 기관에서는 대도시(60.5%), 청소년지도사 인원수가 20명 이상 기관에서는 대도시(51.9%)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이 대도시(47.7%)와 중소도시(33.8%)에 집중되어 있고 읍면지역(18.5%)에는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알 수가 있다.

표 Ⅳ-12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지역규모 차이 단위: 명(%)

청소년기관의 규모 (청소년지도사 인원수 기준)	지역규모			합계	χ^2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5명 미만 (소)	10(22.7)	14(31.8)	20(45.5)	44(100)	34.813*** (df=6)
5-9명 (중소)	36(48.0)	25(33.3)	14(18.7)	75(100)	

청소년기관의 규모 (청소년지도사 인원수 기준)	지역규모			합계	χ^2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0-19명 (중대)	46(60.5)	27(35.5)	3(3.9)	76(100)	
20명 이상 (대)	14(51.9)	9(33.3)	4(14.8)	27(100)	
합계	106(47.7)	75(33.8)	41(18.5)	222(100)	

*p(.05 **p(.01 ***p(.001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학교연계 중요성 인식차이는(표 Ⅳ-13) 5명 미만의 기관에서는 중요하다(58.5%),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5-9명의 기관(49.4%), 10-19명의 기관(60.5%), 20명 이상(72.7%)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학교연계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3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학교연계 중요성 인식 차이 단위: 명(%)

청소년기관의 규모 (청소년지도사 인원수 기준)	학교연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			합계	χ^2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5명 미만 (소)	21(39.6)	31(58.5)	1(1.9)	53(100)	15.079* (df=6)
5-9명 (중소)	42(49.4)	39(45.9)	4(4.7)	85(100)	
10-19명 (중대)	49(60.5)	31(38.3)	1(1.2)	81(100)	
20명 이상 (대)	24(72.7)	7(21.2)	2(6.1)	33(100)	
합계	136(54.0)	108(42.9)	8(3.2)	252(100)	

*p(.05 **p(.01 ***p(.001

넷째,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응답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현재 근무 중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χ^2=*19.408***, *df=6*),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χ^2=*16.953***, *df=6*)에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Ⅳ-14). 그러나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은 대도시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순이며, 중소도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순이고, 읍면지역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진흥법(2014)에 지자체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읍·면·동에 문화의집 설치를 의무로 명시한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읍면지역에 문화의 집 설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Ⅳ-14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별 응답차이 단위: 명(%)

지역규모	청소년활동시설 유형				합계	χ^2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 (청소년단체, 유스호스텔 등)		
대도시	67(62.0)	20(18.5)	6(5.6)	15(13.9)	108(100)	19.408** (df=6)
중소도시	44(57.1)	23(29.9)	2(2.6)	8(10.4)	77(100)	
읍면지역	17(39.5)	12(27.9)	9(20.9)	5(11.6)	43(100)	
합계	128(56.1)	55(24.1)	17(7.5)	28(12.3)	228(100)	

*p<.05 **p<.01 ***p<.001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기타 이유 다음으로 '학교의 이해부족(비협조)'을 어려운 이유로 응답했다.

표 Ⅳ-15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응답차이 단위: 명(%)

지역규모	학교연계가 어려운 이유 (1순위)				합계	χ^2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학교의 이해부족(비협조)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부족	기타		
대도시	6(5.7)	26(24.5)	17(16.0)	57(53.8)	106(100)	16.953** (df=6)
중소도시	4(5.4)	23(31.1)	9(12.2)	38(51.4)	74(100)	
읍면지역	10(23.3)	13(30.2)	2(4.7)	18(41.9)	43(100)	
합계	20(9.0)	62(27.8)	28(12.6)	113(50.7)	223(100)	

*p<.05 **p<.01 ***p<.001

다섯째, 청소년기관의 유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에 따른 응답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χ^2=14.484**, df=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Ⅳ-16). 그러나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기관 유형에 따른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의 차이를 보면 청소년문화의집(85.8%), 청소년수련관(92.1%), 청소년수련원(61.5%) 순으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연계 프로그램은 모든 청소년기관의 83.6%가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6 청소년기관의 유형(청소년수련관 등)에 따른 학교연계 경험 응답 차이(교사) 단위: 명(%)

청소년기관의 유형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		합계	χ^2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청소년수련관	121(85.8)	20(14.2)	141(100)	14.484** (df=3)
청소년문화의집	58(92.1)	5(7.9)	63(100)	
청소년수련원	16(61.5)	10(38.5)	26(100)	
기타	29(76.3)	9(23.7)	38(100)	
합계	224(83.6)	44(16.4)	268(100)	

*p(.05 **p(.01 ***p(.001

5) 요구조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분석결과(중요도와 실천도)

설문지 문항은 8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3문항이다. 8개의 영역은 전문성확보, 실무역량육성,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평가, 체험기관 인센티브, 협력체계, 제도마련이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정 실시하고 Borich 산출공식을 통한 가중치를 고려한 후 Locus for Focus 모델을 함께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종합하여 중요도와 실천도 분석(IPA)으로 8영역의 33항목에 대한 최종 우선순위 요구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적 우선과제 도출을 위한 방법으로 IPA 기법 등을 활용한 기존 방식(성열관 외, 2013)에 가중치를 고려한 중복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은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요구의 최우선 순위와 차순위의 내용과 개수를 제시하는 기준을 제공함(교육부, 2013; 김수자·우명숙,

2013)으로써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이나 모색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의 분석(IPA)을 위한 좌표평면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와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또는 그래프, 표로 제시하였다. IPA를 통하여 2차원 도표 4분면 위에 X축(중요도), Y축(현재 실천도) 위에 중앙값이나 평균값을 이용한 좌표값을 표시함으로써 우선순위결정에 도움을 받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지도사의 요구 우선순위 분석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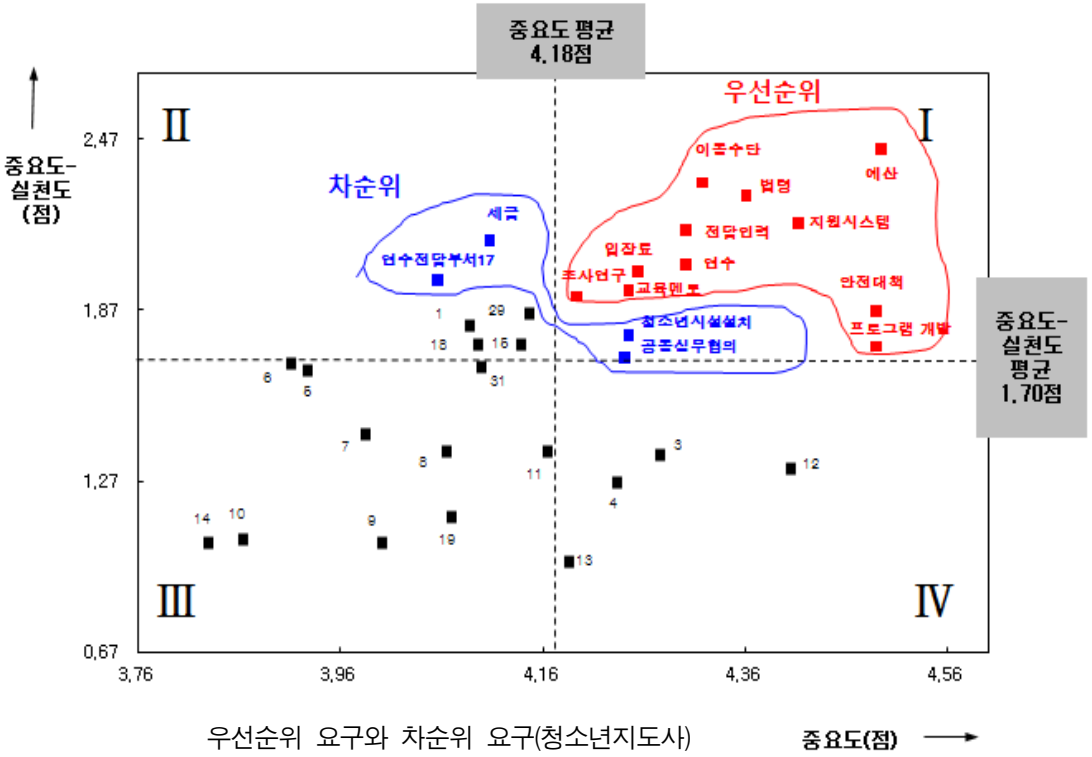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사의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요구분석에서 t 검정 및 Borich 공식을 활용한 요구도 값과 그 우선순위 결과는 아래 <표 Ⅳ-17>과 같다. 먼저 요구분석의 전체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고, Borich 요구도 결과값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총33 항목 가운데 t 검정에서 바람직한 수준(중요도)과 현재수준(실천도)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은 총 33개의 항목 모두였다. 33개의 항목들은 모두 t 값이 11.36***에서 27.54***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전담인력, 32)안전대책 , 29) 평가방법 개발 항목의 Borich 가중치의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 5위, 9위, 14위로 나타났지만, t 값은 11위, 15위, 9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t 검정 값이 낮게 나타났지만 Borich 요구도 순위에서 높게 나타난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t 검정의 경우 두 수준간이 차이만을 반영한 반면 Borich의 요구도는 바람직한 수준(중요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t 검정의 값을 활용하여 요구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Borich 공식 등의 가중치를 두어 우선순위 결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17 청소년지도사의 t 검정과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내용		현재수준		필요수준		차이			Borich 요구도	우선 순위
영역	세부항목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값		
전문성 확보	1) 기관장 연수	2.26	1.09	4.10	0.93	1.84	1.49	19.94*	7.44	16
	2) 전담 인력	2.20	1.16	4.28	0.94	2.11	1.53	22.15*	9.25	5
	3) 업무 전문성	2.90	1.04	4.26	0.84	1.37	1.28	17.25*	5.85	23
	4) 업무 지속성	2.98	1.10	4.22	0.89	1.22	1.36	14.35*	5.38	28
실무역량 육성	15) 컨설팅 전문가육성	2.40	1.08	4.13	0.88	1.73	1.46	19.21*	7.26	17
	16) 실무자 연수	2.24	1.02	4.27	0.84	2.04	1.40	23.23*	8.73	6
	17) 연수 전담부서	2.06	0.95	4.01	0.95	1.96	1.43	22.02*	8.01	12
	33) 교육멘토 양성	2.30	0.99	4.22	0.91	1.93	1.40	22.34*	8.23	10
프로그램 개발	9) 프로그램 공모사업	2.96	1.14	3.99	0.92	1.03	1.27	13.12*	4.22	30
	12) 프로그램 운영	3.07	1.07	4.37	0.76	1.30	1.26	16.74*	5.80	24
	30) 프로그램 개발	2.75	1.02	4.48	0.73	1.74	1.28	21.76*	7.82	13
프로그램 운영	7) 인솔도우미 봉사단	2.54	1.11	3.94	0.89	1.41	1.29	17.69*	5.73	26
	8) 재능기부 봉사단	2.67	1.07	4.06	0.83	1.40	1.31	17.24*	5.62	27
	11) 청소년 사전교육	2.80	1.12	4.13	0.85	1.34	1.35	16.04*	5.74	25
	14) 결과에 대한 발표회	2.77	1.11	3.81	0.99	1.03	1.31	12.74*	4.04	33
	18) 교육멘토 사전 협의	2.32	0.95	4.05	0.80	1.75	1.33	21.07*	7.19	19
	25) 이동수단	2.00	1.04	4.26	0.95	2.29	1.46	25.35*	10.01	2
	26) 입장료	2.23	1.01	4.23	0.90	2.03	1.34	24.34*	8.52	8
프로그램 평가	10) 체험활동 평가반영	2.81	0.99	3.84	0.97	1.01	1.34	12.18*	4.13	32
	13) 지역체험활동 효과 평가	3.20	1.13	4.16	0.84	0.96	1.38	11.36*	4.15	31
	29) 평가방법 개발	2.30	0.92	4.14	0.87	1.86	1.33	22.42*	7.74	14
	31) 학교-체험활동기관과 공동평가	2.42	0.97	4.10	0.92	1.69	1.41	19.26*	6.86	20
체험기관 인센티브	5) 체험기관 인센티브	2.27	1.05	3.92	1.01	1.66	1.52	17.51*	6.54	22
	6) 인증마크	2.21	1.04	3.91	0.99	1.70	1.43	19.21*	6.59	21
	21) 체험기관 세금감면	2.00	1.02	4.12	0.94	2.14	1.46	23.66*	8.69	7
협력체계	19) 사업 MOU 협정	2.89	1.17	4.05	0.92	1.17	1.39	13.55*	4.68	29
	20) 공동실무협의회	2.51	1.10	4.21	0.85	1.71	1.41	19.41*	7.22	18
제도마련	22) 법령 개정·제정	2.11	0.99	4.35	0.78	2.24	1.34	27.02*	9.92	3
	23) 지원 시스템	2.28	1.03	4.40	0.77	2.13	1.35	25.44*	9.60	4
	24) 조사연구	2.29	0.93	4.16	0.85	1.88	1.35	22.51*	8.04	11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2.44	1.07	4.22	0.98	1.79	1.50	19.24*	7.56	15
	28) 예산 배정	2.04	1.00	4.49	0.82	2.46	1.44	27.54*	10.95	1
	32) 안전대책마련	2.66	1.18	4.48	0.79	1.82	1.44	20.42*	8.38	9

*p<.001

Locus for Focus 모델과 Borich 요구도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최우선 순위와 차순위 요구를 [그림 Ⅳ-5]로 제시하였다. 청소년지도사의 필요수준 평균과 불일치 수준의 평균을 축으로 하여 좌표평면으로 구분한 결과 Ⅰ사분면에 포함되는 역량은 총13개였다. 청소년지도사 조사결과,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항목은 28)예산배정, 22)법령개정·제정, 23)지원시스템, 25)버스 등 이동수단, 26)입장료 할인, 16)실무자 연수, 24)조사연구, 33)교육멘토 양성, 2)전담인력, 30)프로그램 개발, 32)안전대책으로 11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구이다. 또한 21)참여기관 세금감면, 17)연수 전담부서는 Borich 요구도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27)청소년활동시설 설치, 20)공동실무협의는 Locus for Focus 모델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다. 즉 이러한 4개 항목은 앞서 도출된 11개 최우선 요구 항목에 이어서 차순위 요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현재 실천도와 중요도를 조사하여 최우선 요구사항과 차순위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지원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후 현장에 근거한 단기, 중기, 장기적 정책과제에 활용될 수 있다.



우선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청소년지도사)

【그림 Ⅳ-5】 최우선 순위와 차순위 요구(청소년지도사)

(2) 교사의 요구 우선순위 분석(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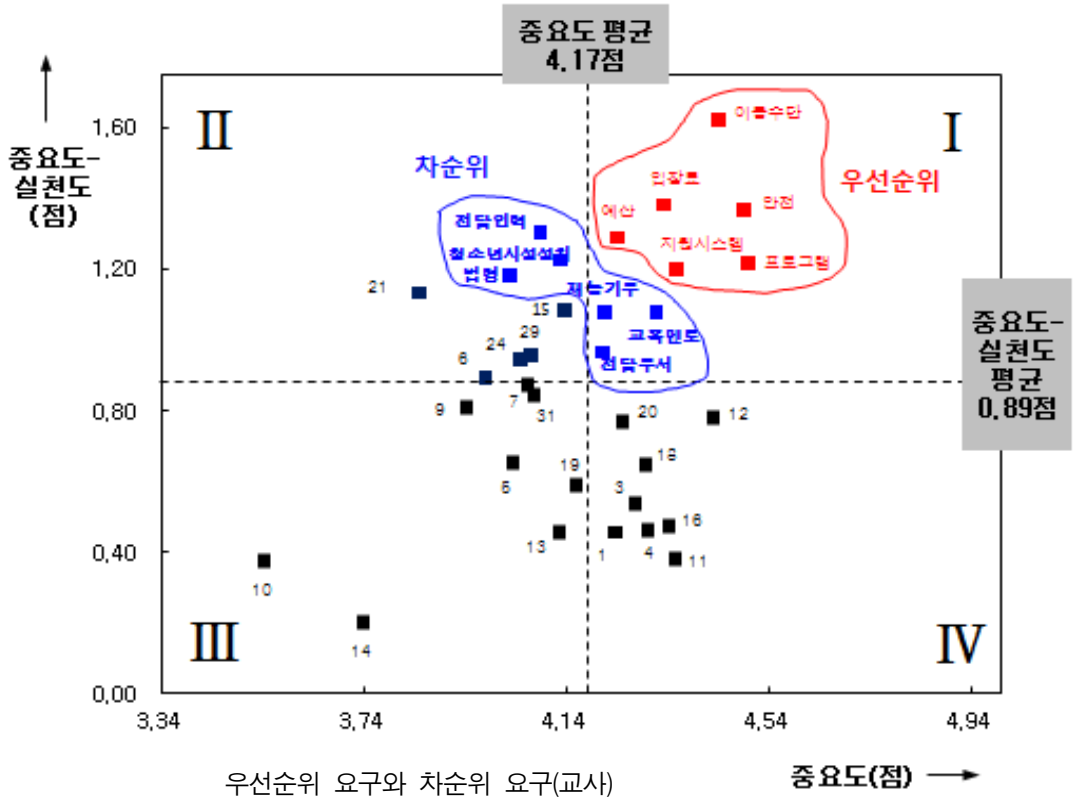
교사의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요구분석에서 t 검정 및 Borich 공식을 활용한 요구도 값과 그 우선순위 결과는 아래 <표 Ⅳ-18>과 같다. 먼저 요구분석의 전체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고, Borich 요구도 결과값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총33 항목 가운데 t 검정에서 바람직한 수준(중요도)과 현재수준(실천도)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은 총 33개의 항목 모두였다. 총33개의 항목들은 모두 t 값이 3.33***에서 16.34***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전담인력, 22)법령개정, 33) 교육멘토 양성, 8) 재능기부 항목의 Borich 가중치의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 6위, 9위, 10위, 11위로 나타났지만, t 값은 11위, 12위, 7위, 9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t 검정 값이 낮게 나타났지만 Borich 요구도 순위에서 높게 나타난 경우도 발견되었다.

[그림 Ⅳ-6]과 같이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항목은 25)버스 등 이동수단, 32)안전대책, 26)입장료 할인, 30)프로그램 개발, 28)예산배정, 23)지원시스템으로 6개 항목이었다. 이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구로 볼 수 있다. 또한 2)전담인력, 27)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22)법령 개정·제정·은 Borich 요구도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33)교육멘토 양성, 8)재능기부, 17)컨설팅·연수 전담부서는 Locus for Focus 모델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다. 이러한 4개 항목은 앞서 도출된 6개 최우선 요구 항목에 이어서 차순위 요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Ⅳ-18 교사의 t 검정과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내용		현재수준		필요수준		차이			Borich 요구도	우선 순위
영역	세부항목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값		
전문성 확보	1) 학교장 연수	3.78	0.90	4.24	0.78	0.45	0.88	7.32*	1.93	29
	2) 전담 인력	2.78	1.36	4.09	1.02	1.30	1.44	12.86*	5.33	6
	3) 업무 전문성	3.74	0.92	4.27	0.80	0.53	0.87	8.82*	2.30	26
	4) 업무 지속성	3.83	0.92	4.30	0.77	0.46	0.82	8.10*	2.00	28
실무역량 육성	15) 컨설팅 전문가육성	3.05	1.03	4.14	0.87	1.08	1.18	13.04*	4.48	12
	16) 실무자 연수	3.86	0.88	4.34	0.78	0.47	0.86	7.87*	2.06	27
	17) 연수 전담부서	3.25	1.09	4.21	0.81	0.96	1.15	11.98*	4.07	14
	33) 교육멘토 양성	3.24	1.03	4.32	0.87	1.07	1.12	13.75*	4.66	10
프로그램 개발	9) 프로그램 공모사업	3.13	0.98	3.94	0.90	0.80	1.04	11.10*	3.19	22
	12) 프로그램 운영	3.65	0.93	4.43	0.77	0.77	0.94	11.78*	3.45	20
	30) 프로그램 개발	3.28	0.95	4.50	0.79	1.21	1.09	15.88*	5.47	4
프로그램 운영	7) 인솔도우미 봉사단	3.18	1.06	4.06	0.91	0.87	1.15	10.86*	3.56	17
	8) 재능기부 봉사단	3.14	1.01	4.22	0.83	1.07	1.15	13.33*	4.55	11
	11) 청소년 사전교육	3.97	0.90	4.35	0.74	0.38	0.76	7.15*	1.66	31
	14) 결과에 대한 발표회	3.53	0.96	3.74	0.96	0.20	0.86	3.33*	0.75	33
	18) 교육멘토 사전 협의	3.65	0.95	4.29	0.75	0.64	0.90	10.26*	2.78	23
	25) 이동수단	2.82	1.17	4.44	0.82	1.62	1.41	16.34*	7.21	1
	26) 입장료	2.95	1.09	4.33	0.90	1.38	1.32	14.90*	5.99	3
프로그램 평가	10) 체험활동 평가반영	3.16	1.01	3.54	1.05	0.37	0.99	5.40*	1.34	32
	13) 지역체험활동 효과 평가	3.67	0.88	4.12	0.80	0.45	0.81	7.99*	1.88	30
	29) 평가방법 개발	3.11	0.99	4.07	0.93	0.95	1.11	12.28*	3.89	15
	31) 학교-체험활동기관과 공동평가	3.23	1.04	4.07	0.92	0.84	1.02	11.84*	3.45	19
체험기관 인센티브	5) 체험기관 인센티브	3.38	1.05	4.03	0.85	0.65	0.91	10.16*	2.63	24
	6) 인증마크	3.09	1.08	3.98	0.91	0.89	1.13	11.22*	3.55	18
	21) 체험기관 세금감면	2.72	1.07	3.85	0.97	1.13	1.30	12.43*	4.36	13
협력체계	19) 사업 MOU 협정	3.57	0.99	4.16	0.90	0.58	0.94	8.88*	2.45	25
	20) 공동실무협의회	3.48	1.02	4.25	0.80	0.77	1.01	10.80*	3.27	21
제도마련	22) 법령 개정·제정	2.85	1.08	4.03	0.94	1.18	1.31	12.84*	4.76	9
	23) 지원 시스템	3.16	1.12	4.36	0.87	1.20	1.28	13.35*	5.23	7
	24) 조사연구	3.10	0.98	4.05	0.90	0.94	1.07	12.57*	3.83	16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2.90	1.00	4.13	1.02	1.22	1.22	14.31*	5.06	8
	28) 예산 배정	2.95	1.01	4.24	0.92	1.28	1.28	14.35*	5.47	5
	32) 안전대책마련	3.12	1.19	4.49	0.88	1.36	1.33	14.64*	6.14	2

* $p < .001$



우선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교사)

【그림 Ⅳ-6】최우선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교사)

(3)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요구 우선순위 분석(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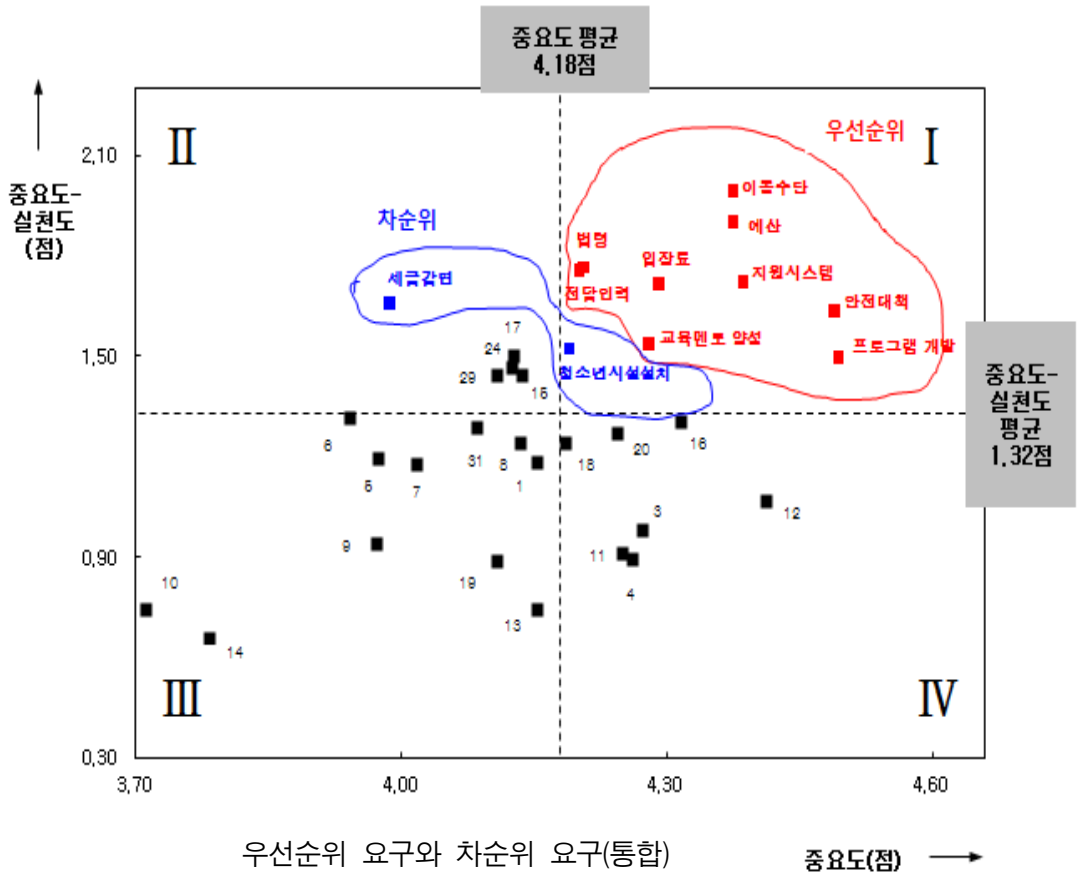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사의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요구 우선순위 결과는 아래 <표 Ⅳ-19>와 같다. 먼저 요구분석의 전체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고, Borich 요구도 결과값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총33 항목 가운데 t 검정에서 바람직한 수준(중요도)과 현재수준(실천도)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은 총 33 개의 항목 모두였다. 이들은 모두 t 값이 12.31 이상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 검정 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Borich 요구도 순위에서 낮게 나타난 경우도 상당수 있다. 총33개의 항목들은 모두 t 값이 12.31***에서 29.26***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전담인력, 24)조사연구 항목의 Borich 가중치의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 5위, 13위로 나타났지만, t 값은 12위, 10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같이 t 검정 값이 낮게 나타났지만 Borich 요구도 순위에서 높게 나타난 경우도 발견되었다.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조사 분석결과, [그림 Ⅳ-7]과 같이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항목은 25)이동수단, 28)예산배정, 23)지원 시스템, 22)법령 개정·제정, 2)전담인력, 26)입장료 할인, 32)안전대책 마련, 30)프로그램 개발, 33)교육멘토 양성으로 9개 항목이었다. 이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구로 볼 수 있다. 또한 21)참여기관 세금감면은 Borich 요구도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27)청소년활동 시설 추가설치는 Locus for Focus 모델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다. 즉 이러한 2개 항목은 차순위 요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Ⅳ-19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의 t 검정과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내용		현재수준		필요수준		차이			Borich 요구도	우선 순위
영역	세부항목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값		
전문성 확보	1) 학교장(기관장) 연수	2.87	1.31	4.13	0.93	1.26	1.46	18.84*	4.92	22
	2) 전담 인력	2.41	1.31	4.16	1.05	1.75	1.59	23.97*	7.37	5
	3) 업무 전문성	3.20	1.15	4.23	0.90	1.02	1.27	17.58*	4.20	26
	4) 업무 지속성	3.26	1.23	4.24	0.88	0.97	1.33	15.94*	3.81	28
실무역량 육성	15) 컨설팅 전문가육성	2.64	1.16	4.11	0.92	1.47	1.40	22.93*	5.96	14
	16) 실무자 연수	2.87	1.33	4.27	0.88	1.40	1.47	20.76*	5.63	16
	17) 연수 전담부서	2.51	1.23	4.07	0.95	1.56	1.43	23.78*	6.21	12
	33) 교육멘토 양성	2.65	1.17	4.24	0.93	1.59	1.38	25.13*	6.58	10
프로그램 개발	9) 프로그램 공모사업	2.98	1.14	3.95	0.95	0.97	1.22	17.28*	3.74	29
	12) 프로그램 운영	3.26	1.14	4.37	0.81	1.11	1.21	20.06*	4.71	25
	30) 프로그램 개발	2.92	1.10	4.45	0.86	1.52	1.29	25.76*	6.73	8
프로그램 운영	7) 인솔도우미 봉사단	2.76	1.97	3.98	0.94	1.21	1.29	20.45*	4.73	24
	8) 재능기부 봉사단	2.82	1.13	4.10	0.89	1.28	1.29	21.56*	5.13	21
	11) 청소년 사전교육	3.25	1.25	4.21	0.85	0.95	1.26	16.49*	3.88	27
	14) 결과에 대한 발표회	3.05	1.18	3.76	1.01	0.71	1.26	12.31*	2.49	33
	18) 교육멘토 사전 협의	2.82	1.24	4.13	0.85	1.30	1.32	21.57*	5.18	20
	25) 이동수단	2.31	1.20	4.31	0.96	2.00	1.49	29.26*	8.72	1
	26) 입장료	2.48	1.16	4.26	0.94	1.77	1.38	27.92*	7.35	6
프로그램 평가	10) 체험활동 평가반영	2.91	1.08	3.68	1.07	0.76	1.31	12.72*	2.77	32
	13) 지역체험활동 효과 평가	3.34	1.14	4.13	0.86	0.78	1.24	13.75*	3.08	31
	29) 평가방법 개발	2.59	1.10	4.08	0.95	1.49	1.34	24.20*	5.92	15
	31) 학교–체험활동기관과 공동평가	2.72	1.14	4.07	0.96	1.35	1.35	21.77*	5.27	18
체험기관 인센티브	5) 체험기관 인센티브	2.69	1.25	3.93	1.01	1.24	1.41	19.22*	4.74	23
	6) 인증마크	2.54	1.19	3.92	0.99	1.37	1.39	21.48*	5.19	19
	21) 체험기관 세금감면	2.27	1.14	3.99	0.99	1.71	1.48	25.22*	6.60	9
협력체계	19) 사업 MOU 협정	3.10	1.25	4.06	0.98	0.96	1.29	16.23*	3.65	30
	20) 공동실무협의회	2.85	1.26	4.18	0.93	1.33	1.37	21.17*	5.38	17
제도마련	22) 법령 개정·제정	2.39	1.14	4.20	0.90	1.81	1.45	27.10*	7.42	4
	23) 지원 시스템	2.61	1.20	4.36	0.86	1.75	1.42	26.78*	7.55	3
	24) 조사연구	2.59	1.09	4.09	0.91	1.50	1.34	24.36*	6.04	13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2.59	1.12	4.16	1.03	1.57	1.44	23.76*	6.38	11
	28) 예산 추가	2.39	1.15	4.36	0.92	1.97	1.51	28.41*	8.32	2
	32) 안전대책마련	2.80	1.26	4.47	0.87	1.66	1.45	25.00*	7.34	7

* $p < .001$



우선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통합)

【그림 Ⅳ-7】 우선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청소년지도사와 교사 통합)

제 V 장

정책현황 및 문제점

1. 조사결과 요약
2. 정책현황 및 문제점

제 V 장

정책현황 및 문제점[14)]

1. 조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의 실태를 질적 양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향후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 활성화방안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첫째, 질적 연구로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학교연계 청소년활동의 의미를 고찰하고, 학교와 청소년기관 간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의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 사례 현황 및 정책적 쟁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학교와 청소년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및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의 대상은 전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학부모/학생, 자유학기제와 학교연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지역사회기관 현장교육담당자(공공기관, 대기업, 개인사업장, 민간단체) 총 42명이다. 면담조사의 결과분석방법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근거이론의 주된 목적은 어떤 현상과 사건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와 현상간의 상호작용 및 주변 환경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실질적 이론(substantive theory)을 개발하는 것이다. 근거이론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주요 속성뿐만 아니라 현상을 둘러싼 핵심적 사회 맥락, 참여자의 심리적 과정 및 변화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다.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련자로서 교사/학부모/학생, 청소년지도사, 지역체험기관 현장멘토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한 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학교와 청소년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국 16개 시도 광역시의 청소년기관(100개)의 청소년지도사(271명), 전국 17개 광역 자치도시의 자유학기제

14) 제5장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연구학교(74개)의 교사(204명)이다. 조사방법은 청소년지도사는 조사원에 의한 자기기입식조사이며, 교사는 서울시교육정보원 사이트를 통한 web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6월-7월이다. 면담조사 결과 파악된 내용으로 설문지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분석 내용은 첫째,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청소년지도사, 교사), 둘째,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셋째, 기관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검증(청소년지도사, 교사), 넷째,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 요구조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분석결과(청소년지도사, 교사, 통합)는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특성 분석(청소년지도사, 교사)

□ 청소년지도사: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있음(83.6%) 학교연계는 중요함(96.6%)

□ 교사: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는 학기당 3-5회(42.2%), 지역연계는 중요함(98.6%)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 횟수는 학기당 3-5회(42.2%), 학기당 6-10회(18.6%), 학기당 1-2회(16.7%), 주1회 이상(8.8%), 월2회(7.8%), 주2회 이상(4.9%), 없음(1.0%)의 순으로 나타났음

2) 설문 응답자의 기관 및 지역 분포(청소년지도사, 교사)

□ 청소년지도사(100개 기관의 271명)의 지역분포는 16개 광역·자치도시의 시군구에서 대도시(47.4%), 중소도시(33.8%), 읍면지역(18.9%)으로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넓게 분포함

□ 교사(74개 학교의 204명)의 지역분포는 17개 광역·자치도시의 시군구에서 대도시(48.0%), 중소도시(21.3%), 읍면지역(30.7%)으로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넓게 분포함

□ 청소년기관의 96.6%가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학교의 98.6%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학교의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는 학기당 3-5회(42.2%), 학기당 6-10회(18.6%)

3)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다중응답분석)

□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학교의 이해부족(비협조)(1순위),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의 지원 부족(2순위)

□ 학교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1순위), 업무과다(2순위)

□ 학교의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영역은 수업방법개선(39.71%), 지역체험활동(24.02%)

4) 기관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검증 (학교, 청소년기관)

기관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5미만의 기대빈도가 20% 미만으로 유의도를 신뢰할 수 있는 항목들에 한해서 χ^2 검증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른 응답의 차이, 둘째,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응답의 차이, 셋째,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응답의 차이, 넷째,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응답의 차이, 다섯째, 청소년기관의 유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검증하였다[15].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에 한하여 제시하였다.

□ 교사를 조사한 결과, **학교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른 차이**는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기타)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음

=> 학교 규모에 따른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가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소규모(60.9%) 학교에서 크게 나타났고, 대규모(38.2%), 중규모(35.6%) 학교의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더 필요함

15) 이 글에서는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내용만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 **학교의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차이**는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중점 추진영역과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 대도시는 수업방법개선(53.6%), 지역체험활동(18.6%)를 추진하고, 중소도시는 수업방법개선(74.4%), 지역체험활동(14.0%)을 추진하고, 읍면지역은 수업방법개선(35.5%), 지역체험활동(22.6%)으로 나타났음. 이는 중소도시에서 특히 수업방법개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수업방법개선 뿐 아니라 동아리활동, 지역체험활동, 진로활동을 골고루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음

=> 학교의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가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읍면지역(58.1%)에 많았고,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70.1%), 중소도시(53.5%)에 많았음. 따라서 읍면지역에 지역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지자체에서 읍면동 지역에 설치하도록 한 문화의집 설치를 촉구한다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청소년지도사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차이는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차이는 청소년지도사 인원수가 5명 미만인 기관은 읍면지역(45.5%)에 많았음. 청소년지도사 인원수가 5-9명인 기관에서는 대도시(48.0%), 중소도시(33.3%)에 많았음. 청소년지도사 인원수가 10-19명인 기관에서는 대도시(60.5%), 청소년지도사 인원수가 20명 이상 기관에서는 대도시(51.9%)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청소년기관이 대도시(47.7%)와 중소도시(33.8%)에 집중되어 있고 읍면지역(18.5%)에는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알 수가 있음

=>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학교연계 중요성 인식차이는 5명 미만의 기관에서는 중요하다(58.5%),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5-9명의 기관(49.4%), 10-19명의 기관(60.5%), 20명 이상(72.7%)로 나타났음.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학교연계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소년지도사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차이**는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 지역규모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은 대도시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순이며, 중소도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순이고, 읍면지역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에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 설치, 읍면동에 문화의집 설치를 의무명시한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읍면지역에 문화의 집 설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임.

=>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기타 이유 다음으로 '학교의 이해부족(비협조)'를 어려운 이유로 응답함

□ 청소년지도사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관의 유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에 따른 차이는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에서 나타났음

=> 청소년기관 유형에 따른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의 차이를 보면 청소년문화의집(85.8%), 청소년수련관(92.1%), 청소년수련원(61.5%) 순으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연계 프로그램은 모든 청소년기관의 83.6%가 참여하고 있음.

5) 요구조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분석결과(중요도와 실천도)

□ 우선지원이 필요한 1순위 요구는 이동수단으로 나타났음. 1-11순위까지의 우선지원 요구사항은 이동수단,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전담인력,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프로그램 개발, 교육멘토양성,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의 순으로 나타남.

2. 정책현황 및 문제점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는 정책과제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질적·양적 실태 조사에 대한 주요 결과와 우선순위 요구결정을 위한 분석결과(중요도와 실천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 질적·양적 실태조사 주요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첫째, 학교와 청소년기관 모두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의 중요성 인식은 매우 높지만 실제 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호이해와 소통 시스템은 부족하다. 아울러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의 96.6%와 학교(교사)의 98.6% 모두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기관에서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므로 학교의 일과 시간 중 비어있는 청소년기관의 가용성을 높이고,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필수적인 협업 활동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교육이 학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소중한 경험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교실에서 지역으로 확장되는 교육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질적 연구결과를 보면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이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울타리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학교의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영역은 수업방법개선(39.71%), 지역체험활동(24.02%),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교내)(23.86%)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가 수업방법개선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지역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도 각 25% 정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의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과도 연결된다.

셋째, 학교가 다양한 지역체험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의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는 학기당 3-5회(42.2%), 학기당 6-10회(18.6%)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35.84%), 업무과다(10.47%)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의 의미는 인프라 부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체험기관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홍보지원시스템의 부족 등을 수반한다고 생각된다. 질적연구 조사 결과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은 학교 교사들이 갖고 있는 권위의식과 학교중심적 사고방식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 면담조사 결과, 자연권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외에 학교 근처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을 자주 이용하거나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는 드물었다. 학교가 다양한 지역체험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양 기관이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할 때 지역연계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청소년기관이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예산부족보다도 당장 학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마련이 절실하다.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학교의 비협조(이해부족)(22.89%),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의 지원부족(15.35%), 학교-청소년기관의 정보교류 시스템부족(15.22%)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지도사들이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예산부족보다도 당장 학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적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의 협업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와 청소년기관을 다각적 협력체제로 지원하는 것이 자유학기제 운영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면담조사 결과, 일선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소통과 이해, 정보시스템의 문제로서 일선학교에서는 청소년기관과 영리기관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비협조적이거나 방어적 태도 등이 나나타났다. 따라서 상호이해와 홍보, 신뢰구축을 통한 행정협조, 정보교류, 신뢰구축 홍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단·중기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라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이 3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2) 우선순위 요구사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33문항에 대한 중요도와 실천도를 질문하였을 때, 청소년기관과 학교교사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Borich 가중치와 Locus for Focus 모델을 사용하여 두 가지 방식에서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항목은 최우선순위로 제시하고, 한쪽 방식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차순위 요구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청소년지도사, 교사, 통합적 입장의 우선순위와 차순위 고려사항은 <표 Ⅴ-1>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의 요구분석 결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28)예산배정, 22)법령개정·제정, 23)지원시스템, 25)버스 등 이동수단, 26)입장료 할인, 16)실무자 연수, 24)조사연구, 33)교육멘토 양성, 2)전담인력, 30)프로그램 개발, 32)안전대책으로 11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차순위 고려 항목은 21)참여기관 세금감면, 17)연수 전담부서, 20)공동실무협의, 27)청소년활동시설 설치로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교사) 요구분석 결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25)버스 등 이동수단, 32)안전대책, 26)입장료 할인, 30)프로그램 개발, 28)예산배정, 23)지원시스템으로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요구분석 결과, 차순위 고려 항목은 2)전담인력, 27)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22)법령개정·제정, 33)교육멘토 양성, 8)재능기부, 17)컨설팅·연수 전담부서로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합(청소년기관과 학교) 요구분석 결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25)이동수단, 28)예산배정, 23)지원시스템, 22)법령 개정·제정, 2)전담인력, 26)입장료 할인, 32)안전대책 마련, 30)프로그램 개발, 33)교육멘토 양성으로 9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과 학교(74개 연구학교, 교사 204명)를 통합하여 Borich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지원이 필요한 1순위 요구는 이동수단으로 나타났다. 1-11순위까지의 요구사항은 이동수단,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전담인력,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프로그램 개발, 교육멘토 양성,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선순위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프로그램운영(2개), 프로그램 개발(1개), 전문성확보(1개), 실무역량육성(1개), 체험기관 인센티브(1개), 제도마련(5개)으로 제시되었다. 제도마련(예산, 법, 시스템) 뿐 아니라, 실천적인 내용들인 프로그램, 실무역량 등에 관한 내용들이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은 주목해 볼 일이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에 대한 조사결과임으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면서도 실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청소년기관의 96.6%가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의 98.6%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로 학교의 이해부족(비협조)(1순위),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의 자원부족(2순위), 학교-청소년기관의 정보교류시스템 부족(3순위), 예산부족(4순위)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

석)는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1순위), 업무과다(2순위), 예산부족(3순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우선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의 소통과 홍보, 신뢰구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통합(청소년기관과 학교) 분석결과, 우선순위로 제시된 11개 항목은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현장, 교육청과 지자체,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을 각자하면서 공통으로 노력해야하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11개 우선순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1순위로 제시된 이동수단의 의미와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은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지원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11개 우선순위 고려항목은 현재 시점에서 자유학기제라는 이슈에 맞게 가장 우선 필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것이며, 다른 영역이나 항목들도 각 시기와 이슈에 맞게 중장기적 안목으로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 271명)과 학교(교사 204명)를 통합하여 Borich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지원이 필요한 1순위 요구는 이동수단으로 나타났다. 1-11순위까지의 요구사항은 이동수단,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전담인력,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프로그램 개발, 교육멘토 양성,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1개 우선순위 고려항목은 현재 시점에서 자유학기제라는 이슈에 맞게 가장 우선 필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된 것이며, 다른 영역이나 항목들도 각 시기와 이슈에 맞게 중장기적 안목으로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표 V-1 우선순위 요구사항(Borich의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결과)

구분	최우선순위	차순위	특징 (차별적으로 나타난 항목)
청소년 기관 (청소년 지도사)	28) 예산배정 (1순위) 22) 법령 개정·제정 (2순위) 23) 지원 시스템 (3순위) 25) 이동수단 (4순위) 26) 입장료 (5순위) 16) 실무자 연수 (6순위) 24) 조사연구 (7순위) 33) 교육멘토 양성 (8순위) 2) 전담 인력 (9순위) 30) 프로그램 개발 (10순위) 32) 안전대책 마련 (11순위)	21) 체험기관 세금감면 (12순위) 17) 컨설팅·연수 전담부서 (13순위) 20) 공동실무협의회 (14순위)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15순위)	◇ 청소년지도사가 요구하는 교사/통합과 차별된 항목 16) 실무자 연수 24) 실태 조사연구 20) 공동실무협의회
학교 (교사)	25) 이동수단 (1순위) 32) 안전대책 (2순위) 26) 입장료 할인 (3순위) 30) 프로그램 개발 (4순위) 28) 예산배정 (5순위) 23) 지원시스템 (6순위)	2) 전담인력 (7순위)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8순위) 22) 법령 개정·제정 (9순위) 33) 교육멘토 양성 (10순위) 8) 재능기부 (11순위) 17) 컨설팅·연수 전담부서 (12순위)	◇ 교사가 요구하는 청소년지도사/통합과 차별된 항목 8) 재능기부
통합 (지도사와 교사)	25) 이동수단 (1순위) 28) 예산배정 (2순위) 23) 지원 시스템 (3순위) 22) 법령 개정·제정 (4순위) 2) 전담인력 (5순위) 26) 입장료 할인 (6순위) 32) 안전대책 마련 (7순위) 30) 프로그램 개발 (8순위) 33) 교육멘토 양성 (9순위)	21) 체험기관 세금감면 (10순위)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11순위)	◇ 통합우선순위 11개 항목은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의 현장, 교육청과 지자체와 각 부처가 공통으로 노력해야할 요구사항임.

제 Ⅵ 장

정책방안

1.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에서만 요구된 정책과제
2. 통합(청소년기관과 학교)적으로 요구된 정책과제
3. 단계별 추진 로드맵

제 Ⅵ 장

정책방안[16)]

지금까지의 질적, 양적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중요도와 실천도가 높은 우선순위 요구사항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현황 및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입장에서만 우선순위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정책과제 3개와 교사와 청소년지도사가 함께 우선순위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통합적 입장의 정책과제 11개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 입장에서만 우선순위 요구사항으로 제시된 정책과제는 재능기부 1개로 나타났다. 대부분 청소년지도사와 학교교사의 중요도와 실천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통합적인 입장 즉 함께하는 공통된 입장과 차별적인 입장을 함께 정책방안에 제시하였다. 물론 학교교사와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지도사는 서로 다른 집단이지만, 자유학기제 등을 통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라는 교육적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목적와 활동경험 등에서 동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집단간의 차이 분석뿐 만아니라 통합적인 분석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합적인 정책과제와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입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정책과제를 모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입장과 통합(학교와 청소년기관)된 입장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표 Ⅵ-1. Ⅵ-2).

첫째, 청소년기관 입장에서만 우선지원 필요성이 나타난 정책과제는 3가지로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실무자연수,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조사연구, 공동실무협의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과제는 청소년기관(100개 기관의 청소년지도사 271명)을 대상으로 Borich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을 함께 실시한 결과 도출된 우선순위 정책과제이다.

16) 제6장은 조사결과 도출된 정책과제 14개에 대한 정책방안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학교교사, 청소년기관 청소년지도사의 양쪽 의견을 수렴하여 김정숙(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가 부분집필하고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 집필하였음.

둘째,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과 학교(74개 연구학교, 교사 204명)를 통합하여 Borich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지원이 필요한 1순위 요구는 이동수단으로 나타났다. 1-11순위까지의 요구사항은 이동수단,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전담인력,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프로그램 개발, 교육멘토 양성,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선순위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프로그램 운영(2개), 프로그램 개발(1개), 전문성 확보(1개), 실무역량육성(1개), 체험기관 인센티브(1개), 제도마련(5개)으로 제시되었다. 제도마련(예산, 법, 시스템) 뿐 아니라, 실천적인 내용들인 프로그램, 실무역량 등에 관한 내용들이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은 주목해 볼 일이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에 대한 조사결과임으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면서도 실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표 Ⅵ-1 영역별 정책과제: 우선순위 요구사항(청소년기관/ 학교/ 통합)

구분	정책영역	정책과제
청소년기관 (청소년지도사)	프로그램운영 (2개)	이동수단, 입장료할인
	프로그램 개발 (1개)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확보(1개)	전담인력
	실무역량육성 (3개)	실무자 연수, 교육멘토 양성, 컨설팅·연수 전담부서
	협력체계(1개)	공동실무협의회
	체험기관 인센티브(1개)	체험기관 세금감면
	제도마련 (6개)	예산배정, 법령개정·제정, 지원시스템, 조사연구, 안전대책 마련,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학교 (교사)	프로그램운영 (3개)	이동수단, 입장료할인,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1개)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확보(1개)	전담인력
	실무역량육성 (2개)	교육멘토 양성, 컨설팅·연수 전담부서
	제도마련 (5개)	안전대책,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법령개정·제정,
통합 (청소년기관과 학교)	프로그램운영 (2개)	이동수단, 입장료할인
	프로그램 개발 (2개)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확보 (1개)	전담인력
	실무역량육성 (1개)	교육멘토 양성
	체험기관 인센티브(1개)	체험기관 세금감면
	제도마련 (5개)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개정·제정, 안전대책 마련,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표 Ⅵ-2 정책과제 14개 : 우선순위로 도출된 요구사항 (청소년기관/ 통합)

구분	우선순위 및 정책과제[17]		세부내용
청소년기관 (청소년 지도사) 정책 과제 [18]	6순위	실무자 연수	자유학기제에 대한 실무자연수로서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운영 방식 등 공유
	7순위	실태조사연구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와 개선방안 조사연구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단기, 중장기 정책마련
	14순위	공동실무협의회	행정 권역별 학교/청소년체험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 협의회 운영
통합 (청소년 기관과 학교) 정책 과제 [19]	1순위	이동수단	교통안전수단, 학생관리, 인솔문제, 교통비용, 계약 및 답사 등
	2순위	예산배정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통비, 입장료, 강사료 등
	3순위	지원시스템	지역–학교 연계 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으로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해 지역 교육청과 자치구청 등에서 연계하여 기록, 정보, 홍보, 안내 등 지원
	4순위	법령	청소년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 지자체 조례 등
	5순위	전담인력	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 채용, 청소년 지도사, 행정실무사 등 채용 필요
	6순위	입장료 할인	유료체험 프로그램 입장료 부담, 학부모 동의와 학생 참여의사 등 업무 증가
	7순위	안전대책	체험활동, 장소, 건강관리, 비상대책 등 안전지침과 교육방안 등
	8순위	프로그램 개발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9순위	교육멘토 양성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로 진로교육담당자 등 양성 및 운영 시스템 마련
	10순위	체험기관 세금감면	지속적인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금감면과 기부금 합법화 필요
	11순위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 읍면동에 문화의집 등 설립확대

17) 총 14개의 정책과제는 총 33개의 항목 중에서 Borich의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결과 우선순위 요구사항으로 도출된 항목임.

18) ◇청소년지도사 조사결과,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차별된 항목은 실무자연수, 실태조사연구, 공동실무협의회 항목임.
◇교사 조사결과,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차별된 항목은 재능기부 항목임.

19) ◇통합(청소년지도사, 교사) 조사결과, 우선순위 요구사항 11개 항목은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의 현장, 교육청과 지자체와 각 부처가 공통으로 노력해야할 요구사항임.

1.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에서만 요구된 정책과제[20)]

(6순위) 자유학기제에 대한 실무자연수

○ 문제 현상

청소년기관을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실무자 연수가 33문항 중에서 6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면담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지도사들은 현재 자유학기제가 무엇인지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떠한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 청소년이라는 동일대상의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학교연계 체험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해오거나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가 있었다.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청소년기관의 중요한 내용임이 나타난데 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편으로 보인다.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지도사들은 실무자 연수의 중요도를 5점 만점에 4.27로 높게 응답했지만, 현재 실천도는 2.24로 낮게 응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6순위 요구로 나타났다.

○ 문제 원인

청소년기관의 새로운 제도나 현재 청소년기관에서 해오고 있는 주요업무와 사회 교육적 변화와 새로운 제도 등에 대한 실무자 연수가 많이 부족하다. 학교의 경우는 자유학기제 등 교사연수가 교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한 학기에 약 2번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청소년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등 학교연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자연수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 특히 청소년기관의 경우는 실무자 연수가 우선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연계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실무연수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청소년지도사 조사결과,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차별된 항목은 16)실무자연수, 24)실태조사연구, 20)공동실무협의회 항목으로 나타났음.
◇교사 조사결과,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차별된 항목은 8)재능기부 항목으로 나타났음.

○ 대안 마련

첫째, 학교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자유학기제 등과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실무자 연수가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사들은 학교 교육과정과 운영방식 등을 교육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 학교와 함께 연계하여 업무를 해야 하는 실무자이지만, 학교에 대한 이해를 갖기가 어렵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현장 담당자의 열정과 여건에 의지하여 학교연계 청소년활동을 진행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정책 지원이 너무도 부족하고 정책적 관심도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학교 교사들에게 지역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 운영을 이해하도록 교육연수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기관과 학교 대상의 공동의 실무자 연수와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

(7순위)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조사 연구

○ 문제 현상

청소년기관을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조사 연구가 33문항 중에서 7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면담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기관들은 학교연계 체험활동을 자발적으로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 지원에 힘입어서 다양한 경로로 실천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청소년기관에서는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는 설문조사결과 96.6%의 청소년지도사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다. 이에 반해 청소년기관에서는 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몇 년에 한번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현장에 근거한 정책지원 마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없어서 조사연구도 간헐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조사연구는 정책마련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지도사들은 조사연구의 중요도를 5점 만점에 4.16으로 높게 응답했지만, 현재 실천도는 2.29로 낮게 응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7순위 요구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사의 경우는 조사연구의 중요도(4.05), 실천도(3.10)로 응답하여 청소년기관과 차이를 보였다.

○ 문제 원인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조사 연구를 통한 현장의 변화와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바라는 요구를 나타낸 것이다. 실태조사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지도사의 경우는 조사연구 등이 최우선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지도사의 상황과 현장을 파악하는 조사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기관 현장의 학교연계 체험활동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의 연계 사례, 한계점과 성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연구로 정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있는 몇몇 사업에서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정책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되지 못함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선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일상적 연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이 전국 평균 10.98개의 학교와 공식적 협력관계를 체결하였고, 연계 사업수도 평균 49.25개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2a). 학교연계를 위한 현장의 노력과 청소년수련관과 학교 연계의 구체적 방식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 대안 마련

첫째,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장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하다. 현재 청소년기관 입장에서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을 활용한 학교연계 체험활동, 현장 중심의 자발적인 학교연계 체험활동, 공공기관 사업을 활용한 학교연계 체험활동,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체험활동을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사례에서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유형화 작업으로 어떤 방식으로 왜 나타나는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 탐색이 필요하다(정영근, 2014). 둘째,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로 단기, 중장기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어려웠던 원인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매 시점마다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 교육방식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와 현장의 변화와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조사연구가 필수이다.

(14순위) 행정 권역별 학교/청소년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 문제 현상

청소년기관을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공동실무협의회 운영이 33문항 중에서 14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실제 설문조사결과,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지도사들은 공동실무협의회 운영의 중요도를 5점 만점에 4.21로 높게 응답했지만, 현재 실천도는 2.51로 낮게 응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14순위 요구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사의 경우는 조사연구의 중요도(4.25), 실천도(3.10)로 응답하였고 공동실무협의회 운영은 우선순위 요구로 도출되지 않았으며 청소년기관과 차이를 보였다.

○ 문제 원인

그동안 청소년기관에서 학교와의 소통과 협조를 얻는 것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청소년활동(수련)시설은 청소년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교육청이 서로 소통하는 실질적인 실무협의회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 대안 마련

첫째, 행정 권역별 학교/청소년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기관 간의 협약(MOU) 체결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실무자 및 각 분야전문가의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중앙 부처 차원의 각 부처 및 단체와의 협약((MOU)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단위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장현진, 2014). 협약(MOU)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지역연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공동실무협의회를 내실있게 정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동실무협의회의 정례화는 정책 계획으로부터 일선 학교-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임지연, 2014)으로 도움이 된다.

표 Ⅵ-3 초·중·고 학생수/ 학교수/ 교육지원청수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시설 비율

구분	산출근거		단위학교당 청소년(수련)활동시설 수(%)
1	초·중·고 학생수/ 청소년(수련)활동시설수	6,285,792/ 753	학생 8,347명 당 1개 시설
2	초·중·고 학교수/ 청소년(수련)활동시설수	11,446/ 753	학교 15개 당 1개 시설
3	청소년(수련)활동시설수/ 초·중·고 교육지원청수	179/ 753	1개 교육지원청 당 4.2개 시설

참고: 교육통계서비스(2014.11.12). 유초중등 학교급별 개황.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4. 11. 12에 인출.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둘째, 교육지원청 별로 공동실무협의회를 관계 법령에 명시한다. 현재 교육지원청은 17개 광역시도별로 179개가 있으며, 1개 교육지원청 당 4.2개의 청소년(수련)활동시설의 수가 존재한다. 교육지원청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지역 연계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실무협의회의 법령 명시는 지속가능한 진로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 체험처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임지연, 2014)이 될 수 있다. 현재 학교-지역청소년기관은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급급하지만,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방식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동실무협의회는 지역체험 인프라 유형별 특성별 연계방안에도 도움이 된다.

2. 통합 (청소년기관과 학교)적으로 요구된 정책과제[21)]

1) 프로그램운영 영역

(1순위) 지역체험 단체활동 시 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

○ 문제 현상

이동수단이 학교(교사)와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의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학교는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이 1순위, 청소년기관은 학교의 비협조(이해부족)가 1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동수단이 1순위 요구사항이라는 조사결과의 의미는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 시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를 조사했을 때 1순위로 지원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학기제 등으로 이미 현장에서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면서도 실천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이동수단이 1순위로 제시된 결과임을 의미한다. 수학여행을 포함한 수련활동 등 뿐 아니라 학교 밖 현장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지역연계 체험활동 등을 위한 "이동수단"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뿐이 아니라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인식이 96.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도 연결된다. 학교에서도 기관에서도 지역으로 나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동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면담조사 결과 역시 학교와 청소년시설 및 지역연계기관간의 거리가 이 둘 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매개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면담결과 학교교사들은 지역연계기관을 선정할 때 이동수단, 이동시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에서는 자율과정의 진로체험활동이나 선택프로그램 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동할 때 학교 측에서는 안전면이나 시간 소요 측면에서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는 이동거리가 긴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1) ◇통합(청소년지도사, 교사) 조사결과, 우선순위 요구사항 11개 항목은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의 현장, 교육청과 지자체와 각 부처가 공통으로 노력해야할 요구사항임.

○ 문제 원인

구체적으로 이동수단의 의미는 교통안전수단, 학생관리, 인솔문제, 교통비용, 계약 및 답사 등 교사와 현장 지도자의 업무량 증가 및 심리적 부담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학생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이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교육활동이 무의미해진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면접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도보 15분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갈아타지 않고 30분 이내로 이동하는 것을 적정한 거리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지역 내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경우 먼 곳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이 각자 교통수단을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것은 학교 측에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인솔상의 문제, 시간소요의 문제 등이 대두된다. 더구나 학생들이 동시에 여러 장소로 이동할 경우 교사만으로는 부족하여 학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학부모의 안전까지도 학교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체험활동을 위해 주로 오후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교육활동 시간 확보에도 손실이 발생한다.

○ 대안 마련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해야 할 때 원거리는 버스 임차, 소규모로 근거리 이동을 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셔틀버스 등이 있으면 시간이 단축되고 사전교육이 용이하고 이동시 안전사고 부담이 경감된다. 체험활동을 하고 싶지만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청소년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교육의 방향이라면 근거리이든 장거리이든,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간에 이동수단이 필수적이다. 이동에 대한 교사와 현장 지도자의 행정적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나 동사무소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근처 학교나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교육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 현장 실무자(교사, 청소년지도사 등)들은 예산을 직접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사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체험활동 차량을 2대 구비(이승훈, 2014)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기관의 순환버스 운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기관에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단체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읍면 지역 등 이동거리가 먼 지역에는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을 확대·증설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기관의 공간을 확대 배정함과 아울러 지자체별로 청소년기관을 증설하여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면 이동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도움(박찬열, 2014)이 될 것이다.

(6순위) 지역체험 시 입장료 지원 또는 할인

○ 문제 현상

지역체험 시 입장료 지원 또는 할인이 6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교육기부를 통해 무료 체험학습에만 치중하다보면 유료 체험프로그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나 지도자 입장에서는 실제 활동비용으로 입장료나 참가비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프로그램별로 학부모 동의나 학생의 참여의사 등을 거쳐 수행해야하므로 업무량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다.

○ 문제 원인

자율과정의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을 할 경우, 학생들은 입장료 및 체험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 학교 밖 활동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는 학부모 및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면담 조사 결과 1회 입장료 자체가 많이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비, 입장료, 체험활동비가 반복적으로 소요되다 보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활동으로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으므로 행정적인 절차도 수반되어야 한다. 때문에 교사로서는 체험활동 시 소요되는 입장료 등 수합이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업무가 된다.

○ 대안 마련

모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시행되면 입장료에 대한 수익자

부담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학생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입장료 지원 및 할인은 학교와 지역체험기관, 각 정부부처가 소통하면서 함께 지원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부처와 행정기관 간에 학생 체험활동을 위한 할인 또는 무료 입장에 대해 협조요청 등 연결망을 구축한다.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공유하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결국에는 문화 인프라로 형성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둘째, 체험처를 제공한 지역체험기관에서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마크나 홍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교육청이나 관계기관에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담조사 결과 실제 일선학교에서는 감사 선물, 감사 엽서 및 편지 등을 체험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이외에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보다 그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면담조사결과에서 체험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참여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체험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 활동에 따른 재정 지원, 세금 감면 혜택도 있겠지만,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마크나 홍보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생이동, 체험활동 등에 학교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청소년기관에 무료 프로그램을 요청하게 되고, 이는 청소년기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청소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자율과정의 다양한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2) 프로그램 개발 영역

(8순위)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문제 현상

프로그램 개발 영역에서는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8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학생요구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요구조사나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다면 체험활동의 동기, 흥미도, 교육적 효과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자율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희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연구의 면담결과 학생들은 각자 체험기관을 다녀온 후 자신들의 활동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기관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기관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이 아닌 자신들이 이 프로그램에 왜 참여해야 하는 지 납득이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면담에서 밝혔다. 실제로 교사와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으로 교사의 24%(3위), 학부모의 30.5%(1위)가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꼽았다(신철균 외, 2014). 하지만 최소한 학년 단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현실 속에서 모든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은 인적·물적 제약이 크게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요와 흥미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교육관계자의 책무일 것이다.

○ 문제 원인

현재는 학생이 요구한 프로그램에 인원이 마감이 되면 다른 차순위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자신이 요구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왜 이런 체험활동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학생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1:1로 개발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최소한 동학년, 크게는 전체 학년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교사들의 수업 배치나 학교 운영상의 이유로 동일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으면 교사의 수업시간 배치 상의 문제, 학사 운영 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학교에서는 최소한 학년 단위로 교육활동을 계획한다. 이런 경우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이나 선택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전체 학생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교 측에서는 최대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활동 장소가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마다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최소한 학년 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하므로 학생의 관심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사 및 장소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청소년기관의

수용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학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맞춤식으로 제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대안 마련

학생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요구조사를 통해 표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능한 대로 다수의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학생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일정이 맞지 않으면 편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기말 전에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하여 학생의 희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학교교육과정이 확정되기 전 12월, 늦어도 1월까지는 협의 하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학교-청소년기관의 교육과정 연계는 주로 자율과정인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 등에 한정되어 있다. 향후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교과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이 학교 담장을 넘어 학교 밖으로 외연을 넓히고, 청소년기관도 학교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풍성한 체험활동 기반 교육활동(정영근 외, 2014; 임언 외, 2008, 노경란, 2007)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관에서 학교에 대해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학교의 비협조(이해부족)(22.8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밖에서 바라볼 때 학교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지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이 더 이상 학교 담장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기관과 소통하려는 방안 수립을 하여야 할 때이다.

3) 전문성확보 영역

(5순위) 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의 채용

○ 문제 현상

전문성확보 영역에서는 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의 채용이 5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학교-지역연계는 많은 시간과 노력,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의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이러한 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당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의 업무과중이 발생하거나 해당업무의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통과정에서의 교육방법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면담조사에서 학생들은 자율과정의 체험활동에서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차이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과정의 체험활동은 자유학기제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은 아닐지 몰라도, 학생들에게 여타의 교육과정과 가장 큰 차이점을 느끼게 하는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교사들은 자율과정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단계마다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 학부모동의서 수합, 활동비 수합, 체험장 섭외, 체험장 멘토와의 교육활동 협의, 체험장 배정, 인솔문제, 체험지도, 체험 후 활동 등으로 교사의 업무는 이전보다 폭증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 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면담조사 결과 현재는 자유학기제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학교 교사와 청소년 시설의 담당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교와 지역연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본래 맡고 있는 업무로 인해 자유학기제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전담인력 채용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 문제 원인

학교와 지역연계를 전담할 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해당 인력을 학교와 지역사회 중 어디 소속으로 어느 곳에 배치할지, 배치하는 인력의 예산부담은 누가할지에 대한 주체가 모호하다. 기존의 인력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업무과중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인력의 배치에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 운영에서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업무부담 과중이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들은 교과영역에서 수업방법 개선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을 위한 준비과정부터 체험활동 사후활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자유학기제라는 생소한 제도가 시작되어 교사가 교육활동 내용 개선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신철균 외, 2014), 연구학교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학교 내부 보조·행정인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지도사들도 자유학기제 등 학교연계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실제 학교와 연계 업무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채용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 대안 마련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을 두어 1년하고 담당자가 바뀌는 것으로 인한 시간적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의 채용은 업무의 지속성을 통해 실질적 노하우와 네트워크 소통능력 등 실무역량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안정적인 학교-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관에서는 전담인력, 학교연계 활동자체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담인력의 채용은 청소년지도사 채용을 요구한다. 학교 전담인력은 지역연계 체험활동 관련 행정실무사 등 채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체험활동 시 다양한 행정처리, 기관연계 등 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한다.

첫째, 학교-지역연계를 전담할 인력의 신분과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채용, 배치, 역할, 예산의 부담주체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혹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인력을 업무조정 등을 통해 재배치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둘째, 배치되는 인력의 예산부담 주체에 따라 청소년시설 혹은 학교 등 배치장소가 결정될 수 있으며 업무추진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향점이 제시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관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등과 같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학교 내 행정실무사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최소한 자유학기제 운영이 정착되어 운영방법 및 교육활동 자료가 충분히

축적될 때까지라도 연구학교에 교사를 보조할 행정실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들은 체험활동 기관 섭외, 체험활동비 수합, 체험장 방문 및 안전 사항 점검, 연계 시 행정 절차 처리, 학생 인솔 지도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섯째, 전 교사가 수업방법 개선 및 자율과정 운영안 작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이 한 학년에만 국한되다 보니, 같은 학교 내에서도 다른 학년을 전담하는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운영에 소극적일 수 있다. 전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업방법 개선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성장시키는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지도안 작성, 교육활동안 작성 등에 있어 업무분담을 통해 전교사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4) 실무역량 육성 영역

(9순위)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현장교육담당자) 양성·운영 시스템 마련

○ 문제 현상

실무역량 육성 영역에서는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 양성 및 운영 시스템 마련이 9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지역체험활동에서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 현장 교육지도자,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멘토의 종류는 체험기관 수만큼 다양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도 그중 한명으로 볼 수 있다. 면담 조사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교육멘토로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의 역할은 안전을 담당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교육멘토 양성 및 운영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 문제 원인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정책 흐름을 교사만 알아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가야한다.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체험기관 진로교육 담당자 등이 교육역량이 강화되도록 교육멘토로 양성 및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지역사회 체험기관을 방문하면 일정 교육적 역할을 교육멘토가 수행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질적 양적으로 교육멘토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는 교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교육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대안 마련

첫째, 교육멘토 양성은 청소년 지역체험기관 실무자들도 보수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주어 역량자체를 강화해야한다. 체험활동 마치고 피드백과정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피드백을 실시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둘째, 교사도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활용하기(예, 청소년수련관 등) 위한 연수 양성 교육이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참여 터전의 청소년체험 담당자에 대한 청소년 이해와 체험활동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체험기관 인센티브 영역

(10순위)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 문제 현상

체험기관 인센티브 영역에서는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이 10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체험기관이나 지역 사업장, 기업체에서는 청소년체험활동을 위한 인력, 자원, 시간, 공간, 영업 등을 투입하여 지역 체험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지속적인 체험활동을 실시할 경우는 실질적 지원으로 다양한 방식의 세금감면이 필요하다. 지역체험활동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 지역에 소재한 청소년기관, 소규모 자영업체, 중소기업 등이 참여해야 하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들의 특성상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체험 방문은 지역체험기관에 재정적 손실 등이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면담조사 결과 체험기관에서는 실제 자유학기제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매출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체험기관 내 직원들 중 일부는 학생들의 방문으로 인해 자신들의 일이 늘어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 원인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체험터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수련시설이나 단체 등에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단체 또한 체험시설 연계에 재정적으로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175개의 1년 평균 연간 총수입이 12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연간 총수입이 5억 미만인 청소년수련관이 72개소로 41%에 달한다. 전국 175개 청소년수련관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수는 평균 18.5명이고 그중 청소년지도사는 6명 정도이며, 전체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곳도 51개소로 29%에 달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196개소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1억5천만 원 정도이며, 이중 1억 원 미만인 곳이 108개소로 55%에 달한다. 청소년문화의집 210개소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수는 평균 3.9명이고 그중 청소년지도사는 1.9명이며, 전체 직원 수가 3명 미만인 곳도 84개소로 40%에 달한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2b).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재정운영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도 청소년 학교연계 체험활동 많이 하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인력, 시간, 장소 모두 투입해야 함으로 사실 지역사회 강좌 등 수익사업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재정난이 예상된다.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은 청소년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공공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충당하는데,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절반도 훨씬 못 미치게 지원받기 때문에 재정을 자립적으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

○ 대안 마련

첫째, 학교연계 청소년 지역체험활동을 일정 기간에 몇 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관 등과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금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터전으로 참여하는 기업체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감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예, 농촌체험마을 세금감면 등).

6) 제도마련 영역

제도마련 영역에서는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개정·제정, 안전대책 마련,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로 5개 항목이 제시되었다.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 추가 배정, 23)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 22)청소년(학생)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 32)체험활동 안전대책 마련,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이다.

(2순위)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 추가 배정

○ 문제 현상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 추가 배정이 2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에 예산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지역체험 프로그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내역은 강사비나 재료비 등의 실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예산들을 청소년기관이나 학교에서 지역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매번 학생들의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는 어렵다. 특히 학교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처럼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때는 건건이 실비를 학생들에게 걷기가 어렵다.

○ 문제 원인

학교는 지속적으로 진로교육이 가능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필요하다. 한두 번 행사로 지역연계 체험활동을 해서는 교육적 효과를 담보하기도 어렵고 연계활동을 위한 노력의 소모도 아까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있는 청소년기관의 입장에서 학교연계 체험활동은 기관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가 청소년기관에 교육기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은 98%가 공공기관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이 대부분 절반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공공요금 등을 합하여 절반 이하로 지원하는 형편이다.

학교와 청소년기관 모두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교통비, 입장료, 강사료 등)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기관에 학교가 와서 체험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시할 때에 교육기부로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를 앞서 제시하였다. 때문에 청소년기관에서는 학교연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가 교육기부나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면 청소년기관들은 비용을 충당할 곳이 없는 형편이다.

○ 대안 마련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은 학교에서 실비 비용을 지불하고 청소년기관을 이용하든지, 지자체나 여성가족부, 정부 기관에서 청소년기관에 직접 지원을 해주든지 하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기관도 학교처럼 교육기부를 받아야하는 비영리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입장에서 동일한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청소년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타 지역체험기관보다 교육의 질, 프로그램의 질, 안전성,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전문강사(교육멘토 등)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이익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관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립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따라서 첫째, 학교에 지역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지역체험기관(기업, 병원, 자영업 등), 청소년기관에는 한두 번은 교육기부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역연계 체험활동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기관에 지역체험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기관을 설립한 지자체나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등 정부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방식이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를 위해 의식제고, 법령 등 제반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순위) 지역-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

○ 문제 현상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이 3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 청소년기관의 96.6%가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의 98.6%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로 학교의 이해부족(비협조)(1순위),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의 지원부족(2순위), 학교-청소년기관의 정보교류시스템 부족(3순위)이 나타났으며, '학교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는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1순위), 업무과다(2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의 소통과 홍보, 신뢰구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교는 지역체험기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및 자원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기존에 존재한다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면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관과 단위 학교가 개별적인 접촉이나 연계 차원으로 머물러서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고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프라 발굴뿐 아니라 기존의 존재하고 있는 지역자원에 대한 체험기관 별로 특성에 맞는 연계협력 지원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본다.

○ 문제 원인

위에서 제시된 조사결과의 원인으로는 첫째,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며, 청소년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행정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지역 체험기관의 특성에 맞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청소년기관에서는 학교의 지역체험활동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방식과 관련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체험기관을 상대로 체험활동 관련 공통 실무연수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면담조사 결과 청소년기관의 담당자들은 학교 교사들이 보이는 폐쇄적 태도가 자유학기제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지속적으로 연계 가능한 청소년기관을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순 활용하면 되는 체험기관으로 생각해서는 자유학기제에서 지향하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와 지역자원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상호 소통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만 개별적인 연계 지원 노력에 멈추어져 있을 뿐, 정책적 제도적으로 홍보나 신뢰구축, 정보전달 등의 일괄된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담조사 결과 SNS를 통해 학교교사와 청소년기관 담당자가 수시로 상호소통을 하여 자유학기제 활동이 손쉽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수요조사 결과(한국교육개발원, 2013b)를 보면 학생들은 체험중심의 수업 방식을 가장 선호하며,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선택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및 체육 활동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함께 노력해야 한다. 실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도 42개교 중 15개교만이 청소년관련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다. 실제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인구 대비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2013년 현재 42개교 수준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인프라의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 및 청소년활동과의 연계방안 준비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대안 마련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으로 지역별로 있는 교육청이나 자치구청과 연계해서 정보지원하거나 전담인력을 두어서 인프라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청, 구청 홈페이지에 청소년체험기관 정보를 홍보, 안내 등을 하는 것은 신뢰구축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에듀팟 등 체험활동 기록시스템을 활용하여 체험활동 소감 등을 학생들이 직접 입력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고 체험활동 결과를 축적하여 체험활동 정보 생산 등과 연결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청소년지도사연수 및 교사연수 등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한 연수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 관련자들과 현장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연수과정에 해당 내용을 편성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지역청소년기관이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 MOU 등을 체결뿐 아니라, 실효성있는 상호간의 연계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을 통한 홍보, 정보, 안내 등 지원시스템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체험활동 관련 모든 전산망을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연결, 통합하여 전산망(에듀팟, 꿈길, 크레존, 교육기부 매칭사이트, 유스내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통합 지역체험활동 정보시스템을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이 학교, 지역체험기관,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본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적극 통합,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는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 에듀팟, 서울시에서 구축한 유스내비, 여성가족부에서 구축한 청소년활동인증

프로그램 사이트 등에 대해 학교와 청소년기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각 지자체 차원의 정보안내 지원 시스템을 연계 및 통합하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청소년기관 등에 해당 전산망의 접근권한 부여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정책에서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 청소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관련 전산망간의 연계 등을 통해 지원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각 구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설치하여 청소년시설과 학교의 연계를 더욱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4순위) 청소년(학생)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

○ 문제 현상

청소년(학생)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이 4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진흥에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도 진로교육법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 체험 인프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예산지원 등 협력이 어려운 실정(장현진, 2014)이다.

현재 교육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많이 실시하지만 각 부처별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다르며 일회성 사업형태가 많다. 정책을 구현하는 일선 현장(학교, 청소년수련시설, 공공기관 등)에서는 서로 이해와 소통을 지원하는 정책이 없어서 연계 협력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사업은 현재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 관점의 접근보다는 학교 업무를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는 지역으로 이동하기보다는 교내에서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부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지역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힘든 현실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는 예산문제와 사업 추진 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사업의 지속성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당면하여 있다.

○ 문제 원인

첫째, 일선 현장에서 서로 이해와 소통이 없어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일선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서로 다른 학교-지역체험기관 간의 연계협력이 어려우며 단편적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원인은 정부 관련 부처 간의 협의 및 협조가 미비하기 때문이며 국가정책 목표 일관성 부재 및 전달체계 미비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둘째, 지역체험활동(진로체험, 직업체험 등 포함)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법령의 일관성, 통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대안 마련

체험활동 관련 교육부 지침이나 체험활동 관련 학생안전 관련 법령을 제정할 때는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공통적인 사항임으로 각 관련자, 정부부처,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소통하며 관련 법령 개정·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체험활동(진로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포함)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총괄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에서는 학교 체험활동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하여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교육청 및 시도 중심의 체험활동 지역협의회체 구성과 운영 관련 법령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 자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지원 및 학교와의 역할분담 필요하다. 여섯째, 교과과정 연계 및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관련 법령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체험활동 전문지도자로서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확대 관련 법령 지원이 필요하다.

(7순위) 체험활동 안전대책 마련

○ 문제 현상

체험활동 안전대책 마련이 7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관과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 여러 곳으로 학생들이 이동함에 따른 안전지도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다양한 체험장 별로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상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학생 인솔이나 체험활동 시 학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학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솔자의 안전, 체험장의 시설 관리상의 문제, 체험장 인력의 안전 문제까지도 모두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문제 원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교사, 청소년지도사 모두 단체 체험활동 시 고충을 덜어줄 방안으로 복잡한 버스, 숙소계약 및 답사, 단체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책임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체험활동을 할 경우 교사만으로는 인솔지도 및 체험활동 지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안전문제까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체험장에서 체험활동을 할 경우 체험장 내의 시설상의 안전문제가 대두된다. 체험활동 중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 체험장의 기물 파손 문제, 인솔자 및 체험장 근무자의 안전문제까지 단계별로 세밀한 안전대책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

○ 대안 마련

체험활동 전에 학생과 인솔 지도자의 장소, 교통수단, 건강관리, 비상대책 등 안전지침과 교육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지역체험활동이 효과적인 활동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청소년기관, 지도자, 여행사, 운전기사, 보험회사, 숙박시설 업자 등 관련자들의 인식 혁신과 계약과 추진 지원 시스템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첫째,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요즘 안전의식이 높아지긴 했지만, 안전수칙 준수가 습관화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도 숙지하도록 교육한다(서울시교육청, 2014). 둘째, 체험장에서 숙지해야 할 안전사항을 학교와 연계기관 간에 공유한다. 체험장 연계 시, 사전에 기관 방문을 통해 체험활동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교사가 전담하기는 어려우므로 업무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체험활동 준비 단계 및 체험활동 시, 이동 시 지켜야 할 안전매뉴얼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제공한다. 넷째, 학생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11순위)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 문제 현상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가 11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시설은 그 규모나 프로그램 운영 특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근처에 위치하여 자유학기제 등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은 98~99%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로서 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사의 지도하에 체계적 조직적인 청소년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기관임으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성가족부(2013)와 안전행정부(2014)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은 법적기준 227개(시, 군, 구) 대비 181개로 79.74%의 설치가 이루어진 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법적기준 3,488개(읍, 면, 동) 대비 219개로 6.27%만이 설치되어 있는 실태이다(표 Ⅵ-4). 2014년 현재 전국 중학교는 3,173개교이며, 전국 교육청은 179개가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을 구분하고 관내의 교육지원청 수에 따라 기초적인 산술로 나누어보면, 교육지원청 당 평균 4.2개의 청소년(수련)활동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역에 따라서 세종시(1.0개)부터 제주도(21.5개)까지 다양하게 설립(장현진, 2014)되어 있다. 현재 청소년활동시설의 양적인 숫자로는 실질적으로 학교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청소년시설도 다수의 학교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으로 설립확대가 요청된다.

본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응답이 청소년기관(96.6%)과 학교(98.6%)에서 대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관이 대도시(47.7%)와 중소도시(33.8%)에 집중되어 있고 읍면지역(18.5%)에는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알 수가 있다. 읍면지역에 지역자원이 부족(58.1%)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에서 읍·면·동 지역에 설치하도록 한 문화의집 설치를 촉구한다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Ⅵ-4 시·도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 현황(2013년 기준)

시·도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 유형						계	교육지원청 수	지원청당 평균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181	219	173	45	127	8	753	179	4.2
서울	33	17	2	0	4	5	61	11	5.5
부산	8	9	4	2	1	0	24	5	4.8
대구	5	6	1	0	1	0	13	4	3.3
인천	8	6	5	4	3	0	26	6	4.3
광주	5	4	1	0	1	0	11	2	5.5
대전	4	7	1	0	1	0	13	2	6.5
울산	1	6	2	0	0	0	9	2	4.5
세종	0	1	0	0	0	0	1	1	1.0
경기	28	41	47	4	23	1	144	25	5.8
강원	14	27	16	6	17	1	81	17	4.8
충북	9	9	15	2	11	0	46	11	4.2
충남	9	10	14	3	13	0	49	14	3.5
전북	11	20	13	3	6	0	54	14	3.9
전남	13	11	8	7	5	0	44	22	2.0
경북	16	11	14	7	15	0	63	23	2.7
경남	14	15	25	4	13	0	71	18	3.9
제주	3	19	5	3	13	0	43	2	21.5

출처: 여성가족부(2013) 자료를 도태로 재구성한 것을 장현진(2014).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과제와 전망. 한국진로교육학회. p. 32.에서 인용함.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로서, 전국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은 781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일일생활권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은 전국 400개소로서 전국 6만 여개의 시군구(227개), 읍면동(3488개) 수에 비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특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원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들 중심 시설을 건립하는 것 보다 정치 및 행정전시용으로 대규모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향도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일상적인 연계·협력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2년도 청소년수련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이 전국 평균 10.98개의 학교와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체결하였고, 연계·협력 사업수도 평균 49.25개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2).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수련관과 학교의 연계·협력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연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문제 원인

현재 청소년기본법 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의하면 청소년시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시·군·구 227개[22]에서 청소년수련관은 181개(공공 177, 민간 4)로 아직도 20.26%의 시·군·구에서 설치·운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표 Ⅵ-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읍·면·동 3488개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은 219개(공공 216, 민간 4)로 아직도 93.73%의 읍·면·동에서 설치·운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표 Ⅵ-6). 이러한 문제원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부족 및 예산부족,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 청소년활동시설의 정체성 및 홍보부족, 법으로 설치의무화 하였지만, 미설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설치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근거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설치 노력을 촉구함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마다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설립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Ⅵ-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53	181	219	173	45	127	8
공공	485	177	215	42	27	16	8
민간	268	4	4	132	18	111	0

자료: 여성가족부(2012.12.31. 기준). 청소년백서. p. 403.

22) 전국 행정구역(시군구, 읍면동)은 안전행정부(2013). 안전행정백서. p. 990(2014.1.1.기준)에서 참고함.

표 Ⅵ-6 행정구역별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설치 비율

구분	시·군·구	수련관	시·군·구 수련관 설치비율	읍·면·동	문화의집	읍·면·동 문화의집설치 비율
계	227	181	79.74%	3488	219	6.27%

참고: 여성가족부(2012.12.31. 기준), 안전행정부(2014.1.1. 기준), 전국 중학교(3,173개교), 전국 교육지원청(179개).

청소년활동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수반이 되고,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 설립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설치가 청소년수련관에 비해 상당히 미비한데 청소년수련관은 다목적형태로 설립되어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연령이 다양하여 지역사회에서 설치요구가 있으나,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주된 이용자가 청소년으로 지역사회에서 시설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낮아서 법적기준대비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법적 설치기준에 대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지가 낮다. 이로 인해서 시설설치에 대한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지역 내에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 대안 마련

첫째, 청소년문화의집의 법적 설치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관에 비해 청소년문화의집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지역중심의 연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효과적이므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시설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설치방법에서는 시설을 신축하는 방법보다는 지자체의 지역주민 센터의 통합 등에 따른 유휴건물이나 복합시설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설치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설치속도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법적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마련과 로드맵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적 설치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잦은 변동 등으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의 법적 설치기준에 대한 이해가 낮으므로 중앙정부에서 청소년시설설치에 대한 권고 및 법적기준에 대한 안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담당공무원 연수 시에 해당내용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활동시설이 숙박 및 오락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청소년활동시설의 목적과 특성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정체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시 대규모 청소년수련시설보다 지역여건, 청소년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시설 건립과 설치운영에 대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비 확보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각종 세제 혜택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기관의 양적 증가와 프로그램운영 등 질적 발전을 위해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교육의 힘을 키우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도 함께 필요하다.

3. 단계별 추진 로드맵

지금까지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우선순위 요구사항을 통해 도출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VI-7).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면서도 실천도가 높은 요구사항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제도마련(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운영과 개발(이동수단,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전담인력, 체험기관 인센티브와 같은 실질적 측면의 요구사항들이 제시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지원마련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현장 차원에서는 이미 실천적 실무적인 내용들이라서 제도적 요구 뿐 아니라 실천적인 실무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지원방안이 많이 요구된 점이다. 중·장기 정책과제로서 지원이 필요한 제도마련(예산, 법, 시스템)뿐 아니라, 단기 정책과제로서 지원이 가능한 실천적인 내용들인 프로그램, 실무역량 등에 관한 내용들이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은 주목해 볼 일이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에 대한 조사결과임으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면서도 실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먼저,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의 경우 학교(교사)와 다른 항목은 최우선순위에 실무자연수, 실태 조사연구가 나타났으며, 차순위로 20)학교/청소년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가 제시된 점이다.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최우선순위로 나타난 영역은 제도마련(5개), 실무역량육성(2개),

프로그램 운영(1개), 프로그램 개발(1개), 전문성확보(1개)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자유학기제 등 학교연계 실무자연수 등의 기회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며,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조사 연구를 통한 현장의 변화와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요구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공동실무협의회 등 학교와의 소통과 협조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던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라는 학교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부족한 입장에서 예산배정, 법령, 지원시스템에 대한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사)의 경우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와 다른 항목은 이동수단과 안전대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점이다. 교사의 경우 최우선순위로 나타난 영역은 제도마련(3개), 프로그램 운영(2개), 프로그램 개발(1개)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와 교육멘토 양성에 대한 항목이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교육멘토의 의미는 지역체험기관 내의 진로교육담당자, 청소년지도사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이는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근처의 지역자원 인프라와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다. 학교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교육활동을 할 때 양질의 교육내용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교육멘토의 자질이 필수조건임을 교사들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입장에서의 지역체험기관은 청소년기관 뿐 아니라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기업체 등 너무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체험기관의 입장에서 학교연계를 할 때는 지역체험기관의 설립목적과 자원 등의 특성 등에 따라서 학교연계 활동에 차이가 난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체험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지역연계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활동시설과의 학교연계 활동은 일회적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이는 청소년활동시설이 가지고 있는 설립목적과 청소년지도사, 프로그램 등의 전문성과 공간 등의 인프라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기관과 지역사회 체험기관들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도 현재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발굴하고 구축하는데 여념이 없는 실정이지만 점차 지역사회공동체에 속해있는 지역체험기관의 특성별 연계협력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계협력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러한 우선순위와 차순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함께 연계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공통된 것은 함께 추진하고 차이가 나는 사항은 세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사의 경우는 실무자 연수, 조사연구 등이 최우선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지도사의 상황과 현장을 파악하여 학교연계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

실무연수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부터 시행되어온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현재 실천도와 중요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집단간 차이와 우선순위 결정, 공통의 과제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위함이다. 대상과 행정추진기관이 다르기에 학교가 우선순위로 할 일, 청소년기관이 우선순위로 할 일, 공동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각각 청소년기관과 학교, 정책추진 주체 등 이해관련자들의 공통의 이해와 논의가 의미 있다고 본다.

표 Ⅵ-7 단계별 추진 로드맵(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단계	정책영역	정책과제	정책방안	추진체계[23]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 정책과제[24]				
단기과제 (1-2년)	실무역량육성	1) 자유학기제에 대한 실무자연수	1. 자유학기제와 같은 학교연계 체험활동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및 연수 2. 학교 교사에게 지역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교육연수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
	제도마련	2)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조사연구	1.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2. 학교연계 체험활동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로 단기, 중장기 정책마련	
	협력체계	3) 공동실무협의회	1. 행정 권역별 학교/청소년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2. 교육지원청 별로 공동실무협의회를 관계 법령에 명시	
통합(청소년기관과 학교) 정책과제[25]				
단기과제 (1-2년)	프로그램운영	1) 이동수단 지원	1. 지자체나 동사무소에서 셔틀버스 운영 2. 청소년기관의 순환버스 운행 3. 법적기준대로 읍·면·동에 문화의집 설치	교 육 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
		2) 입장료 할인	1. 학생 체험활동을 위한 할인 또는 무료입장 관계기관 연결망 구축 2. 입장료 할인을 제공한 지역기관에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 부여	
	프로그램 개발	3)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1. 청소년기관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과정과 연동 2.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	
중기과제 (2-3년)	전문성확보	4) 전담인력	1. 부처 담당자의 학교-지역연계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2. 청소년기관은 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채용 3. 학교는 학교-지역연계 행정실무사 추가배치	
	실무역량 육성	5) 교육멘토 양성	1. 지역체험기관 실무자들에게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전문교육 제공 2. 교사들에게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수 제공	

단계	정책영역	정책과제	정책방안	추진체계[23]
	체험기관 인센티브	6) 체험기관 세금감면	1. 지속적인 학교연계 체험활동기관에는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금감면 지원 2. 기업체에는 지자체의 세금감면 필요	
장기과제 (4-5년)	제도마련	7) 예산배정	1. 학교에 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교육부나 정부 차원 예산지원 2. 청소년기관에 학교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여성가족부 등 예산지원	
		8) 지원시스템	1.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와 교사 대상 연수지원 2. 지역체험활동 정보시스템을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전산망 연결지원 3.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	
		9) 법령 개·제정	1.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정책목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체험활동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총괄기구 설치 3. 지자체에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 관련 조례 등 마련 4. 지역교육청 중심의 체험활동 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 법령지원 5. 교육과정 연계 및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관련 법령지원 6. 체험활동 전문지도자로서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확대 법령지원	
		10) 안전대책 마련	1.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2. 체험장에서 필요한 안전사항을 학교와 지역연계기관이 공유 3. 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준수	
		11)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1. 청소년문화의집 법적 설치기준 홍보 및 행정적 지원 필요 2. 청소년활동시설의 전문성에 대한 홍보 강화 3. 지역여건, 청소년인구수, 학교 수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 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재정확보	

23) 추진체계는 정책이나 사업 주관부처, 연계부처, 기관 명시

24) ◇청소년지도사 조사결과,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차별된 항목은 실무자연수, 실태조사연구, 공동실무협의회 항목임.
◇교사 조사결과,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차별된 항목은 재능기부 항목임.

25) ◇통합(청소년지도사, 교사) 조사결과, 우선순위 요구사항 11개 항목은 학교와 지역청소년기관의 현장, 교육청과 지자체와 각 부처가 공통으로 노력해야할 요구사항임.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2011).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보도자료(2013.5.29.).

교육부 (2014). 자유학기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선도교육지원청 선정·운영 보도자료 (2014.2.21).

교육부 (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도자료(2014.3.12.).

김광웅, 이종원, 천정웅, 이용교, 길은배, 전명기, 정효진 (2009).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2013).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의 방향성 모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13-S05):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47-66.

김기헌, 맹영임 (201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연구보고 11-R2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수자, 우명숙(2012).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의 직무역량 요구분석, **지방정부연구**, 16(3). 165-189.

김정배, 추성수, 남미애, 우정자 (2001).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협력 증진 방안 연구: 청소년 자원봉사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주희 (2014). 청소년기관 입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성과와 한계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19-62.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연구보고 10-R08).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Ⅱ**(연구보고 12-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윤혜순 (2013).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학교 내외적 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5-33.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형주, 임지연, 한도희, 김영애, 김혁진, 김인규 (2011). **청소년활동시설의 평가모형 연구 Ⅱ: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연구보고 11-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경란 (2007). 체험중심 청소년 진로교육프로그램의 실천사례 비교분석. **교육학연구. 45(2)**, 31-56.

박찬열 (2014). 청소년시설의 지역기반 진로활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85-94.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 매뉴얼.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계획. 미간행물.

성열관, 김성기, 백병부, 황여정, 배회철, 이형빈 (2013). 강원교육 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 강원도교육청·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은모 (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은모, 정효정 (2013).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진로교육연구. 26(4),** 49-63.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송경오, 박민정 (2014).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자료집: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3-70.**

안선영, 최창욱 (2011).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자원연계 코디네이팅 연수 교육과정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안전행정부 (2013). 2014 안전행정부백서. 서울: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 사업지침. 미간행물.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2a). 2012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2b).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편람.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유진이 (2012). 청소년수련시설 현황분석 및 건립 기본방향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 10(1)**, 27-36.

이광호, 이태재, 윤철경 (1999), 학교 특별활동과 지역사회 수련활동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Ⅰ**(연구보고 11-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기봉 (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외국 사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외국사례와 방향성 모색**, 1-20.

이민희, 주동범, 김흥주, 임지연 (20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연구: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승훈 (2014). 마을을 바탕에 둔 자유학기제, 청소년활동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자료집: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77-79.

이은주 (2014). 청소년시설, 역할의 변화를 고민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1-84.

이지연 (2013).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진로탐색 중심 접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1회 진로교육포럼 자료집: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방향과 과제**, 17-52.

임언,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명희, 정연순, 장석민 (2008).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구축.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지연, 김영석 (2013). 청소년활동시설의 논리주도 평가모형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2)**, 177-204.

임지연, 송병국, 이교봉, 김영석 (2010).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지연, 김정주 (2007).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15(1), 143-170.

임지연 (2014). 지역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현황과 과제 토론문. **제39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진로 직업체험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과제와 전망,** 75-78.

정영근 (2014). 지역사회로부터의 학교연계 관점이 주는 새로운 시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자료집: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103-106.

정영근, 김진숙, 이근호(2014).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세미나 자료집:**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189-239.

장현진, 이지연, 윤수린, 이윤진(2014).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세미나 자료집: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189-239.

장현진 (2014). 지역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현황과 과제. **제39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진로 직업체험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과제와 전망,** 21-68.

천정웅, 김정주 (1999). 청소년육성과 교육분야의 연계협력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청소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청소년육성과 학교교육의 연계 방안,** 1-118.

최상덕, 신철균, 박균열 (2013). 자유학기제 실행방안. **포지션페이퍼(제10권 제1호).**

최상덕 (2014),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 청소년기관의 협력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자료집: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55-74.

최상덕, 신철균, 황은희, 이상은, 김은영 (2014).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 매뉴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창욱, 송병국, 김혁진 (200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연구보고 09-R04),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센터 (2014.6.29). 교육기부의 유형. 교육기부센터 웹 사이트 http://www.teachforkorea.go.kr에서 2014년 6월 29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13a).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자료집(CRM 2013-154).

한국교육개발원 (2013b).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학생 수요조사 결과(CRM 2013-85).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컨설팅결과보고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연수결과보고서. 미간행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3).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사업 운영지원 최종실적보고서. 미간행물.

홍후조, 임유나, 장소영 (2013). 관련자 의견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탐색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9(2)**, 33-68.

황은희 (2014). 학교입장에서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체험활동 쟁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1-18.

Glaser, B., & Strauss, A. (1967). 이병식 외 공역 (2011). 근거이론의 이해. 서울: 학지사.[원저: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부 록

[부록 1] 면접조사지: 담당 청소년지도사용
[부록 2] 면접조사지: 담당 교사용/ 학부모용/ 학생용
[부록 3] 면접조사지: 기타 지역체험기관용
[부록 4] 설문조사지: 담당 청소년지도사용
[부록 5] 설문조사지: 담당 교사용

[부록 1] 면접조사지: 담당 청소년지도사용

[청소년지도사용 면담조사지]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경험-

○ 청소년지도사 면담 질문(자유학기제 학교연계 경험자 등)

(1)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어떤 학교와 어떻게 연계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1년간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2) 자유학기제를 귀 기관의 청소년지도사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3)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연계할 학교를 어떻게 발굴하고 연계하였습니까?

(4) 청소년지도사(교사, 학생, 지역기관)가 학교연계 및 지역체험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합니까? (예, 강사지원, 계획참여 등)

(5) 학생(청소년)이 청소년수련관, 지역체험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6) 학교연계 자유학기제 지역체험활동의 전과 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7) 학생들에게 수련관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활동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8) 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지역체험활동이 청소년수련관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9) 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지역체험활동이 청소년수련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은 무엇입니까?

(10) 창의적 체험활동을 했을 때와 자유학기제 경험과 특별한 차이점을 느끼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점에서 입니까?

(11) 학교로부터 어떤 것을 지원받고 싶습니까?(예: 프로그램 홍보, 지속적 연계, 현장체험 계획 산전협의, 학생활동 지원, 실무진행 등)

(12) 지역체험연계 기관으로부터 어떤 것을 지원받고 싶습니까?(예: 프로그램, 강사, 현장체험 실무진행 등)

(13) 귀 청소년시설이 다른 청소년시설에 비해서, 학교와 연계의 성공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역 연계의 성공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4) 학교 연계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걱정되는 점은?

(15) 지역기관 연계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걱정되는 점은?

(16) 학교 연계 시 학교담당자 누구와 주로 협의합니까?

(17) 학교 담당자와 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 공문, 방문, 회의, 전화, 문자, 홈피 공고 등)

(18) 지역체험기관 연계 시 누구와 주로 협의하는가? 지역체험기관 관련자와 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입니까?

(19) 학교 담당자, 지역 관련자 등과 갈등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가? 있었으면 갈등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20) 학교연계를 위한 협의목적으로 귀기관은 몇 번이나 학교를 방문했습니까?

(21) 자유학기제 학교연계를 위하여 학교의 교육과정과 단원별 학습시기, 계획일정, 운영시스템 등 학교 내부의 지역체험 등 청소년활동 운영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22) 수련관에서 기존에 진로체험활동, 지역탐방, 진로검사를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운영해왔습니까?

(23) 지역체험활동을 기존에 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에서 진행해 오셨는가요? 이런 것이 자유학기제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합니까?

(24)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지역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인식과 여건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감사합니다 ♧

[부록 2] 면접조사지: 담당 교사용/ 학부모용/ 학생용

[자유학기제 관련 면담조사지]

○ 교사 면담 질문(자유학기제 담당부장 및 교감)

(1)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어떻게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2) 작년부터 1년간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3) 자유학기제를 교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사들의 불만사항은 있었습니까?

(4) 지역사회 연계기관을 어떻게 발굴하고 연계하였습니까?

(5) 지역 내에서 연계 기관을 찾는 학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예, 학생희망여부, 접근성 등)

(6) 지역기관과 지속적으로 연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7) 학부모가 지역체험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8) 학생이 지역체험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규모 등)

(9) 지역연계 기관으로부터 어떤 것을 지원받고 싶습니까?(프로그램, 강사, 현장체험 실무진행 등)

(10) 지역기관 또는 청소년수련관 연계 자유학기제 지역체험활동 경험전과 후의 차이가 있습니까?

(11) 학생들에게 지역체험 또는 수련관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12) 지역,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지역체험활동이 학교에 도움이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13) 지역,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지역체험활동이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은 무엇입니까?

(14) 창의적 체험활동을 했을 때와 자유학기제 경험과 특별한 차이점을 느끼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점에서 입니까?

(15)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귀 중학교가 지역연계 성공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6) 지역 연계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걱정되는 점은?

(17) 학부모, 지역 관련자 등과 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입니까?(회의, 전화, 문자, 공문, 홈피 공고 등)

(18) 학부모, 지역 관련자 등과 갈등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갈등해결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19) 교사 입장에서 학교가 청소년수련관(또는 문화의집)에 가서 활동할 때, 수련관에서 어떠한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20) 청소년수련관이 학생대상으로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까?(예: 프로그램, 강사, 지역체험 실무, 지역체험계획 협의, 협의시기, 장소활용, 교사와 같이 청소년지도사의 현장교육 실무역할 등)

♧ 감사합니다 ♧

○ 학부모 경험면담 질문

(1) 학부모는 지역체험 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2)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동기로 어떻게 자유학기 지역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3) 귀 중학교의 경우는 학부모 지원단(운영위 등)이 일주일에 몇 번 참석 활동하셨나요? 학교에서 재정은 지원하였나요? 학부모 모임에서는 어떤 갈등들이 있었나요?

(4) 자유학기 지역체험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까?

(5)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들이 지역체험 활동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6) 자유학기 지역체험이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주길 바라십니까?

(7)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 감사합니다 ♧

○ 학생 경험면담 질문

(1) 지금까지의 지역체험활동 중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 지역체험활동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지역체험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지역기관에 건의 하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4) 본인에게 지역체험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5)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6) 자유학기제 이후 다음 학기의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합니까?

(7)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이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었으면 좋겠는가?

♧ 감사합니다 ♧

[부록 3] 면접조사지: 기타 지역체험기관용

(청소년기관외 공공기관, 개인사업장, 민간단체, 기업체 등)

○ 지역체험기관 경험면담 질문(청소년활동시설 외 기타 지역체험기관)

(1) 귀 기관에서 학생 지역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귀 기관이 학생에게 제공한 지역체험활동은 무엇입니까?

(3) 귀 기관에서는 언제부터 학생 지역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까?

(4) 귀 기관에서 누가 현장에서 지역체험활동을 담당합니까?(멘토역할)

(5) 지역체험활동 운영을 어렵게 만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6) 지역체험활동이 잘 진행되도록 만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7) 귀 기관에서 지역체험활동을 위해 사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였습니까?

(8) 지역체험 활동을 위한 재정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9)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학생, 학교, 학부모, 교육청 등에 바라는 점은?

(10) 귀 기관에서는 지역체험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가?

(11) 귀 기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지역체험 활동을 할 때 가장 우려하는 점은?

(12) 지역체험활동이 귀 기관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13) 귀 기관의 지역체험활동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감사합니다 ♧

[부록 4] 설문조사지: 담당 청소년지도사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20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 개선방안 조사
(학교연계 담당- 청소년지도사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5월31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시설과 학교의 연계에 대한 의식과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기관명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활용됨으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 7.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 담 당 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redacted] 연구위원	실사진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문의처) [redacted]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 **자유학기제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단위학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참여·활동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학교 교육방법의 혁신을 위해 수업개선 등으로도 운영되며 중간·기말 시험이 없고 과정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교육부, 2013.5.31.).

◈ **지역체험기관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기관과 박물관, 도서관, 체육관, 소방관, 기업체, 공공기관, 가게(지역소규모 체험처) 등을 의미합니다.

Ⅰ.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개선방안에 대한 현재 실천도와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기를 해 주세요.

※ 다음은 단위 기관에서의 현재 실천도와 중요도에 관한 본인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재 실천도					설문 문항	중요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기관장 연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지역)연계 전담 인력의 채용 (학교연계 전담 청소년지도사의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연계 담당 청소년지도사의 업무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연계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 및 방향의 지속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참여한 청소년 지역체험기관(소규모 체험처, 기업체, 박물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표창, 명단공개, 감사편지 등 인센티브 부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지역체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수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 지역체험 인솔도우미(대학생, 학부모 등) 봉사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 지역체험 재능기부(강의 등) 봉사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 지역체험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기관 평가시 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반영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체험활동 참가 청소년을 위한 사전교육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지역체험활동 시 참가 청소년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지역체험활동 효과에 대한 평가실시(예, 평가회의, 만족도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지역체험활동 결과에 대한 전시회나 발표회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행정기관에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 운영을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자유학기제에 관한 실무자 연수 실시 (예,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역체험활동/자율과정 관련 등 청소년지도사 연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지역체험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할 전담부서 설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8) 지역체험기관의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 역할에 대한 사전 협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9) 청소년 지역체험기관에 대한 사업 MOU 협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0) 행정 권역별 학교/청소년체험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정부, 지자체, 교육청에서의 현재 실천도와 중요도에 관한 본인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재 실천도					설문 문항	중요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21)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청소년활동시설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2) 청소년(학생)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3)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4) 지역체험활동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5) 지역체험 단체활동 시 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6) 지역체험 시 입장료 지원 또는 할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7)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련관,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을 더 많이 설립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8)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 추가 배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9) 지역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0)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1) 학교-체험활동기관과 프로그램 공동 평가 실시 (예, 사전교육, 협력정도, 학부모 모니터링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2) 체험활동 안전대책마련(사고처리, 국가보상 등 책임 시스템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3)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 양성 및 운영 시스템 마련	①	②	③	④	⑤

– 뒷면에 계속 됩니다 –

Ⅱ.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1. 현재 근무 중인 청소년활동 시설의 유형은?

1) 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문화의집
3) 청소년수련원　　4) 기타_____

2. 응답자의 직위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기관장　　2) 중간관리자(청소년지도사)　　3) 실무자(청소년지도사)　　4) 기타(_____)

3.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4. 현재 학교연계에 대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하다　　3) 중요하지 않다.　　4)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학교연계가 어려운 이유를 두가지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___　　,2순위____)

___① 지역의 특성(교통불편, 먼거리 등)	___② 안전대책
___③ 업무과다	___④ 필요성을 못 느껴서
___⑤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의 지원 부족	___⑥ 인력 부족(청소년지도사)
___⑦ 학교의 비협조	___⑧ 예산 부족
___⑨ 공간협소	___⑩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 전문성 부족
___⑪ 지역자원부족	___⑫ 기관장 인식부족
___⑬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부족	

6. 현재 근무지역　※ 개별 기관명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됩니다.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구　(_____)동/읍/면

(_____)수련관/문화의집 등 이름을 적어주세요.

7. 근무 규모

		5명 미만	5-9명	10-19명	20-30명	31명 이상
1) 청소년지도사 인원수	약(　　)명	①	②	③	④	⑤
2) 정규직원 인원수	약(　　)명	①	②	③	④	⑤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부록 5] 설문조사지: 담당 교사용

이 설문에서 알아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20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 개선방안 조사
(지역체험 담당 -교사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활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시설과 학교의 연계(협업)에 대한 의식과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방안을 제공하기위함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학교명이 공개되지 않으며**, 연구자료로만 활용됨으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 7.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 당 연구자: 연구위원	실사진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부록

◈ **지역체험기관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기관과 박물관, 도서관, 체육관, 소방관, 기업체, 공공기관, 가게(지역소규모 체험처) 등을 의미합니다.

Ⅰ. 자유학기제에서 지역연계 청소년체험활동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기를 해 주세요.

※ 다음은 단위 학교에서의 현재 실천도와 중요도에 관한 본인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재 실천도					설문 문항	중요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지역사회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장 연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체험 연계 전담 인력의 채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연계 담당 교사의 업무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연계 해당 학교의 업무내용 및 방향의 지속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참여한 지역체험기관(청소년수련관, 소규모 체험처, 기업체, 박물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표창, 명단공개, 감사패, 감사편지 등 인센티브 부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지역체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수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 지역체험 인솔도우미(대학생, 학부모 등) 봉사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 지역체험 재능기부(강의 등) 봉사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체험활동기관에서의 청소년 지역체험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평가시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반영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체험활동 참가 청소년을 위한 사전교육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지역체험활동 시 참가 청소년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지역체험활동 효과에 대한 평가실시(예, 평가회의, 만족도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지역체험활동 결과에 대한 전시회나 발표회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행정기관에서 지역체험활동 운영을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자유학기제에 관한 실무자 연수 실시 (지역연계 체험활동/자율과정에 관한 교사연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지역체험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할 전담부서 설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8)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 역할에 대한 사전 협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9) 청소년 지역체험기관과 사업 MOU 협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0) 행정권역별 학교/청소년체험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정부지자체교육청에서의 현재 실천도와 중요도 인식에 관한 본인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재 실천도					설문 문항	중요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21)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2) 청소년(학생)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3)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4) 지역체험활동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5) 지역체험 단체활동 시 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6) 지역체험 시 입장료 지원 또는 할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7)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련관,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 더 많이 설립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8)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 추가 배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9)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0)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1) 학교-체험활동기관과 프로그램 공동 평가 실시 (예, 사전교육, 협력정도, 학부모 모니터링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2) 체험활동 안전대책마련(사고처리, 국가보상 등 책임 시스템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3)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 양성 및 운영 시스템 마련	①	②	③	④	⑤

– 뒷면에 계속 됩니다 –

Ⅱ.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1.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영역을 두가지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____, 2순위_____)

1) 수업방법개선
2)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교내)
3) 진로활동(교내)
4) 지역체험활동(진로, 직업,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 등)
5) 기타_____

2.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___① 없음 ___② 학기당 1-2회 ___③ 학기당 3-5회 ___④ 학기당 6-10회
___⑤ 월2회 이상 ___⑥ 주1회 이상 ___⑦ 주2회 이상

3.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매우 중요하다 ___② 중요하다 ___③ 중요하지 않다 ___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4.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의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이름만 들어봤다.
2) 처음 듣는다.
3) 이용해 본 적이 있다.
4) 자주 이용한다.

5.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를 두가지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1순위___,2순위____)

___① 열악한 지역의 특성(교통불편, 먼거리 등)	___② 안전대책
___③ 업무과다	___④ 필요성을 못 느껴서
___⑤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지원 부족	___⑥ 학교 인력 부족
___⑦ 지역체험기관의 비협조	___⑧ 예산 부족
___⑨ 청소년기관의 인력부족 및 공간협소	___⑩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 전문성 부족
___⑪ 지역자원부족	___⑫ 기관장 인식부족
___⑬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부족	

6. 학교위치 주소 **※ 학교명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됩니다.**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구 (_____)동/읍/면
(_____)중학교 이름을 적어주세요. (_____)교감 (_____)교사

7. 학교 규모 (자유학기제 해당학년)

학급 수 : (_____)개

학급별 인원수: ①10명 미만 ②10-20명 미만 ③20-30명 미만 ④30명 이상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Abstract

Encouraging youth activities through Free Semester System: Focusing on activities of school-local community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current status and requirements of youth activities for 'Free Semester System' and suggest appropriate policy agenda about it. For this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d the amount of importance and current practice of support systems for encouraging youth activities through 'Free Semester System'. The methods of this study were literature review, expert advice, surveys, interviews, and observation. This study suggested eleven most important policy agenda and these policy agenda were revised and complemented by review meetings in order to enhance actuality and efficiency of agenda.

First, in order to explor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youth activities through 'Free Semester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importance of youth activities and 'Free Semester System', the meaning of liaison between youth activities and school, and the meaning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through liaison between youth activities and school.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of 'Free Semester System' in schools and local youth organizations. Third, by using Ground Theory research method, this study found the process and structure of 'Free Semester System' among local schools, youth organizations, and related institutions.

Fourth,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of teachers and youth activity experts in order to explore current status, difficulties, and requirements of 'Free Semester System'. Fifth,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genda for encouraging youth activities through liaison between local society and schools in 'Free Semester System'.

In particular, eleven policy agenda, which have priority were found by conducing surveys of teachers and youth activities experts: providing convenient transportation, insuring enough budget, building support system, enacting laws and ordinances, educating work forces, price cutting of youth activities, increasing securities of youth activities, developing efficient programs, training mentors, deducting tax for local expeirnce-institutions, and building more youth activities institutions. In addition, youth activity institutions demanded three more policy agenda: training staffs, investigating current status and fostering administrative council. This study proposed short-term and long-term roadmaps for developing enhanced youth activities in 'Free Semester System'.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안선영 · 황여정 · 이수정 · 이로사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 임희진 · 송병국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 이경상 · 박선영 · 조남억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정주 · 김정숙

14-R05 아동 · 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 · 조흥식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 · 권재기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 · 신나민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 · 이창훈 · 강지명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 · 송미경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 · 조혜영 · 이태주 · 이덕난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 · 손병덕

14-R14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 · 김희진 · 이민희 · 김윤나

14-R14-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 · 이호균 · 서여정 · 김광혁 · 김형욱 · 윤상석 · 박병식 · 이석구

14-R14-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 · 김희진

14-R14-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 · 하헌주 · 김옥태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 · 임영식 · 김민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신현옥 · 박주희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오해섭 · 맹영임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 · 맹영임 · 문호영

14-R18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황진구 · 모상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허효주 · 문은옥 · 이영화

14-R18-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14-R18-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14-R18-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 · 허효주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윤철경 · 서정아 · 유성렬 · 조아미 (자체번호 14-R19)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I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 · 서정아 · 유성렬 · 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김지영 · 전영실 · 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 · 백혜정 · 진성희 (자체번호 14-R20)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 · 백혜정 · 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 · 배규한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 · 이진숙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 · 임희진

14-R25 아동 · 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박창남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 · 이상준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 · 안선영 · 정은주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 · 안선영 · 정은주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 · 양계민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 · 양계민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김영한 · 이유진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 · 김지연 · 김정주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 · 김혁진 · 김범구 · 정다정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 · 하시연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 · 이종원 · 김희진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 · 이경상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 · 강태훈 · 류성창 · 변수용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김경준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 · 오해섭 · 백혜정 · 김희진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희진 · 황여정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 · 김동일 · 김태완 · 윤철경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 · 윤철경 · 최금해 · 김옥태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 · 김영한 · 이유진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 · 조혜영 · 김용훈

14-R52 신고 · 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 · 김민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 · 왕석순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 · 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 (1/6~10)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I (1/13~17)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14-S13 학업중단예방 시 · 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14-S17 다문화시대 아동 · 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14-S43 제4회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14-S45 아동 · 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보고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5. 08. 31 제 301-2012-019호
인쇄처 동진문화사 전화 02)2269-4783 대표 이병무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10-6 93330